

태백산에서 천신(天神)을 모신 전통과 의의



태백문화원

천신(天神)의 전통과 의미를 찾아서



배 팔 수
태백문화원장 권한대행

태백산은 태백산이 지닌 신성성을 바탕으로 큰 베풀을 주며, 외진 곳이면서 사통팔달로 이어진 발길·물길 그리고 보편적인 종교적 공감대가 충만한 곳이기에 난세를 피할 수 있으면서 희망이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성소입니다.

이에 태백산에서는 신라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다양한 신령을 모신 제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즉 신라 일성이사금 5년(138) 10월에 왕이 북쪽으로 순행(巡行)하여 몸소 태백산(太白山)에 제사 지낸 이후 국가 제장인 중사가 설치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외산제고사(外山祭告使)를 파견하여 국가 제사를 지낸 전통이 계속 이어졌음을 다양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조선시대에 국가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나 성현의 『허백당집』 등을 보았을 때 태백산에서의 제사는 일정 부분을 향리들이 관리하면서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한 형태를 띠면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국가 단계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태백산에서 주로 위하였던 신령은 천신과 산령(산신), 천왕, 용왕 등이었습니다. 이중 천신과 관련하여 태백산 자락을 중심으로 구한말 이전부터 연결성을 지닌 마을들이 함께 천신을 모셨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19세기 후반에 태백산을 비롯하여 지리산·계룡산 등을 찾은 동학 등 신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천신 관련 의례를 행하였습니다.

태백산에서 천신(天神),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령지신(天靈之神)’을 모신 전통은 태백산 정상에서 천제를 지내는 전통으로 확립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천신을 모시는 전통은 각종 산당이나 신종교에서 천신 모신 제단을 설치하여 모시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이전부터 큰 마을 단위로 천신을 모셔 천제를 지낸 전통 또한 구한말~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까지 전승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필자가 태백산에서 발견되는 신성성과 함께 모신 신령들을 조사·연구하는 과정에서 천신, 즉 ‘천령지신(天靈之神)’을 모신 전통이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에 바탕으로 매년 10월 3일 실행하는 태백산천제를 비롯하여 마을천제, 각종 신당에서의 천신단과 이곳에서의 기도와 의례, 동학을 비롯한 각종 신종교에서 천신을 모신 전통과 그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현장 및 문헌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발간한 연구서입니다.

이를 통해 태백산에서 천신을 모신 전통은 기도와 의례로 표출됨을 알 수 있었고, 국가나 지배층 중심이 아닌 백성들이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성한 태백산을 찾아서 천신 기도나 천제를 지냈음을 규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태백산에서의 천제 전통과 관련한 조사·연구 성과는 『사료(史料)로 읽는 태백산과 천제』(김도현, 2009), 「한말~일제강점기 태백산에서의 제의(祭儀) 전승과 변동」(김도현, 2017)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어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문화원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태백산 천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태백산에서 천신을 모신 전통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성과 발표가 세부 영역별로 이루어졌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소개·분석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천신을 모신 태백산이라는 공간에 대한 분석과 태백산을 천신 모심[기도, 제사]에 연결하여 이해하기

에는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태백문화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도현 박사님이 지난 2008년부터 조사한 자료와 2019년에 새롭게 조사·연구한 성과들을 재구성·분석하여 『태백산에서 천신(天神)을 모신 전통과 의의』라는 제목으로 태백산에서 천신 모신 전통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서를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기존의 조사·연구 성과를 다시 구성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현장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태백문화원에서는 향후 추가 조사와 연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 현장 조사 및 문헌 검토를 하고, 태백산에서 천신 모시는 전통을 조사·연구하는 체계를 세운 김도현 박사님과 도움을 주신 연구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태백산에서 천신 모신 전통을 묵묵히 이어가는 수많은 주민들과 보살·법사님들, 산당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매우 크고 신성한 태백산에서 천령지신(天靈之神)을 모신 전통의 전체적인 양상과 함께 한국 문명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는 천신 기도와 제의가 어떻게 연결되고, 궁극적 가치가 무엇인지? 다른 지역 천신 모신 전통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태백문화원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12월

태백문화원장 권한대행 **배팔수**

발간사	2
Ⅰ. 머리말	8
Ⅱ. 태백산의 영역과 의미	14
1. 태백산의 영역	14
가. 지리지(地理誌)와 문집을 통해 본 태백산(太白山)	14
나. 고지도(古地圖)를 통해 본 태백산(太白山)	25
2. 태백산에서 모신 신령들	41
가. 산신(山神)	46
나. 천왕(天王)	52
다. 천신(天神)	61
라. 용왕(龍王)	66
3. 태백산이 지닌 의미	68
Ⅲ. 태백산 천제단과 천제	77
1. 태백산천제 연혁	77
2. 태백산 천제단	78
3. 태백산천제의 전승 양상	82
가. 모시는 신령(神靈)	83
나. 제관	84
다. 제수(祭需)	84
라. 제의 과정	86
4. 태백산천제가 지닌 의미	90

IV. 태백산 자락에서의 마을 천제 전통	94
1. 마을 천제 개요.....	94
2. 전승 양상.....	96
가. 태백시 함백산 절골 천제.....	96
나. 태백시 백산마을 천제.....	108
다.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 천제.....	116
라.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천제.....	121
3. 마을 천제의 구조와 의미.....	124
가. 천제 중심의 마을공동체 신앙 구조.....	124
나. 마을 천제가 지닌 의미.....	135
V. 태백산 소재 신당에서 천신(天神) 모신 전통	140
1. 개요.....	140
2. 신당 형태와 활용.....	142
3. 전승 양상.....	143
VI. 태백산 기반 신종교에서 천신을 모신 전통	150
1. 개요.....	150
2. 최시형의 활동과 동학.....	150
가. 강원도지역에서의 동학 운동.....	150
나. 동학교도들이 태백산 권역에서 활동한 배경.....	151
다. 동학 재건을 위한 활동.....	155
3. 천지중양명류도의 활동과 천제.....	161
4. 전승 양상과 의미.....	173
VII. 맺음말 - 천신을 모신 전통이 지닌 구조와 의미를 중심으로	176



태백산에서 천신(天神)을 모신 전통과 의의

김도현

(문학박사, 太東문화재연구원)

1. 머리말

산에서 모시는 신령들과 이들을 위한 제의 전통은 환웅신화에서 시작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고조선조(古朝鮮條)’에는 「위서(魏書)」와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고조선의 성립과 관련한 신화, 즉 환인·환웅·단군이 등장하여 고조선의 건국에 이르는 과정을 소개한 신화가 실려 있다. 이후 쓰인 『제왕운기(帝王韻紀)』를 비롯한 많은 사서(史書)에도 환웅신화(단웅신화)가 실려 있지만 세부 내용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록에는 기본적으로 천신(天神)으로 인식되는 환인, 태백산으로 상정된 지상 세계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고 고조선 건국 시조인 단군을 탄생시킨 환웅, 그리고 인간적 존재로 고조선을 처음 연 단군왕검이 신화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소개되어 있다.

환웅신화에 등장하는 위의 주인공들을 천신·천왕으로 모시고, 이들이 좌정한 곳인 산의 산신, 그리고 산에 좌정한 조상을 위하는 전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모된 요소도 있지만 태백산에서 모시는 신령으로도 좌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¹⁾

1) 김도현, 「한말~일제강점기 태백산에서의 祭儀 전승과 변동」, 『역사민속학』 5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김도현, 「태백산에서 모시는 신령들, 山神·天王·天神」, 『2018 태백산 천제 학술세미나 자료집』, 태백문화원, 2018.

이와 함께 태백산의 신성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는 물이다. 이를 관장하는 존재를 용왕으로 본다면, 태백산 자락에는 천왕당이 있었던 성소 옆의 용정,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를 비롯하여 용소·용담·구문소의 용 전설, 검용소 등 많은 곳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용왕이 좌정해 있기에 가물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낸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태백산은 국가 제사를 지냈던 성소였고, 한편으로는 불교성지였기에 자장이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찾았고, 동학·태극중앙명류도 등 신종교에 귀의한 종교인들이 찾은 곳이다.

또한 한강·낙동강·오십천이 서·남·동쪽으로 흘러가기에 이 물길을 따라 태백산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연결되는 길이 만들어졌기에 보부상들의 활동 중심지였다. 이에 더하여 조선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의 묘 논쟁[황지부근설·위천설·노동설], 백석 지명, ‘피’ 지명, 김병연 가족이 태백산 자락으로 피신해온 사실, 유성룡 가족이 임진왜란 중에 피난 온 사실 등을 종합하면 난세를 피하면서 후일을 기약할 수 있는 곳이 태백산이다.

신령으로서의 천신(天神)은 하늘이 지닌 신성함 그 자체에 의탁하여 모신 신령[天靈 또는 天靈之神]²⁾, 또는 하늘을 관장하는 신령, 하늘을 초인격화하여 모신 신령, 세상을 관장하는 최고의 신령 또는 기우·역질 구축 등 다양한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신령으로 모셔진다.

역사적으로 태백산에서 주로 모신 신령은 산령[산신]·천왕·천신이고, 이외에 용왕과 서낭을 모신 사례들도 많다. 즉 고대국가 단계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

2) 천령(天靈)과 관련하여 비교 대상은 해령(海靈), 산령(山靈)이 있다.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 등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신령으로 모셔지는 존재는 해령(海靈)은 산령(山靈)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바다가 지닌 신령함 그 자체에 의탁하여 종교적 염원을 이루려고 모신 신령이다. 해신(海神)은 바다를 관장하는 지위를 지닌 신령을 이르는 표현이다. 이와 같이 해신과 해령은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천신과 천령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까지 태백산에서 주로 위하였던 신령은 천신과 산령[산신]·천왕·용왕 등이었다. 이중 천신과 관련하여 태백산 자락을 중심으로 구한말 이전부터 연결성을 지닌 마을들이 함께 천신(天神)을 모셨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19세기 후반에 태백산을 비롯하여 지리산·계룡산 등을 찾은 동학 등 신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천신 관련 의례를 행하였다.³⁾

태백산에서 모신 천신 관련 전통을 중심으로 본고를 구성하려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천제(天祭) 또는 제천(祭天)이라 불리는 하늘(天)에 대한 제의 사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이나 특정 산의 권역을 중심으로 행해진 천제, 둘째, 강원도 삼척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간헐적으로 보이는 마을 단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이 함께 지낸 천제, 셋째, 개인이나 특정 종교집단 차원에서 행한 천제로 구분할 수 있다.⁴⁾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내는 전통 또한 필자가 설정한 위의 3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유형과 관련하여, 태백산을 천제 지내는 성소로 여겨서 제단을 쌓아 천제를 지내거나, 천신이 강림하는 장소로 여기는 사례들이 있다. 소개하면, 태백산이 지닌 민족의 영산이라는 관념 속에서 구국의 성지로 인식된 것과 관련하여 1937년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의 활동이 주목된다.⁵⁾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고, 1938년 6월 15일(음력 5월 7일) 윤상명·최익한·유형호·유형남·이창순·이금손·주인섭·고병월 외 18명의 교도들이 제수를 준비하여 6월 16일(음력 5월 8일) 오전 0~3시 사이에 독립 기원제를 지냈다. 이 때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28수기·팔만기·오행기·일월

3) 김도현, 『史料로 읽는 太白山과 天祭』, 강원도민일보사·강원도·태백시, 2009.

4) 김도현, 「한계산성 천제단의 형태와 성격」, 『한국성곽학보』 23집, 한국성곽학회, 2013. 김도현, 「삼척시 내미로리 天祭」, 『종교학연구』 제32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14.

5) 昭和十六年 刑公 第 310號/事件番號 昭和16年刑第936號 재판 기록

성신기·구령기 등을 세웠다. 이러한 의례는 현재 태백산 천제의 모습을 갖추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둘째 유형은 마을 단위로 하위 마을을 대표하는 곳에 천제단을 만들어 천제를 지내는 형태이다. 마을 단위로 하위 마을을 대표하는 곳에 천제단을 만들어 천제를 지내는 사례는 구한말 이전부터 행해진 전통으로 태백산을 중심으로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과 백산동 백산마을에는 각각 천제당이 있다. 이들 마을에서는 격년에 한 번씩 소를 제물로 준비하여 천제를 지낸다. 솔안마을에서 천제를 지내면 백산마을 대표와 하위 마을에서 동참하며, 백산마을에서 천제를 지내면 솔안마을 대표와 하위 마을 사람들이 동참하는 형태로 천제를 지낸다. 언제인지는 모르나 예전에는 솔안마을 또는 백산마을에 속한 하위 마을 단위로 마을 서낭당이 있어 백산 또는 솔안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천제와는 별개로 서낭제를 각 하위 마을별로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는 7개의 하위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마을에서는 매년 서낭제를 지냈으며, 3년에 한 번씩 마을 천제당에서 7개 마을 주민들 대표와 제관 등이 모여 점리 마을 전체의 안녕과 소통·화합을 위해 돼지를 제물로 준비하여 천제를 지낸다.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에서는 매년 음력 4월 8일 대현리를 구성하는 하위 마을 대표들과 제관들이 대현리 천제당에서 대현리 전체 주민들의 안녕과 풍요·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천제를 지낸다. 물론 하위 마을 단위의 서낭당에서는 하위 마을 자체적으로 서낭제를 정초에 지낸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위 마을 단위로 매년 서낭제를 지내면



서 하위 마을들을 아우르는 마을 천제단에서 매년 또는 수년에 한 번씩 천제를 지내는 사례가 태백산 자락과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견된다.⁶⁾ 이들 마을에서는 마을 단위에서 모시는 신령보다 상위 신령으로 여겨지는 천신을 모셔서 마을 주민들의 종교적 염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전체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천제를 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연행되는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천제단은 여러 하위 마을을 관장하는 중심 제당으로 기능하여 매년 또는 수년에 한 번씩 천제단에 모여 천제를 지내는 사례가 있다. 또한 천제단에서 모시는 신령은 일반적으로 천신과 다른 신령을 함께 모셔 천제를 지내는 예를 여러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이를 구분하여 천신만 모시는 예, 천신과 산신을 함께 모시는 예, 천신과 기타 여러 신을 함께 모시는 예, 비일상적으로 기우를 위해 천제를 지내는 사례, 거리고사에서 상당신으로 모셔진 사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셋째 유형은 태백산에 소재한 각종 산당이나 기도터에서 태백산신과 함께 천신을 모신 사례, 신종교에서 천신을 모시는 사례들이 있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태백산은 하늘을 중시하는 신종교인들이 모여드는 성지, 구국의 성지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동학을 만든 최제우 사후 동학교도들이 태백산 권역에 모여들었으며, 다양한 신종교의 신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태백산으로 모여들어 천신에게 제사지냈다.⁷⁾

동학과 관련한 내용은 『최선생문집도원기서』를 비롯하여 동학 관련 자료집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자료들을 통해 동학은 하늘[天]을 중시하면서 발

6)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년 2월.

7) 김도현, 「〈東學亂中記〉(劉澤夏 著) 解題 및 내용」, 『정선문화』제 12호, 정선문화원, 2009. 김도현, 「1870년대 태백산 권역에서의 동학교도 활동과 그 의미」, 『박물관지』 제19호,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흥했기에 설단제천(設壇祭天)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동학을 이끌던 지도자인 이필제는 1871년에 영해신원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설단제천했다. 관에 쫓겨 다니면서도 설단제천 후에 인근 관아를 습격했다. 이 외에 정선에 머물던 최시형이 갈래산 적조암에 들어가 49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때 “태백산중에 들어 49일 기도드리니, 한울님께서 여덟 마리 봉황을 주어, 각기 주인을 정해주셨네.”라는 시를 썼다. 갈래산은 태백산 권역에 속하였기에 태백산으로 간주하며, 이곳에서 한울님을 만났다. 이처럼 태백산은 천신을 만나는 곳으로 강하게 인지되고 있었다.⁸⁾

그리고 태백산 자락에는 건물 형태의 산당인 윤씨산당·유복산당·팔보암·미륵암 등 개인 산당들이 많다. 이들 산당에서는 태백산신을 비롯하여 단군·천신·서낭·용신 등 다양한 신령을 모신 제의 공간을 각각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움막이나 기타 형태로 태백산에서 산기도나 산치성을 드릴 때 태백산신과 함께 천신을 모신 사례 관련 제보는 많다.⁹⁾ 이와 같은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태백산 내 대부분의 산당에서 천신을 별도로 모시고 있다.

그러므로 태백산 자락에서 천신을 모신 제의는 태백산 정상에서 천제를 지내는 전통으로 확립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천신을 모시는 전통은 각종 산당이나 신종교에서 천신을 모신 제단을 설치하여 모시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이전부터 큰 마을 단위로 천신을 모셔 천제를 지낸 전통 또한 구한말~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까지 전승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8) 김도현, 「1870년대 태백산 권역에서의 동학교도 활동과 그 의미」, 『박물관지』 제19호,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9) 문수봉 정상 아래, 제당골 서낭당 부근, 백단사 계곡, 천평 당골 계곡 등에 움막 형태의 가건물을 지어 산기도·산치성을 드렸다고 전한다. 현재 문수봉 정상 인근에도 수십 채의 움막이 있으나, 산불 위험 해소와 경관 보호를 위해 철거하였다.



II. 태백산의 영역과 의미

1. 태백산의 영역

우리 역사에는 태백산[太伯山, 太白山]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첫째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 고구려조(奇異 高句麗條)’에 나오는 태백산(太伯山)이 있다.¹⁰⁾ 물론 이 산은 지금의 백두산(白頭山)을 의미한다.¹¹⁾ 이와 함께 『삼국유사』에서 일연(一然)은 “태백산(太伯山)은 지금의 묘향산(妙香山)인데, 지금의 영변부(寧邊府)에 있다.”¹²⁾라고 하였는데,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誌)’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 많은 자료들에서 태백산(太伯山)이 묘향산(妙香山)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국유사』 ‘제사지 중사(祭祀志 中祀)’에 등장하는 태백산은 현재 삼척과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걸쳐 있는 태백산(太白山)이다. 이와 같이 태백산(太白山)이란 산명(山名)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¹³⁾ 이 중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걸쳐 있는 태백산을 중심으로 언급한 자료를 지리지(地理誌)·고지도(古地圖)·유산기(遊山記)로 구분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리지(地理誌)와 문집을 통해 본 태백산(太白山)

이 지역을 소개한 지리지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찬(官撰) 사서(史書)인 『삼국사기』(1145)·『고려사』(1451)에 수록된 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世

10) 一然, 『三國遺事』 奇異 第一 高句麗條. <… 시조 東明聖帝의 姓은 高氏요, 이름은 朱蒙이다. 이보다 앞서 북부여의 왕 解夫婁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 가고, 夫婁가 죽자 金蛙가 왕위를 이었다. 이 때 金蛙는 太伯山 남쪽 優渤水에서 여자 하나를 만나서 물으니 그 여자는 말했다. …>

11) 一然(著), 李民樹(譯), 『三國遺事』, 을유문화사, 1985, 61쪽.

12) 一然, 『三國遺事』 奇異 第一 古朝鮮條.

13) 안정복은 고구려의 유민들이 태백산 아래에 의거하여 발해를 세웠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태백산은 백두산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安鼎福, 『東史綱目』 附錄 下卷 太白山考. <… 『삼국사기』 崔致遠傳에 있는 太師에게 올린 狀에, “고구려의 殘民이 북쪽 태백산 아래에 의거하고 국호를 발해(渤海)라 했다.” 하였다. 여기서 말한 태백산은 지금의 白頭山을 가리킨 것이요, 위에 말한 장백산이 바로 그것인데 단군이 하강하였던 지역이다. …>

宗實錄地理志』(1454)·『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관동지(關東誌)』(1830년 전후)·『관동읍지(關東邑誌)』(1871)·『강원도지(江原道誌)』(1941)와 같은 전국 또는 강원도를 대상으로 한 지리지와, 사찬(私撰) 지리지(地理誌)에는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1662), 김종언(金宗彦)의 『척주지(陟州誌)』(1848년 이후), 심의승(沈宜昇)의 『삼척군지』(1916), 최만희(崔晚熙)의 『척주지(陟州誌)』(1946), 최만희 등이 편찬한 『진주지(眞珠誌)』(1963) 등이 있다. 이들 지리지의 형승(形勝)·산천조(山川條)와 일부 이조(里條)에 태백산(太白山)의 영역과 형승, 이곳에서의 치제(致祭)와 함께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개인이 편찬한 문집인 성현(成俔)의 『허백당집(虛白堂集)』, 허목(許穆)의 『기언(記言)』, 유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 등에 5월 단오를 전후하여 행해진 각종 풍속(風俗)과 오금잠제(烏金簪祭)와 함께 태백산신(太白山神)·백두옹(白頭翁)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태백산 관련 내용은 각종 지리지의 강원도, 경상도, 강원도 삼척, 경상도 봉화, 경상도 안동을 소개한 항목에 실려 있다. 이 글은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관동지』·『관동읍지』·『척주지』(許穆)·『삼척군지』(沈宜昇)에 실려 있는 내용 중 태백산이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언급되는지와 함께 태백산이라 불린 이유, 태백산을 형성한 백두대간 능선에 대한 언급 현황, 경상도에서의 태백산 의미, 태백산의 구체적인 영역, 태백산의 한국 내 위상을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백산은 강원도, 강원도 삼척부, 경상도, 경상도 안동부, 경상도 봉화현 관련 내용이 실려 있는 각종 지리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자료들을 보면 태백산이 행정구역으로 보았을 때 강원도 삼척부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2-1]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강원도(江原道)

명산(名山)은 치악(雉岳)이 원주 동쪽에 있고, 거슬갑산(琺瑟岬山)[속칭 백덕산(白德山)]이 원주 임내 주천현(酒泉縣) 북쪽에 있으며, 의관령(義館嶺)이 회양부(淮陽府) 북쪽에 있고, 금강산(金剛山)[일명 개골(皆骨), 또는 풍악(楓岳)이라 한다]이 회양 임내 장양현(長楊縣) 동쪽에 있으며, 오대산(五臺山)이 강릉부(江陵府) 서쪽에 있고, 팔봉산(八峯山)이 홍천현(洪川縣) 서쪽에 있으며, 태백산(太伯山)이 삼척부(三陟府) 서쪽에 있다.

[자료 2-2]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강원도(江原道) 삼척도호부(三陟都護府)

태백산(太伯山)[부(府)의 서남쪽에 있다. 신라에서 오악(五嶽)을 정할 때, 북악(北岳)으로 하였다. 사당이 있는데, 이름을 태백 천왕당(太伯天王堂)이라 하였다. 여러 고을 사람들이 봄·가을에 제사를 지낸다.]… 황지(黃池)[부(府)의 서쪽에 있는데, 제전(祭田)을 두고, 소재관(所在官)이 제사를 지낸다. 하류(下流)로 30여 리쯤 되는 부(府)의 서쪽에 이르러 작은 산을 뚫고 북쪽에서 산 남쪽으로 흘러 나가므로, 천천(穿川)이라 하니, 곧 경상도 낙동강(洛東江)의 근원이다.]

[자료 2-3]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44권 강원도(江原道) 삼척도호부(三陟都護府) 산천조(山川條)

태백산(太白山) 부 서쪽 120리에 있다. 신라 때는 북악(北岳)이라 하여 중사(中祀)에 기재되어 있다. 또 경상도 안동부 및 봉화현에서도 보인다.

[자료 2-4]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상도(慶尙道)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 산천조(山川條)

태백산(太白山) 소천부곡(小川部曲)에 있다. 자세한 것은 강원도(江原道)의 삼

척부(三陟府)에 있다.

[자료 2-5] 『삼척군지』(沈宜昇, 1916) 산악하천조(山岳河川條)

함백산[옛 이름은 태백 또는 대박이다]은 금대산 동쪽 줄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해발 5,171척인데, 상장면 서쪽에 우뚝 솟아 있고, 그 남쪽은 태백산인데 해발 5,158척이며, 경상도의 진산[주산]이 된다.

[자료 2-6] 『삼척군지』(沈宜昇, 1916) 상장면(上長面) 소도리(所道里) 이세조(里勢條)

… 서남쪽에 있는 태백산은 경상북도의 주봉이고, 북쪽에 있는 함백산은 태백산의 주산이다. 혈리에서 흘러 내려오는 작은 하천은 동류하여 황지천으로 들어가고, 당곡동에 있는 못¹⁴⁾은 둘레가 15간¹⁵⁾인데 그 깊이는 헤아리기가 어렵다.

위의 자료들을 보면 태백산은 삼척부 서쪽 또는 서남쪽 120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료-3]과 [자료-4]를 보면 태백산이 경상도에서 잘 보이고 경상도에 걸쳐 있지만 경상도지역에서도 강원도 삼척부에 속한다고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태백산’이란 이름으로 불린 이유에 대하여 허목의 『척주지』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태백산 중에서 가장 높고 큰 봉우리는 문수산(文殊山)이다. 이 산에는 사력(沙礫)이 널려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흰 눈이 쌓여 있는 것 같아 그것을 문수사력(文殊沙礫)이라고 부르는데 부처의 유적(遺跡)이라고 생각한다. 이 산을 태백산

14) 이 연못은 현재 태백산 당골 입구에 있는 청원사 경내의 용담이다.

15) 척관법(尺貫法)에 의해 1간(間)은 6자(尺)로서 1.8181m이다. 이에 이 못은 둘레가 15간(間)이므로 미터법에 의해 약 27m이다.



이라고 이름한 것도 실은 이 때문이라고 한다.¹⁶⁾

즉 태백산은 현재 천제단이 있는 봉우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포함하여 주변의 문수봉·함백산·창옥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권역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수봉에 쌓여 있는 사력(沙礫)으로 인해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흰 눈이 쌓여 있는 것 같아 태백산으로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국지도(東國地圖)』류의 회화식으로 그린 고지도(古地圖)에서 백두산에서 시작된 백두대간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태백산을 형성하였음을 잘 알 수 있는데, 『여지도서』와 『삼척군지』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언급하였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2-7] 『여지도서(輿地圖書)』 삼척부(三陟府) 산천조(山川條)

태백산 강릉 오대산으로부터 대관령, 본부의 백복령·두타산·건의령·함박산을 거쳐 이 산에 이른다. 관문으로부터 서남쪽으로 110리에 이른다.

[자료 2-8] 『여지도서(輿地圖書)』 안동진관(安東鎭管) 봉화현(奉化縣)

… 태백산은 봉화현 북쪽 70리에 있는데, 강원도 금강산으로부터 그 줄기가 내려와서 경상도의 조종산[祖宗山: 경상도의 지맥을 형성하는 근간]이다. 고려 최선이 쓴 예안 용수사기에 따르면 천하에 명산이 삼한에 많은데, 이중 동남쪽에 있는 태백산이 최고의 명승이다라고 칭송하였다…

[자료 2-9] 『여지도서(輿地圖書)』 안동진(安東鎭)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

… 태백산은 소천부곡에 있는데, 강원도 삼척으로부터 남쪽으로 산줄기가 내려와 봉화현에까지 이른다.

16) 『陟州誌』 下卷 長省里條.

태백산 권역에는 많은 봉우리들이 있는데, 이중 문수봉은 1,162m인데 비해 가장 높은 봉우리인 함백산은 1,573m이다. 당시 산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현재와 같이 많아 생긴 오류로 볼 수 있다.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백두대간이 남쪽으로 이어지면서 강원도 금강산, 강릉 오대산으로부터 대관령, 삼척부의 백복령두타산건의령 함박산을 거쳐 태백산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여지도서』 안동진(安東鎭)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와 안동진관(安東鎭管) 봉화현(奉化縣) 태백산(太白山) 기술 내용에 따르면 태백산을 경상도의 조종산(祖宗山)이라 하여 남쪽으로 이어진 산줄기가 경상도의 지맥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1916년에 쓰여진 심의승의 『삼척군지』에서 태백산을 경상북도의 주봉(主峰)이라 서술한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이미 신라대에 태백산을 북악으로 하여 중사를 설치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상도를 관통하여 남해에 이르는 낙동강이 태백산 황지에서 발원하였음을 표현한 조선시대의 각종 고지도를 통하여 조선시대에도 경상도를 형성한 주봉으로 늘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경상도에서 태백산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2-10]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경상도(慶尙道)

… 명산(名山)이 5이니, 주흘산(主屹山) 문경(聞慶)에 있다. 태백산(太伯山) 봉화(奉化)에 있다. 지리산(智異山) 진주(晉州)에 있다. 사불산(四佛山) 상주(尙州)에 있다. 가야산(伽倻山) 성주(星州)에 있다. … 대천(大川)이 3이니, 첫째가 낙동강(洛東江)이다. 그 근원(根源)이 셋인데, 하나는 봉화현(奉化縣) 북쪽 태백산(太伯山) 황지(黃池)에서 나오고, 하나는 문경현(聞慶縣) 북쪽 초점(草帖)에서 나오고, 하나는 순흥(順興) 소백산(小白山)에서 나와서, 물이 합하여 상주(尙州)에 이르러 낙동강이 된다.

[자료 2-11]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경상도(慶尙道) 안동대도호부



(安東大都護府) 봉화현(奉化縣)

진산(鎭山)은 문수산(文殊山)이요, 명산(名山)은 태백산(太白山)이다. [현(縣) 동쪽에 있다. 신라 때에 올려서 북악(北岳)으로 삼고 중사(中祀)에 실었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안동(安東) 임내(任內)인 재산(才山)에 이르기 23리, 서쪽으로 순흥(順興)에 이르기 27리, 남쪽으로 예안(禮安)에 이르기 26리, 북쪽으로 강원도 삼척 경계에 이르기 34리이다.

[자료 2-1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상도(慶尙道) 봉화현(奉化縣) 산천조(山川條)

… 태백산(太白山) 현 북쪽 73리에 있다. 고려 최선(崔詵)의 예안(禮安) 용수사(龍壽寺) 기(記)에, “천하의 명산(名山)은 삼한(三韓)에 많고, 삼한(三韓)의 명승(名勝)은 동남(東南)이 가장 뛰어나다. 동남의 거산(巨山)은 태백(太白)이 우두머리가 된다.” 하였다. … 용연(龍淵) 태백산 아래 있다. 가물 때 기우(祈雨)하면 응험이 있다.

위의 자료와 함께 앞의 [자료 2-5, 6,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조(慶尙道條)를 비롯하여 각종 지리지에서 태백산을 경상도의 명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경상도의 지맥을 형성하는 근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慶尙道) 봉화현(奉化縣) 산천조(山川條)에 실려 있는 고려 최선(崔詵)의 예안(禮安) 용수사(龍壽寺) 기(記)에, “천하의 명산(名山)은 삼한(三韓)에 많고, 삼한(三韓)의 명승(名勝)은 동남(東南)이 가장 뛰어나다. 동남의 거산(巨山)은 태백(太白)이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언급한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심의승의 『삼척군지』에도 태백산이 경상도의 진산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인식은 경상도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폭넓게 인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태백산이 한국을 대표하는 명산

이라는 인식은 『고종실록(高宗實錄)』에 실려 있는 다음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또 삼가 생각하건대, 명산·대천(名山大川)에 제사를 지내 축원하는 것은 옛날의 명철한 임금들도 다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白頭山)·금강산(金剛山)·지리산(智異山)·태백산(太白山)·계룡산(鷄龍山) 다섯 산은 다 나라를 수호하는 명산이니…¹⁷⁾

이와 같이 태백산을 명산으로 인식한 것은 신라대에 중사(中祀)를 설치하였고, 고려 때 외산제고사(外山祭告使)를 파견하여 태백산제(太白山祭)를 지냈다는 기록을 통해서 그 전통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이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지리지에서 태백산의 권역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태백산 문화권을 설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태백산의 동쪽 경계 지점은 다음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료 2-13] 『척주지(陟州誌)』 하권 소달리조(所達里條)

우보산(牛甫山)은 흑 유현(楡峴)이라고도 하며 부에서 90리이고, 태백산 동쪽 기슭에서 갈라진 별도의 산이다. 오십천(五十川)이 이 산에서 발원(發源)하는데 그 발원지를 구사흘(九沙屹)이라 하며 그 밑은 수십 장(丈)의 폭포이다. 이 물이 동쪽으로 백여 리를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하천이 오십 번을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이름을 오십천이라 한다.

위의 자료로 보아 태백산의 동쪽은 우보산(牛甫山), 즉 유현(楡峴)과 닿아 있고, 여기서 동해로 흘러가는 오십천이 발원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황지와 황지산·연

17) 『高宗實錄』21券 高宗 21年 6月 17日(己丑), 〈… 且伏念名山大川之禱祀祈祝, 古之哲王明辟, 亦皆行之。我東之白頭、金剛、智異、太白、鷄龍五岳, 皆鎮國名山, 至誠禱祈 …〉.



화봉을 아울러서 태백산 동쪽 권역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백산 서쪽 자락은 성현(成愷)의 『허백당집(虛白堂集)』 신당퇴우설(神堂退牛說)에 다음과 같이 기술한 것으로 보아 충청도 영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2-14] 성현(成愷)¹⁸⁾의 『허백당집(虛白堂集)』

… 태백산신이라는 것은 무슨 신인가? 그 산의 동쪽으로 대해로 들어가면 삼척(三陟)이 되고, 서쪽으로 꺾으면 영춘(永春)¹⁹⁾이 되고, …²⁰⁾

태백산 북쪽 경계는 다음 자료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자료 2-15] 『척주지(陟州誌)』 하권 장생리조(長生里條)

안동과의 경계인 천평(川坪)은 부에서 3일 거리이다. 대체로 태백산 이북지역을 모두 하장생(下長生)이라 한다.

[자료 2-16] 『삼척군지(三陟郡誌)』 상장면조(上長面條)

동쪽으로 이어진 금대산 줄기를 기준으로 그 북쪽을 하장면, 그 남쪽을 상장면이라 한다.

위의 자료로 보아 상장성과 하장성의 경계지점, 즉 동서로 이어진 금대봉 줄기가 태백산 북쪽 경계임을 알 수 있다. 『삼척군지』에서 금대봉을 경계로 상장면

18) 1439년(인조 9) ~ 1504년(연산군 10). 자는 경숙, 호는 용재·부휴자·허백당, 시호는 문재, 본관은 창녕. 1462년(세조 8) 문과에 급제한 이후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외교 사절의 일원으로 중국을 다녀왔다. 저서로는 『허백당시문지』, 『용재총화』 등이 있다.

19) 충청북도 단양군에 있는 지명이다. 본래 고구려의 을아단현(乙阿旦縣)인데, 신라 경덕왕 때 내성(奈城)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때 영춘(永春)으로 고쳐 원주에 속하였고, 1413년(태종 13)에 현감을 두었다. 1895년에 군이 되었다가, 1914년 단양으로 통합되었다.

20) 成愷 著. 詩集 14권 · 補集 5卷 · 風雅錄 2卷 · 拾遺 1卷 · 文集 14卷 合 8冊(608板). 活字本. 현재 전하는 것은 저자의 아들 世昌이 편집, 중종 · 선조년간에 간행된 初刊本의 傳寫本을 후손 載崇이 교정하고 載恒 등이 1841년 나주에서 간행한 重刊本임.

과 하장면으로 구분하여 상장면 지역을 태백산 권역으로 설정하였음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태백산의 남쪽권역은 매우 폭넓게 펼쳐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통하여 그 영역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자료 2-17] 성현(成俔)의 『허백당집(虛白堂集)』 신당퇴우설(神堂退牛說)

… 태백산신이라는 것은 무슨 신인가? … 남쪽으로 돌아 옆드리면 죽계(竹溪)²¹⁾ 및 여러 주와 경계를 이룬다. 산은 비록 높으나사전(祀典)에 실리지 않은 것은 백성과 국가에 공과 베풀어 없기 때문이다.

위의 기록과 [자료 2-4]로 보아 경상도 안동도호부 소천부곡(小川部曲)에 태백산 남쪽으로 향한 산줄기가 직접 뻗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죽계(竹溪)와 경계를 이룬 것으로 보아 경상북도 순흥까지 태백산 권역이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태백산 권역은 동쪽으로 우보산과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금대봉을 경계로 하며, 남쪽은 경상도 순흥부에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지리지를 통하여 태백산 권역을 살펴본 방법과는 달리 태백산 주변의 문화 권역을 기준으로 좀 더 폭넓게 태백산 영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태백산 주변지역에 있는 사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쪽으로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에 있는 영은사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신흥사가 태백산 권역임을 나타내는 ‘태백산 영은사’, ‘태백산 신흥사’라고 한 것으로 보아 동쪽은 동해에 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쪽으로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장릉의 능찰인 보덕사를 ‘태백산 보덕사’라고 한다. 이로 보아 서쪽으로는 영월지역이 광범위하게

21) 순흥부에 있다. 풍기군에서 북쪽으로 23리 떨어져 있다.



태백산 권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태백산신이 된 단종대왕 전설의 분포지역과도 관련된다. 북쪽은 함백산 자락에 있는 정암사의 일주문에 ‘태백산 정암사’라 적혀 있으며, 강릉 단오제에 모시는 신령 중에 ‘태백대왕신’이 있다.²²⁾ 남쪽으로는 경상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도 ‘태백산 부석사’라고 한다. 이는 부석사도 태백산 권역 내에 있음을 알려주는 징표이다.

이와 같이 각종 지리지를 통하여서든, 문화권을 중심으로 설정하든 태백산 권역은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과 경상북도 북부지방을 아우르는 매우 넓은 지역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와 경상도의 해당지역 지리지(地理誌)를 통하여 태백산이라 불린 이유, 태백산과 이어지는 백두대간 상의 주요 산과 능선, 경상도에서의 태백산 의미, 태백산의 구체적인 영역, 태백산의 한국 내 위상을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종 지리지를 통하여 태백산이 경상도에서 잘 보이고 경상도에 걸쳐 있지만 경상도지역에서도 강원도 삼척부에 속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 중심 영역은 당시 삼척부 관할이었으며, 부(府)에서 서쪽 또는 서남쪽 120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태백산이란 명산(山名)은 문수봉에 쌓여 있는 사력(沙礫)으로 인해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흰 눈이 쌓여 있는 것 같이 보인데서 유래한다는 기록은 ‘태백산’이란 이름이 생긴 유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태백산은 백두대간이 남쪽으로 이어지면서 강원도 금강산, 강릉 오대산으로부터 대관령, 삼척부의 백복령·두타산·건의령·함박산을 거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상도를 관통하여 남해에 이르는 낙동강이 태백산 황지에서

22) 임동권, 『한국민속학논고』, 집문당, 1971, 221쪽..

발원하였음을 표현한 조선시대의 각종 고지도를 통하여 조선시대에도 경상도를 형성한 주봉(主峰)으로 늘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조(慶尙道條)’를 비롯하여 각종 지리지에서 태백산을 경상도의 명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고종실록』에는 나라를 수호하는 조선의 명산 5곳의 하나로 태백산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태백산을 명산으로 인식한 것은 신라대에 중사(中祀)를 설치하였고, 고려 때 외산제고사(外山祭告使)를 파견하여 태백산제(太白山祭)를 지냈다는 기록을 통해서 그 전통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이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태백산의 영역은 태백산 봉우리를 포함하여 주변의 문수봉·함백산·창옥산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권역으로써 동쪽으로 우보산과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금대봉을 경계로 하며, 남쪽은 경상도 순흥부에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권을 중심으로 설정하여도 태백산 권역은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과 경상북도 북부지방, 충청도를 아우르는 매우 넓은 지역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고지도(古地圖)를 통해 본 태백산(太白山)

1530~16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古4700-45]> 중 강원도 지도에서부터 1872년에 제작된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총 44 종류 85장의 지도에 수록된 태백산과 황지에 대하여 산 표시 유형, 태백산 권역 표기 유형, 황지 표기 유형, 황지 위치, 주요 물줄기 표기 여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²³⁾ 먼저 산 표시 유형은 개별 산의 형태, 산을

23) 고지도(古地圖)는 서울대 규장각에서 홈페이지(<http://e-kyujanggak.snu.ac.kr>)를 통해서 서비스 하는 지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태백산이 강원도와 경상도 북부지방에 걸쳐 있기에 주로 강원도·강원도 삼척부·경상도·경상도 안동도호부·경상도 봉화현 지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산맥으로 이어서 표현한 형태, 독립된 산을 연결하여 표현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 산의 형태는 <동람도(東覽圖)> 유형을 따른 지도로써,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古4700-45]>, <동국지도(東國地圖) [일사, 古912.51-D717]>, <여지도(輿地圖) [古4709-58]>를 비롯하여 도 단위로 편찬한 지도에서 주로 발견된다.

<동국여지승람 [古4700-45]> 중 강원도 지도에는 태백산(太白山) 서쪽에 완택산(莞澤山), 동쪽에 울진의 안일왕산(安逸王山)을 하나의 산봉우리 형태로 표기하였다. 이에 비해 <동국여지승람 (古4700-45)> 경상도 지도에는 태백산 서쪽에 문수산(文殊山)과 영지산(靈芝山)을 독립적인 산봉우리 형태로 표기하였다. 개별 산의 형태로 표기한 다른 지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표현하였는데, 태백산 권역이 지도 제작 당시 어느 산자락에 닿아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함께 같은 태백산인데, 강원도와 경상도 지도에서 그 주변 산은 각각 달리 표기되어 있으나, 모두 태백산을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이들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산을 산맥으로 이어서 표현한 형태는 <팔도지도(八道地圖) [古軸 4709-48]>, <조선지도(朝鮮地圖) [奎, 16030]>를 비롯하여 많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조선지도(朝鮮地圖) [奎, 16030]> 강원도 삼척부 지도에서는 백두대간이 뻗어내려 태백산에 이르러 충청도와 경상도로 흘러내리는 산맥을 형성하고 있음을 표기하였다. 그리고 태백산을 중심으로 회화식으로 주변 산과 이어지는 산맥을 표현하였는데, 태백산을 2점으로 표현한데 비해 주변 산과 산맥은 1점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태백산을 주변 지역의 산과 산줄기를 아우르는 중심 산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선지도 [奎, 16030]> 경상도 안동부 지도에서는 안동부 북쪽에 있는 태백산을 중심으로 회화식으로 주변 산과 이어지는 산맥을 표현하였는데,

안동지역을 구성하는 주요 산과 산맥이 태백산으로부터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백산을 2점으로 표현한데 비해 주변 산과 산맥을 1점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태백산을 주변 지역의 산과 산줄기를 아우르는 중심 산으로 여겼음에서도 알 수 있다.

〈조선지도 [奎, 16030]〉 경상도 봉화현 지도는 봉화현 북쪽에 있는 태백산을 중심으로 회화식으로 주변 산과 이어지는 산맥을 표현하였는데, 봉화지역을 구성하는 주요 산과 산맥이 태백산으로부터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백산을 여러 점으로 표현한데 비해 주변 산과 산맥을 1점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태백산을 주변 지역의 산과 산줄기를 아우르는 중심 산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강원도 지도에서는 백두대간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금강산과 오대산을 지나 태백산 권역에서 나누어져 한 줄기는 낙동정맥을 형성하여 부산까지 이어지고, 한 줄기는 경상도와 충청도를 지나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경상도지역을 표기한 지도에서는 경상도를 구성하는 주요 산과 산맥이 태백산으로부터 이어져 있음을 물줄기와 함께 자세하게 묘사한 예가 대부분이다.

독립된 산을 연결하여 표현한 형태는 〈관동지도(關東地圖) [古4709-35]〉,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奎12154]〉 등을 비롯하여 많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비변사인방안지도 [奎12154]〉 강원도 삼척부 지도에서 태백산을 여러 개의 연속된 산봉우리로 이어서 회화식으로 그렸으며, 각 봉우리를 여러 점으로 크게 표기하여 그 산세가 주변 산보다 웅장함을 표현하였다. 태백산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대박산(大朴山)·금대봉(金臺峰)을 산봉우리 형태로 이어서 표기하였고, 남동 방향으로 문수산(文殊山)을 산봉우리 형태로 표기하였다. 태백산과 금대봉 자락에서 발원한 낙동강 상류의 물줄기



동쪽에 봉산(封山)인 황지산(黃池山)과 연화봉(蓮華峰)을 산봉우리 형태로 이어서 그렸다. <비변사인방안지도 [奎12154]>경상도 안동부 지도에서는 안동부의 북쪽에 위치한 태백산을 여러 겹의 웅장한 산봉우리 형태로 회화식으로 그렸으며, 태백산에서 이어지는 산세 또한 봉우리 형태로 이어서 그렸다. <비변사인방안지도 [奎 12154]> 경상도 봉화현 지도에서는 봉화현 북쪽에 태백산을 여러 겹의 웅장한 산봉우리 형태로 회화식으로 그렸으며, 태백산에서 이어지는 산세 또한 봉우리 형태로 이어서 그렸다.

이와 같은 유형의 강원도 지도는 주요 산을 회화식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한 후 이를 연결하는 형태로 백두대간 상의 주요 능선을 표현하였다. 이에 비해 경상도지역을 표기한 지도에서는 경상도를 구성하는 주요 산과 산맥이 태백산으로부터 이어져 있음을 물줄기와 함께 산봉우리를 각각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한 후 이를 이어서 표현한 예가 대부분이다.

태백산 권역 표기 유형은 태백산을 넓은 권역으로 인식하여 단일 산봉우리 형태로 표기한 유형과 개별 산으로서의 태백산을 표현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팔도지도(八道地圖) [古軸 4709-48]>, <좌해분도(左海分圖) [古 4709-99]>를 비롯한 대부분의 고지도에서 태백산 권역을 폭넓게 단일 산봉우리 형태로 표기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해동지도(海東地圖) [古4709-61]> 강원도 지도에서 백두대간은 북쪽에서 내려온 산줄기가 금강산을 지나 태백산까지 이어진 것이며, 산지를 연속된 산봉우리를 그려 하나의 산맥 형태로 이어 그렸다. 즉 태백산을 비롯한 주요 산들을 연결하는 산맥을 회화식으로 표현하였는데, 지도 제작자는 태백산 중심 봉우리를 크게 그리면서 여러 겹으로 그렸기에 산세 또한 주변 산보다 웅장하게 표현하였다. <해동지도(海東地圖) [古4709-61]> 경상도 지도에서는 북쪽 태백산에서 남하하는 산줄기가 경상도 각 지역으로 면면히 이어지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 태백산을 진산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백산을 여러 개의 연속된 산봉우리로 이어서 회화식으로 그렸으며, 각 봉우리를 여러 겹으로 크게 표기하여 그 산세가 주변 산보다 웅장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태백산을 주요 산과 이어지는 산맥을 연결하여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의 강원도 지도는 태백산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한 후 주변 산을 아우르는 중심 산으로 인식한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에 비해 경상도지역을 표기한 지도에서는 경상도를 구성하는 주요 산과 산맥이 태백산로부터 이어져 있음을 물줄기와 함께 태백산을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한 후 이를 이어서 표현함으로써 경상도의 주산으로서의 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개별 산의 형태로 표기한 유형은 <청구요람>[古 4709-21A], <대동여지도>[奎 10333]를 비롯하여 19세기에 만들어진 지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동동여도>[奎 10340]를 소개하면 백두대간이 뻗어내려 태백산에 이르러 충청도와 경상도 동해안으로 흘러내리는 산맥을 형성하였음을 표기하였다. 이와 함께 태백산은 주변의 다른 산에 비해 그 봉우리를 더 크고 웅장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 주변 지역의 산과 산줄기를 아우르는 중심 산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다른 지도와는 달리 태백산 권역으로 여겨지는 주요 산인 창옥봉(蒼玉峰)·대박산(大朴山)·고석봉(孤石峰)을 별도로 표기하였다.

개별 산의 형태로 태백산을 표현한 지도는 강원도와 경상도를 별도의 지도로 작성하지 않은 지도에서 대부분 확인 할 수 있으며, 1823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청구요람>과 1861년에 제작된 <대동여지도> 이후 만들어진 대부분의 지도에서 태백산과 함께 태백산 권역에 속한 주요 산의 이름을 부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세기에 이르러 나타난 사회·경제상의 변동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지도를 통해 본 태백산은 지역의 정서와 시대 상황 등을 반영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 표시 유형은 개별 산의 형태, 산을 산맥으로 이어서 표현한 형태, 독립된 산을 연결하여 표현한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개별 산의 형태로 표기한 지도를 분석해 본 결과 강원도와 경상도 지도에서 모두 태백산을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이들 지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긴 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을 산맥으로 이어서 표현한 형태이거나 독립된 산을 연결하여 표현한 유형의 강원도 지도에서는 백두대간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태백산 권역에서 나누어져 한 줄기는 낙동정맥을 형성하여 부산까지 이어지고, 한 줄기는 경상도와 충청도를 지나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경상도지역을 표기한 지도에서는 경상도를 구성하는 주요 산과 산맥이 태백산으로부터 이어져 있음을 물줄기와 함께 자세하게 묘사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태백산 권역 표기 유형은 태백산을 넓은 권역으로 인식하여 단일 산봉우리 형태로 표기한 유형과 개별 산으로서의 태백산을 표현한 형태로 구분하였다. 태백산을 넓은 권역으로 인식한 유형의 강원도 지도는 태백산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한 후 주변 산을 아우르는 중심 산으로 인식한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에 비해 경상도지역을 표기한 지도에서는 경상도의 주산으로서의 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개별 산의 형태로 태백산을 표현한 지도는 강원도와 경상도를 별도의 지도로 작성하지 않은 지도에서 대부분 확인 할 수 있는데, 태백산과 함께 태백산 권역에 속한 주요 산의 이름을 부기하였다. 이는 19세기에 이르러 나타난 사회·경제상의 변동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도(地圖) 古4709-92] 강원도 태백산과 황지(黃池).(1767년 이전)

다. 유산기(遊山記)를 통해 본 태백산

태백산과 관련한 유산기(遊山記)가 발굴되어 태백산과 황지에 대한 조선 후기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새롭게 소개된 자료는 이보(李篋)의 「유황지기(遊黃池記)」²⁴⁾, 능호(凌壺) 이인상(李麟祥)의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²⁵⁾, 강재항(姜再恒) 「황지기(黃池記)」²⁶⁾인데, 이들 자료에는 태백산의 근원과 영역, 태백산 천왕당과 제의, 황지 등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24) 朝鮮 肅宗代 李篋(1629 ~ 1710)의 글로서 『景玉集』續集에 실려 있는 글이다.

25) 능호(凌壺) 이인상(李麟祥)의 글인데, 지은이가 진사시에 합격했던 시기 1735년에서 1737년 사이 즉, 저자 나이 26 ~ 28세쯤에 태백산을 유람하고 남긴 태백산기이다.(윤순석, 「遊太白山記」, 『태백문화』 21집, 2008.)

26) 이 글은 저자 강재항이 1719년, 그가 32세 되던 해에 태백산 황지를 유람하고 나서 쓴 글로서 그의 문집 『立齋遺稿』 권 제12권에 「황지기」라는 제명으로 전해온 것이다.(윤순석, 「黃池記」, 『태백문화』 21집, 2008.)



태백산의 근원과 영역에 대하여 이들 자료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 태백산이 어디로부터 이어져 온 것인가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소개한 자료는 이보의 「유황지기」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 이 여행의 시종(始終)기간이 14일이고 그동안에 지은 시가 좀 되는데 유이겸(柳爾謙)이 지은 시는 많았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찬(贊)을 지었다. 즉 태백산의 근원은 백두산인데 백두산에서 금강산, 금강산에서 오대산, 오대산에서 태백산으로 이어왔으니 태백산이 웅장하게 서려 있는 곳까지 수천 리나 된다. 영남의 진산(鎭山)으로 산맥이 이어지면서 흩어져 서북으로는 한강까지 동쪽으로는 창해(滄海)에 맞닿고 남쪽으로 변한지방에서 끝나니 실로 크고도 멀리까지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영남지방은 태백산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태백산의 기운을 바로 받았고 마땅히 사람들 중에 인재가 모이고 훌륭한 재주걸출한 사람으로 성공하니 각지에서 영남으로 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니 다른 곳은 우리 영남지방에 비할 곳이 없더라. ...²⁷⁾

위의 글에서 태백산은 백두대간이 시작된 백두산에서 금강산과 오대산을 거쳐 태백산으로 이어왔음을 서술한 것으로 보아 태백산이 백두대간의 큰 줄기가 이어지는 주된 능선에 위치함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영남 지방의 근간을 형성한 낙동정맥과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줄기로 나누어짐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백두산에서 시작한 백두대간의 기운이 태백산에 이르러 동해·서해·남해에까지 이어져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대간 줄기와 함께 태백산 권역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오십천을 이루어 동해에 닿으며, 한강으로 이어지는 물줄기는 서해

27) 本考에 실려있는 李蠶의 「遊黃池記」, 凌壺 李麟祥의 「遊太白山記」, 姜再恒 「黃池記」의 관련 내용은 「태백문화」21집에 실려있는 윤순석의 번역문과 배재홍 교수가 별도로 번역한 자료(부록에 수록되어 있음)를 주로 인용하였으며, 일부 내용에 대하여 필자가 이를 수정하여 소개하였음을 밝힌다.(윤순석, 「遊黃池記」, 「遊太白山記」, 「黃池記」, 「태백문화」21집, 2008.)

에 닿고, 황지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남해에 이르고 있음을 함께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형성하는 중심축이 태백산임을 표현한 것으로써, 태백산을 영남 지방의 진산으로 여기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태백산의 기운을 바로 받았기에 영남지방으로 인재가 모이고 훌륭한 인재가 배출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다.

위의 자료는 당시 영남지방 사람들의 태백산에 대한 인식과 그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함께 표현한 글이라고 여겨진다.

태백산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로 인식하였는가에 대한 내용도 능호 이인상의 「유태백산기」, 강재항이 쓴 「황지기」에 실려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도리 주막에 도착했다. 밤은 이미 삼경이 되었다.

무릇 20리를 걸었고 주막(店舍)을 운영하는 이 동네사람 남후영이가 방문해서 만나봤다. 외모는 순후하고 말이 진솔했다. 태백산의 형상과 경치 좋은 곳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길 이 산은 세 갈래 길과 12개 고을에 걸쳐있고 동북에서부터 관동에 연속해 있는 고을로는 강릉·삼척·울진·평해·영월·정선이고 삼척의 소나무는 장사지널 때의 관으로 쓰기에 적당하며 산삼은 품질이 우수하다고 한다. 남쪽으로 영남의 각 고을을 이루는 곳으로는 안동·봉화·순흥·영주·풍기이고, 봉화는 사고지(史庫址)가 있어서 중요하며 부석사는 남쪽에서 유명한 곳인데 실제로는 순흥지역에 있다고 한다. 호서의 4개 고을은 영춘을 첫머리로 시작되는데 영춘은 실로 서쪽으로 뻗는 태백산 줄기에 해당된다고 한다. …²⁸⁾

28) 李麟祥, 「遊太白山記」, 〈… 抵素逃里店夜已三更。凡行二十里。店人南後榮來見。貌淳而言眞。具道茲山之形勝曰茲山盤據三路十二州。自東北而隸于關東者曰江陵三陟蔚珍平海寧越旌善。三陟之松可以爲槲。其蔘甚良。踰南而爲嶺南諸州者曰安東奉化順興榮川豐基。奉化以史閣爲重。浮石之寺名于南土。實在



… 태백산은 동쪽으로 동해의 큰 바다에 닿고 강물로는 용추폭포를 만들고 동네로는 정암마을(整庵)이 되고 사찰로는 불영사를 만들고 누각으로는 죽서루를 이루지만 이 또한 말로만 들었지 아직 다 가보지 못했다. 이렇게 태백산이 황량하고 광활하여 다 다녀보지도 못한 내가 어찌 산의 가치를 아는 산과 친구라고 떠별릴 수가 있겠는가마는 산에 갔다 온 일기 정도야 글로 남기지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 …²⁹⁾

위의 2개 자료를 보면 당시 사람들은 태백산의 영역을 북쪽으로는 강릉, 서쪽으로는 영춘, 동쪽으로는 삼척 해안, 남쪽으로는 순흥이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필자들은 이들 영역 내에 있는 태백산사고·부석사·울진 불영사·삼척 죽서루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주요 특산물인 소나무와 산삼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이들 자료를 통해 당시 태백산 권역 내에 살았던 주민들이나 영남지방 사람들이 태백산 권역을 매우 넓게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 배경에는 태백산이 분기(分岐)하여 경상도를 형성하면서 또 한 줄기가 충청도로 이어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며, 강원도지역에서도 태백산 줄기를 경계로 대간 줄기와 함께 동서로 이어지는 수계(水系)와 주요 교통로가 태백산 권역과 늘 함께 하였기에 이와 같은 폭넓은 권역이 태백산의 범주에 속한다고 여겼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태백산 권역을 형성한 주요 봉우리에 대하여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 태백산은 그중 높은 봉우리를 이르러 천의봉·상대봉·장산·함박봉이라 하고 그 물을 이르러 황지(黃池)·공연(孔淵)[穿川: 구문소를 말함]·오십천(五十川)이라 하며 그 신(神)을 이르러 천왕신(天王神)·황지신(黃池神)이라 한다고 말한다. 비

順興。湖西之四郡。始奇於永春。永春實爲西支。…)

29) 姜再恒, 「黃池記」, 〈… 東臨大海。且水之爲龍湫。洞之爲整庵。寺之爲佛影。樓之爲竹西。又不能遍觀。其鹵莽如是。此何足爲山之輕重而稱知己也哉。然其所出入月日。不可無記。…〉

속한 말로 ‘목단’을 ‘함박꽃’이라고 하는데 이 산이 매우 아름다우니 마땅히 소뢰 고개에서 바라봐야 진면목을 볼 수 있다 한다. 장산을 보면 북쪽은 순전히 흙이고 남쪽은 돌 뿐이며 귀한 광물이 난다. ...³⁰⁾

... 작약봉(芍藥峰)은 서북쪽에 웅장하게 솟아 진산(鎭山)을 이루니 이것이 태백산 제일봉이다. 좌우날개로 나뉘어 동서를 고리처럼 둘러싸서 하나의 큰 구획을 이루더니 남쪽으로 구문소에 이르러 두 날개가 합하지만 어디하나 터지거나 찌그러진 곳이 없다. 연못의 물은 여기까지 이르러 산을 뚫고 지나가니 이것이 낙동강의 상류가 된다. 진산에서 구문소까지 이수(里數)로는 50~60리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수(里數)를 계산해보면 또한 30리 이하는 아니다. ...³¹⁾

... 서북으로 큰 언덕이 있는데 이 역시 평평하고 탁 트여 있다. 또한 습지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났다. 언덕에서 서쪽으로는 금대봉, 천의봉, 크고 작은 작약봉이 있고 동쪽으로는 바로 연화봉의 솟고개가 있어 이들을 연결해서 주변을 둘러보면 마치 성곽 위에 있는 들쭉날쭉한 성가퀴 같다. ...³²⁾

위의 유산기들을 보면 당시 태백산을 구성하는 주요 봉우리가 천의봉·상대봉·장산·금대봉, 크고 작은 작약봉·연화봉임을 알 수 있고, 태백산 권역 내에 있는 주요 연못은 황지(黃池)·공연(孔淵)[穿川: 구문소를 말함]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신을 이르러 천왕신·황지신이라 한다고 말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태백산에 천왕신을 모신 천왕당이 있었고,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를 매우 중히 여기면서 황지신을 모신 것으로 보아 당시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30) 李麟祥, 「遊太白山記」, 〈... 其峰之高者曰天衣上帶壯山含朴也。其水曰黃池孔淵五十川也。其神曰天王黃池之神也。俚言呼牧丹曰含朴。茲山甚妍 宜望於素耒峴。壯山 純土於北 純石於南 有寶產焉。...〉

31) 李簾, 「遊黃池記」, 〈... 蓋芍藥峯雄峙於西北爲鎭山 乃太白第一峯也。分左右翼東西環抱成一大局。南至穿川兩翼相合 無綻缺處。池水至此 穿山而過 是爲洛江上流。從鎭山至穿川 計里可五六十。自東抵西 計里亦不下一舍。...〉

32) 姜再恒, 「黃池記」, 〈... 西北有大坂亦平曠而沮洳多水出。自坂以西則金臺天倚大小芍藥。而其東則蓮花峯雄峙。而周遭若城郭之堞焉。...〉



이와 함께 서북쪽에 웅장하게 솟아 있는 함백산을 진산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 함백산을 작약봉(芍藥峰)·함박봉(咸朴峰)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태백산에서 민간인들이 드리는 치성과 천왕당에 대하여도 유산기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천왕당을 언급한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천왕당(天王堂)에 도착했다. 통금시간까지 도착하기로 약정했는데 드디어 60리 길을 걸어온 것이다. 천왕당 서쪽당에는 석불(石佛)이 있고 동쪽 당에는 나무상이 있는데 이것을 이른바 천왕(天王)이라고 한다. …³³⁾

위의 자료를 보면 현재 천제단이 있는 봉우리에 ‘천왕당’(天王堂)이라 불린 제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천왕당에 석불과 함께 천왕이라 불렸던 나무상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천왕당에서의 종교 의례가 불교와 민간신앙이 공존하는 형태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태백산과 관련한 유산기인 이보의 「유황지기」, 능호 이인상의 「유태백산기」, 강재항 「황지기」를 통하여 태백산의 근원과 영역, 태백산 천왕당과 제의, 황지 등에 대한 조선 후기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영남지역에서 태백산은 백두대간의 큰 줄기가 이어지는 주된 능선에 위치하였고, 여기서 영남 지방의 근간을 형성한 낙동정맥과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줄기로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이와 함께 백두산에서 시작한 백두대간의 기운이 태백산에 이르러 동해서해 남해에까지 이어졌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 권역과 영향력을 매우 크게 보았다.

그리고 태백산의 영역을 북쪽으로는 금대봉, 서쪽으로는 영춘, 동쪽으로는 삼

33) 李麟祥, 「遊太白山記」,〈… 至天王堂。約人定時而纔行六十里。西堂有石佛。東堂有木偶。所謂天王也。…〉

척 해안, 남쪽으로는 순흥이라고 여겼다는 것은 당시 태백산 권역 내에 살았던 주민들이나 영남지방 사람들이 태백산 권역을 매우 넓게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천의봉·상대봉·장산·금대봉, 크고 작은 작약봉·연화봉을 태백산을 구성하는 주요 봉우리로 여겼음을 알 수 있고, 태백산 권역 내에 있는 주요 연못은 황지·구명연못[孔淵 = 穿川, 구문소를 말함]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신을 이르러 천왕신·황지신이라 한다고 말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태백산에 천왕신을 모신 천왕당이 있었고,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를 매우 중히 여기면서 황지신을 모신 것으로 보아 당시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태백산 주봉에 ‘천왕당’이라 불린 제당이 있었으며, 여기에 석불과 함께 ‘천왕’으로 불리는 나무상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천왕당에서의 종교 의례가 불교와 민간신앙이 공존하는 형태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태백신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북과 장구를 두드리며 치성을 드렸다는 기록으로 보아 태백산이 주변 지역 사람들의 개인 기도처로서 매우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태백산을 노래한 안축과 김시습의 시(詩)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태백산에 올라(登太白山)

안축(安軸)³⁴⁾

34) 안축(1282~1348)은 고려 후기 문신·문인으로,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당지(當之), 호는 근재(謹齋)이다. 그의 가문은 아버지 대까지 대대로 순흥의 향리(鄉吏)를 지내다가, 그에 이르러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로 진출한 전형적인 신흥사대부(新興士大夫)이다. 할아버지는 희서(希諤), 아버지는 석(碩)이며 어머니는 안성기(安成器)의 딸이다. 주요 작품은 경기체가 「관동별곡(關東別曲)」과 「죽계별곡(竹溪別曲)」을 지어 명성이 높았다. 강원도존무사로 있을 때에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내용을 담아 『관동와주(關東瓦注)』라는 문집을 남겼다. 또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로 있을 때에는 민지(閔漬)가 지은 『편년강목(編年綱目)』을 이제현(李齊賢) 등과 수정·보완했다. 충렬(忠烈)·충선(忠善)·충숙(忠肅) 세 왕의 실록을 편찬하는 데에도 참여했다. 저서로는 『근재집(謹齋集)』이 전한다.



기다란 하늘 지나 자색 안개 속으로 들어가니,(直過長空入紫煙)

비로소 높은 꼭대기에 오른 줄 알았노라.(始知登了最高巔)

등근 해는 머리 위에 낮아진 듯,(一丸白日低頭上)

사방 여러 산은 눈앞에 떨어졌네.(四面群山落眼前)

몸이 나는 구름을 따르니 학을 탔는가 의심되고,(身遂飛雲疑駕鶴)

길은 높은 비탈에 달려 하늘에 오르는 듯하구나.(路懸危磴似梯天)

비온 뒤 일만 구렁에 물이 넘쳐흐르는데,(雨餘萬壑奔流漲)

구불구불한 오십천(五十川) 건널 일이 근심된다.(愁度縈回五十川)

태백산을 바라보며(望太白山)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³⁵⁾

서쪽에서 아득하게 태백산을 바라보니(西望遙遙太白山)

푸르게 높은 뿔이 구름 사이로 솟았더라(碧尖高插聳雲間)

사람들은 산마루에 다른 신령이 있다 하더니(人言嶽頂神靈異)

35) 김시습(1435~1493)은 조선 초기의 학자·문인이며,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열경(悅卿), 호는 매월당(梅月堂)·청한자(淸寒子)·동봉(東峰)·벽산청은(碧山淸隱)·취세옹(贅世翁)이고, 법호는 설잠(雪岑)이며, 서울 출생이다.

작은 키에 뚱뚱한 편이었고 성격이 괴팍하고 날카로워 세상 사람들로 부터 광인처럼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배운 바를 실천으로 옮긴 지성인이었다. 이이(李珣)는 백세의 스승이라고 칭찬하기도 하였다.

그의 생애를 알려주는 자료로는 『매월당집』에 전하는 「상류양양진정서(上柳襄陽陳情書)」, 윤춘년(尹春年)의 전기(傳記), 이이의 전기, 이자(李耜)의 서문(序文), 『장릉지(莊陵誌)』·『해동명신록』·『연려실기술』 등이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조화로 열린 것을 가히 알만 하더라(辨得乾坤造化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걸쳐 있는 태백산을 중심으로 언급한 자료를 지리지(地理誌)·고지도(古地圖)·유산기(遊山記)로 구분하여 주요 항목별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자료들을 통하여 태백산의 근원과 위상, 구체적인 영역 등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태백산에서 다양한 종교 활동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활동들이 펼쳐진 열린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지리지를 통하여 태백산이 경상도에서 잘 보이고 경상도에 걸쳐 있지만 경상도지역에서도 강원도 삼척부에 속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 중심 영역은 당시 삼척부 관할이었으며, 부에서 서쪽 또는 서남쪽 120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태백산이란 산명(山名)은 문수봉에 쌓여 있는 사력(沙礫)으로 인해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흰 눈이 쌓여 있는 것 같이 보인에서 유래한다는 기록은 ‘태백산’이란 이름이 생긴 유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셋째, 태백산의 형성과 관련하여 백두대간이 남쪽으로 이어지면서 강원도 금강산, 강릉 오대산으로부터 대관령, 삼척부의 백복령·두타산·건의령·함박산을 거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당시 영남지역에서 태백산은 백두대간의 큰 줄기가 이어지는 주된 능선에 위치하였고, 여기서 영남지방의 근간을 형성한 낙동정맥과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줄기로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경상도지역을 표기한 지도에서는 경상도를 구성하는 주요 산과 산맥이 태백산으로부터 이어져 있음을 물줄기와 함께 자세하게 묘사한 예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경상도를 관통하여 남해에 이르는 낙동강이 태백산 황지에서 발원하였음을



표현한 조선시대의 각종 고지도를 통하여 조선시대에도 경상도를 형성한 주봉으로 늘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인상이 「유태백산기」에 영남지역 사람들이 태백산 권역 내에 있는 황지를 제일의 명승지로 여긴다고 표현한 것은 영남지역을 형성한 근간이 태백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영남지역의 젖줄인 낙동강의 발원지가 황지여서 이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19세기에 이르러 고지도에 태백산과 함께 태백산 권역에 속한 주요 산의 이름을 부기한 것은 당시의 사회·경제상의 변동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태백산의 영역은 태백산 봉우리를 포함하여 주변의 문수봉·함백산[크고 작은 작약봉]·창옥산·천의봉·상대봉·장산·금대봉·연화봉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권역으로써 동쪽으로 우보산과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금대봉을 경계로 하며, 남쪽은 경상도 순흥부에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권을 중심으로 설정하여도 태백산 권역은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과 경상북도 북부지방, 충청도 동부지역을 아우르는 매우 넓은 지역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지도에서 산 표시 유형은 개별 산의 형태, 산을 산맥으로 이어서 표현한 형태, 독립된 산을 연결하여 표현한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개별 산의 형태로 표기한 지도를 분석해 본 결과 강원도와 경상도 지도에서 모두 태백산을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이들 지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긴 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능호 이인상의 「유태백산기」에 “그 신(神)을 이르러 천왕신·황지신이라 한다고 말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태백산에 천왕신을 모신 천왕당이 있었고,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를 매우 중히 여기면서 황지신을 모신 것으로 보아 당시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태백산 주봉에 ‘천왕당’이라 불

린 제당이 있었으며, 여기에 석불과 함께 천왕으로 불리는 나무상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천왕당에서의 종교 의례가 불교와 민간신앙이 공존하는 형태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태백신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북과 장구를 두드리며 치성을 드렸다는 기록으로 보아 태백산이 주변 지역 사람들의 개인 기도처로서 매우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위와 같이 태백산과 황지를 인식하였기에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조를 비롯하여 각종 지리지에서 태백산을 경상도의 명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고종실록』에는 나라를 수호하는 조선의 명산 5곳의 하나로 태백산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태백산을 명산으로 인식한 것은 신라시대에 중사를 설치하였고, 고려 때 외산제고사를 파견하여 태백산제를 지냈다는 기록을 통해서 그 전통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이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수봉에서 바라 본 2009년 태백산 전경
(천제단과 만경대 보임)



태백산과 천제단 전경(2010년 겨울)

2. 태백산에서 모신 신령들

태백산은 우리나라 지맥의 중심으로 여겨지는데, 각종 기록에 따르면 태백산 봉우리를 포함하여 주변의 문수봉·함백산[크고 작은 작약봉]·창옥산·천의봉·상대봉·장산·금대봉·연화봉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권역이었다. 동쪽으로는 우보산과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금



대봉을 경계로 하며, 남쪽으로는 경상도 순흥부에 닿아 있었다. 문화권을 중심으로 설정하여도 태백산 권역은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과 경상도 북부지역, 충청도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매우 넓은 권역으로 인식되었다.³⁶⁾

이와 같이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곳으로 인식된 태백산은 경상도의 조종산(祖宗山)으로써 신라 이래 고려시대까지 국가 제사를 지낸 곳이다. 즉 통일신라시대에 국토방위를 위하여 다섯 곳에 중사(中祀)를 설치하였다. 이 가운데 태백산이 중사에 속하였음은 『삼국사기』를 비롯한 각종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³⁷⁾

고려시대에는 김방경의 아들 김순(金恂)을 태백산제를 지내기 위한 외산제고사(外山祭告使)로 파견하였다는 『고려사』 열전의 자료³⁸⁾는 고려시대에도 국가에서 태백산에 관리를 파견하여 태백산제를 거행하였음을 보여준다.³⁹⁾ 이를 통해 신라에 이어 고려시대에도 태백산에서의 제의가 국가 제사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신라시대의 중사에 이어 태백산신에게 제사를 지낸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⁴⁰⁾

36) 김도현 외, 『문헌으로 본 태백시의 지명』, 강원대 강원전통문화연구소·태백시, 20011, 20-21쪽.

37) 『三國史記』 32 雜誌 第1 祭祀條 (… 中祀 五岳 東吐含山(大城郡) 南地理山(菁州) 西鷄龍山(熊川州) 北太伯山(奈已郡) 中父岳(一云公山押督郡) …)

조선시대의 각종 기록에 태백산은 삼척에 있다라고 소개하였으나, 『三國史記』 祭祀條에 소개된 태백산 中祀 기록은 奈已郡, 즉 오늘날의 경상북도 영주시와 관련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太白山 영역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38) 『高麗史』 列傳 17 諸臣 金方慶條. <… 九年, 又上箋乞退, 以推忠靖難定遠功臣三重大匡僉議中判典理司事世子師, 仍令致仕, 加僉議令, 封上洛郡開國公, 食邑一千戶, 食實封三百戶, 一日, 乞告上, 王遣子恂, 爲太白山祭告使, 隨之, 至鄉, 爲親舊留數日, 謂曰, 秋稼登場, 民力未暇, 豈可久煩汝爲, 遂還 …>

39) 『高麗史』 列傳 17 諸臣 金方慶條의 外山祭告使 파견 기사와 함께 『新增東國輿地勝覽』과 『輿地圖書』 봉화현 역원조에 기재된 도심역 관련 내용을 분석해보면 고려의 사전에 태백산제가 공식적으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김순에 의한 1회성 태백산제가 아니라 태백산제를 위해 파견된 관리들을 위해 상설역인 도심역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고려시대에 태백산제를 지속적으로 설행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봉화현 역원조를 보면 <도심역 : 현 남쪽 5리에 있다. 전에는 현 북쪽 30리에 있었는데, 太白山祭를 폐지한 뒤로 이곳에 옮겼다.>라는 기록이 있다. 즉, 고려시대까지 태백산제를 위해 봉화현 북쪽 30리에 유지하였던 도심역을 조선시대에 태백산제를 폐지한 이후 봉화현 남쪽 5리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려시대까지 태백산제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도현, 「태백산 天祭와 儀禮」, 『역사민속학』30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9.)

40) 김도현, 『史料로 읽는 太白山과 天祭』, 강원도민일보사·강원도·태백시, 2009, 70-72쪽.

그러나 조선 세조 때에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태백산을 동진(東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⁴¹⁾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태백산에서 국가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태백산 산신제를 지낸 전통은 고려시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 삼척도호부 사묘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으로 보아 국가 차원은 아니더라도 삼척도호부 차원에서 관리한 제의 공간이 태백산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료 2-18]

태백산사(太白山祠) : 산꼭대기에 있는데, 세간에서 천왕당(天王堂)이라 한다. 이 산 곁의 본도 및 경상도 고을 사람이 봄·가을에 제사하는데, 신좌(神座) 앞에 소를 매어 두고는 갑자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난다. 만약에 돌아볼 것 같으면 불공한 것을 신이 알고 죄준다 한다. 사흘이 지난 다음 부에서 그 소를 거두어 이용하는데, 퇴우(退牛)라 한다.

이와 관련한 기록을 좀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2-19]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8년 4월 12일

… 강원도와 함길도의 신세포(神稅布)는 처음에 무당들이 백성의 이익을 빼앗기 위하여 함부로 광탄(誑誕)한 설(說)을 가지고 민속(民俗)을 유혹시켜, 태백산의 신에게 제사하고, 혹은 한 자나 되는 베를 사용하여 신의 폐백으로 하여 무당이 취하여 썼는데, 소재(所在)한 수령들은 무당들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을 미워하여, 드디어 그 베를 취하여 관용으로 쓰게 되니, 감사(監司)는 이로 인하여 일정한 공물로 인정하고 수량을 정하여 징수하게 되고, 국가에서도 이에 따라 그 베를 징수하여 세공(歲貢)으로 정하되, 모두 베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

41) 『世祖實錄』世祖 2年 3月 28日 기사.



[자료 2-20]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 24년 5월 21일

…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국가에서 귀후서(歸厚署)를 설치하고 태백산(太白山)·계룡산(鷄龍山) 등지의 신령에게 바쳤다가 물린 물건을 주어 재목을 사는 데에 쓰게 한 것은 위로 대부(大夫)에서 아래로사서인(士庶人)까지 다 관곽(棺槨)을 얻어서 상용(喪用)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제천정을 중수(重修)하는 중들에게 옮겨 주었으니, 귀후에서는 관곽의 재목을 사지 못하므로 인거군(引鉅軍) 30명이 다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료 2-21] 성현(成愼)⁴²⁾의 『허백당집(虛白堂集)』 신당퇴우설(神堂退牛說)

… 태백산신이라는 것은 무슨 신인가? 그 산의 동쪽으로 대해로 들어가면 삼척(三陟)이 되고, 서쪽으로 꺾으면 영춘(永春)⁴³⁾이 되고, 남쪽으로 돌아 앞드리면 죽계(竹溪)⁴⁴⁾ 및 여러 주와 경계를 이룬다. 산은 비록 높으나 사전(祀典)에 실리지 않은 것은 백성과 국가에 공과 베풀어 없기 때문이다. 삼도(三道)의 사람이 산꼭대기에 당(堂)을 짓고, 상(像)을 설치하여 제사지낸다. 해마다 왕래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제사를 마치면 각자 신이 앉은 자리의 앞에 소를 매어 놓고, 허겁지겁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 말하기를 “만약 돌아보면 신이 공손치 않음을 알고 죄준다.”고 한다. 3일이 지난 뒤에 주군(州郡)에서 이를 거두어 쓴다. 이름하여 ‘퇴우(退牛)’라고 한다. 매년 4월 8일에 그 신이 읍의 성황에 내려온다고 하여, “읍의 사람들이 성대히 깃발·북·피리를 갖추고 이를 맞이하여 읍리(邑吏)의 집에

42) 1439년(인조 9)~1504년(연산군 10). 자는 경숙, 호는 용재·부휴자·허백당, 시호는 문재, 본관은 창녕.

43) 충청북도 단양군에 있는 지명이다. 본래 고구려의 을아단현(乙阿旦縣)인데, 신라 경덕왕 때 내성(奈城)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때 영춘으로 고쳐 원주에 속하였고, 1413년(태종 13)에 현감을 두었다. 1895년에 군이 되었다가, 1914년 단양으로 통합되었다.

44) 순흥부에 있다. 풍기군에서 북쪽으로 23리 떨어져 있다.

둔다.”고 하였다.

[자료 2-22]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

태백산과 관련하여 정상부에 천왕사(天王祠)가 있어 봄·가을로 제사 지내고, 소를 바친다.

위의 자료들을 통하여 조선시대에 태백산이 국가 제장에서 탈락하였지만 개인 차원에서 태백산에 모셔진 신령을 위한 제의 전통이 이어졌으며, 태백산에서 제사를 지낸 후 두고 오는 벼·소 등을 지방 관청의 관리와 무녀들이 거두어 사용하였는데, 너무 과하여 민폐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척도호부 관리들이 부분적으로 태백산에서의 제의 관리에 다양한 형태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각종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태백산에서 국가 차원은 아니더라도 산신이나 천왕을 모신 제의가 조선시대에 행해졌으며, 일정 부분을 관리나 향리들이 관여하면서, 태백산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한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관동지도(關東地圖), 古4709-35] 강원도 태백산과 황지.(1712 ~ 1767년 이전)



각종 기록과 현장 조사를 통해 태백산에서 모신 주요 신령은 태백산 산신, 천왕과 함께 천신·용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 신령들을 중심으로 태백산에서 모신 신령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⁵⁾

가. 산신(山神)

신령으로서의 산령(산신)은 산을 관장하는 최고의 신령[상당신], 각종 위협 요소로부터 지켜주며, 수명장수·복 등을 베풀어주는 존재, 산이라는 공간의 주인 [터주] 등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태백산령(신)이 좌정한 태백산은 동해서해남해로 흐르는 오십천·한강·낙동강이 발원하는 곳⁴⁶⁾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베풀을 제공하기에 신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영험함을 바탕으로 태백산신은 태백산 전체를 관장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여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매우 크고 높은 신성성을 지닌 신령으로 여겨진다.

태백산신을 모시는 지리적 범위는 동쪽으로는 우보산,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 북쪽으로는 금대봉, 남쪽으로는 경상도 순흥부, 즉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과 경상도 북부지역, 충청도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매우 넓은 권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에 있는 주산의 산신을 모신 사례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태백산신을 모신다. 심지어 낙동강이 지나가는 경상남북도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교

45) 태백산에서 모신 신령들에 대한 다음 내용은 필자의 다음 글과 현지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김도현, 「한말~일제강점기 태백산에서의 祭儀 전승과 변동」, 『역사민속학』5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김도현, 「신앙과 산림문화 -산에서 모시는 신령과 의례-」, 『세시풍속과 산림문화』, (사)숲과 문화연구회·산림청, 2018.

김도현, 「太白山에서의 天祭, 그리고 산신·천왕·용왕 모신 전통에 대한 歷史民俗的 고찰」, 『2019년 태백제, 태백산 천제 학술 대회 발표자료집』, 태백시, 2019.

46) 김도현·장동호, 『태백의 3대 강 발원지와 옛길』, 태백시·강원도민일보, 2011.

가 중 ‘태백산 정기’ 관련 가사가 들어 있는 사례 또한 매우 많다.⁴⁷⁾ 이것은 태백산신의 신성성에 기대어 살아가는 지리적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태백산신을 모신 사례는 태백산신을 모신 국가 제장을 설치하여 국가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사례, 상당신으로 모시는 사례, 태백산이 지닌 영험함에 기대려는 사례, 터주로 모신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제장에서 모신 사례는 각종 기록을 통해 신라시대부터 태백산신을 모신 전통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라시대에 중사를 설치하였고, 고려시대에 김방경의 아들 김순(金恂)을 태백산제를 지내기 위한 외산제고사로 파견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까지 태백산에서 태백산신을 모신 국가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⁴⁸⁾ 이 때 태백산신은 국가 안위를 위해 태백산지역을 관장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당신으로 모신 사례는 주로 마을이나 개인 차원에서 종교적 염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령을 위할 때 태백산신을 상당신으로 제일 먼저 위하는 형태이다. 봉화 대현리 백천계곡 내 마을들을 비롯하여 영월군 상동면 꼴뚜바우 서낭당, 태백시 서학골 등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 태백산신을 상당신으로 모시는 사례는 태백산에서의 산뻘이, 개인 산당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무속 의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백산이 지닌 영험함에 기대는 사례는 고을, 마을이나 공동체, 개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고을 관련 사례는 성현의 『허백당집』 신당퇴우설을 보면 “매년 4월 8일에 그 신이 읍의 성황에 내려오기에 읍의 사람들이 성대히 깃발·북·피리를 갖추고 태백산신을 맞이하여 읍리(邑吏)의 집에 둔다.”고 하였다. 즉 삼척

47) ‘태백산 정기’와 관련한 표현이 내포된 초·중·고등학교 교가는 현재 태백시청에 근무하는 안호진 님이 제공하였다. 지면으로나마 감사드린다.

48) 태백산 산신을 신라~조선까지 국가 제사 또는 조선시대 삼척도호부 관아나 민간 차원에서 모신 내용은 본문 중 ‘태백산에서의 제의 전통’에 정리하였기에 이 단원에서는 생략함.



도호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이 지역 최고의 신령인 태백산신을 맞이하여 다양한 종교적 염원이 구현되길 기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을이나 공동체 관련 사례는 태백산신을 모신 고갯마루 산령당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다. 태백산 사길령을 비롯하여 느릅재, 피재, 영월에서 태백 어평마을을 연결하는 당목재, 봉화의 냇재 등이다,⁴⁹⁾ 이들 산령당에서는 이곳을 지나던 보부상과 그 후손들, 마을 주민들이 행로의 안전과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 지냈던 전통을 계승하여 매년 산령각제⁵⁰⁾를 지낸다.

사길령 산령각에서는 위패와 위목지에 태백산신을 좌정시킨 형태로 모셔서 산령각제를 지낸다. 그러나 느릅령 산령당에서는 제당 안에 느릅령 산신을 모시기에 느릅령 산신제를 지내기 전에 태백산을 향해 망제 형태의 산신제를 지낸다. 이는 이 지역을 포함하여 경상도 전체의 조산(祖山)으로 여겨지는 태백산을 가장 높게 여기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사길령 산령각에서의 제의는 음력 4월 15일인데, 느릅령 산령당에서의 제의는 4월 16일이다. 이는 사길령 산령각에서의 제의와 느릅령 산령당에서의 제의가 일정 부분 관련되었음과 함께 사길령 산령각과 느릅령 산령당의 상호 위

49) 사길령이나 느릅재, 피재 등 고갯마루에 위치한 산령당에서의 제의를 주관하고, 제당 중수에 참여한 집단은 주로 각각의 고갯마루를 오간 보부상들이었으며, 보부상이 헝파된 이후에는 이들의 재산을 관리한 집단 또는 선질꾼 등이다. 그러므로 ‘○○산령각(당)’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제당에서의 제의를 고갯마루 아래에 소재한 마을에서 주관하더라도, 그 실상을 보면 마을 주민들만을 위한 제의 공간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고갯마루를 오간 상인들의 후손이나 상단과 관련한 마을들이 동참하는 형태의 산령제를 지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마을 제당에서의 제의와 구분되기 때문이다.

김도현, 「울진 12령 셋재[鳥嶺] 城隍祠와 祿負商團」, 『실천민속학』 16집, 실천민속학회, 2010.

김도현, 「태백지역 고갯마루 산령당 운영 양상과 그 성격」, 『박물관지』 제18호, 강원대 중앙박물관, 2012.

50) 신종원·노남호, 「태백산 사길영 산령각제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3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8.

김도현, 「태백지역 고갯마루 산령당 운영 양상과 그 성격」, 『박물관지』 제18호, 강원대 중앙박물관, 2012.

봉화군 석포면 냇재 산령각, 영월군 상동면으로 이어지는 당목재에 위치한 산령당 사례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조사.

상을 잘 보여준다.

이와 함께 18세기 이후에는 단종을 태백산신으로 여겨 영월에서 태백산으로 이어지는 길에 연해 있는 마을 제당에서 단종을 태백산신으로 모시는 사례⁵¹⁾가 다수 나타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태백산이 지닌 영험함에 기대려는 사례는 약초를 캐는 심마니들의 산신제, 개인 차원에서의 산치성 등이 있다.

그리고 태백산신을 터주로 모신 사례는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 신령이 좌정한 태백산을 관장하는 태백산신을 함께 위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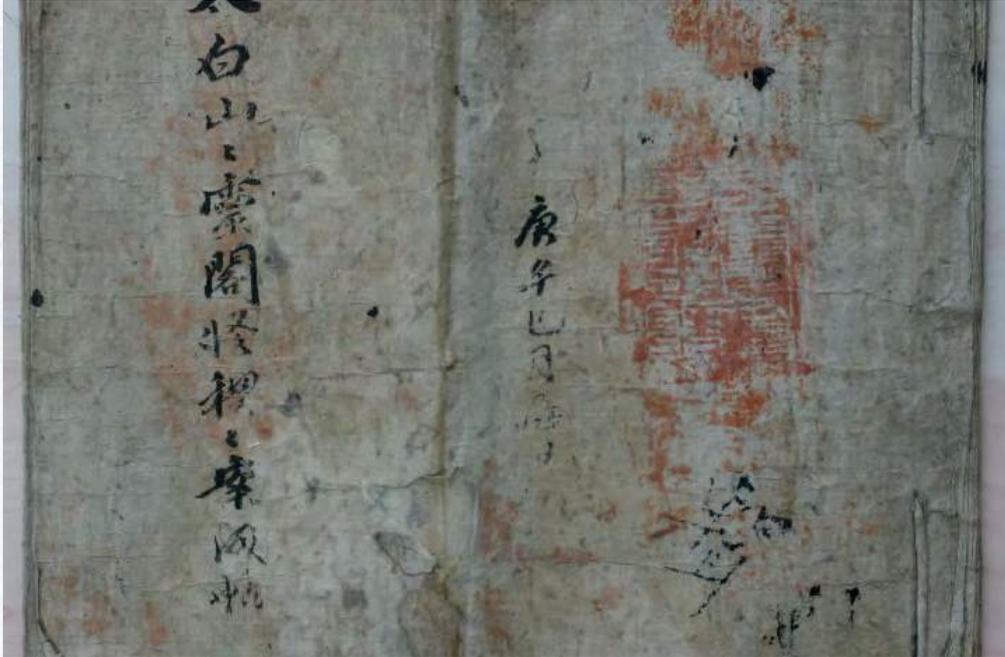
봉화 대현리에서 천제를 지낼 때, 천신이 모셔져 있는 영험한 태백산을 관장하는 태백산신을 함께 모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 전경

51) 김효경, 「端宗의 신격화 과정과 그 의미」, 『민속학연구』 5, 국립민속박물관, 1998.

김효경, 「단종 제사와 신앙의 전개 과정」, 『민속학연구』 제22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6.



사길령 산령각계 문서(太白山山靈閣修楔案成帖 표지)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내 제수 진설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제



느릅령 산령제 지내기 전에 태백산 향해 산신제 지냄(2010년)



느릅령 산령제 참가자와 산령당 전경(2010년)

나. 천왕(天王)

조선시대에는 태백산에 설치된 제당을 ‘태백천왕당(太伯天王堂), 천왕당(天王堂), 천왕사(天王祠)’라고 하였는데,⁵²⁾ 각종 기록을 종합하면 태백산사(太白山祠)는 천왕당(天王堂)이고, 태백사(太白祠)는 천왕사(天王祠)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당 명칭을 통해 태백산에서 ‘천왕’이라 불리는 신령을 모신 제의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태백산 천왕당에서 모신 天王的 성격과 관련하여 천왕을 천신으로 볼 것인지 산신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천왕이 지닌 성격과 관련하여 『삼국유사』 속 환웅신화의 내용을 통해 천신인 환인의 아들이면서, 신시(神市)를 개창하여 교화하고, 신화에서의 시조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규보의 『동명왕편(東明王篇)』, 이승휴의 『제왕운기(帝王韻紀)』 내용은 천왕(天王)의 성격을 좀 더

52) 태백산에 있었다고 기록된 제당의 명칭을 통하여 천왕을 모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각종 지리지와 개인 문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규보의 『동명왕편』 내용 중 해모수(解慕漱) 관련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2-23] 『동명왕편(東明王篇)』 본시(本詩)

… 해동(海東)의 해모수(解慕漱)니

참으로 천제자(天帝子)라

본기(本紀,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그 옛 도움 터에는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로써 와 도움을 정하였다.

공중에서 내릴 적에 / 오룡거에 몸을 싣고

따른 이백여 인은 / 고니타고 우의(羽衣) 날려

맑은 풍악 퍼져가고 / 채운은 뭉게뭉게

…

자고로 수명군은 / 모두가 천인이나

대낮에 하늘내림 / 예부터 드물었다.

아침에는 인간세상 / 저녁에는 하늘나라(아침이면 정사를 보살피고, 저녁이면 하늘에 올랐으니, 세상에서 그를 천왕랑(天王郎)이라고 일렀다.

…

위 자료를 통해 해모수가 『삼국유사』·『제왕운기』에 등장하는 환웅(단웅)과 같



이 하늘의 아들이자 인간세상을 연 신화상의 존재로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모수의 구체적인 역할을 “아침이면 정사를 보살피고, 저녁이면 하늘에 올랐으니”라 하였으며, 그 이름을 ‘천왕랑(天王郎)’이라 한 것은 천왕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천왕과 관련하여 ‘단웅천왕’ 기록과 함께 다음 내용이 실려 있다.

[자료 2-24] 『제왕운기(帝王韻紀)』 권하(卷下) 본조군왕세계년대(本朝君王世系年代)

…성골장군(聖骨將軍) 휘(諱)는 호경(虎景)이며, 지금의 구룡산천왕(九龍山天王)이다. 처음에 백두산(白頭山)에서 9명을 데리고 사냥하러 송악에 왔다. … 장군이 나오니 동굴이 무너져 9인이 모두 파묻혔다. 호랑이가 변신하여 여인이 되어 말하기를, “나는 과부로 이 산에 살고 있는데, 원컨대 당신과 함께 신정(神政)을 다스리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혼인하여 신(神)이 되었다. 이 때문에 호경이라 이름하였고, 그 산은 구룡이라 이름한 것이다. …

… 이곳에서 성인의 지혜를 가진 아이를 낳았으며, 성모(聖母) 지리산천왕(智異山天王)이다. 도선국사(道詵國師)에게 명하여, 이곳을 명당이라 이르게 하고는, 이곳을 종제지지(種稌之地)로 삼았으니, 이로 인하여 왕(王)세간에 기장[稌]을 왕이라 일렀으니, 대저 왕업(王業)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 것이다. …

위의 구룡산천왕 관련 기록은 호랑이가 변신하여 여인이 된 존재와 결혼하여 신정을 펼친 고려 태조 왕건의 조상인 호경에 대한 이야기이다. 즉 태조 왕건의 조상을 천왕으로 설정하여 고려를 개창한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聖母命詵師[智異山天王也]’라고 소개한 기록은 성모를 지리산 천

왕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성모·천왕 관련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2-25]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 진주목(晋州牧) 사묘(祠廟)

성모사: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에 있다. 성모상이 있는데, 이마에 칼 흔적이 있다. 속설에는 “왜구가 우리 태조에게 격과당해서 궁하게 되자 천왕이 도우지 않은 탓이라 하며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칼로 찍고 갔다”한다.

[자료 2-26]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 함양군(咸陽郡) 사묘(祠廟)

성모사: 사당이 둘이다. 하나는 지리산 천왕봉의 위에 있고, 하나는 군 남쪽 엄천리에 있다. 고려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성모 태조의 모친 위숙왕후라 한다”하였다.

『제왕운기』에 지리산천왕을 성모라 하였으며, 지리산 성모는 고려 태조의 모친 위숙왕후라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고려를 창건한 왕건을 낳은 위숙왕후를 지리산 성모로 여겼고, 『제왕운기』에서 이를 천왕이라 하였으므로 위숙왕후는 환웅신화에 등장하는 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기록을 통해 인간 세상을 열거나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인물을 탄생시킨 신화상의 시조를 ‘성모’라 하였으며, 이를 ‘천왕’이라 한 것은 환웅신화에 소개된 ‘천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한다.⁵³⁾

그리고 경상도 대구·현풍·창녕 등에서 마을 제사를 지낼 때 천왕을 모신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대구 논공천왕당 사례를 보면 ‘천왕당’이라 쓴 편액을 건제당을 만들어 매년 정월대보름에 마을 제사를 지낸다. 천왕당이 위치한 곳 위에 장방형으로 2~3단 석축을 쌓아 조성한 산신당이 있다. 산신당에서 산신을 먼저

53) 김도현, 「한말~일제강점기 태백산에서의 祭儀 전승과 변동」, 『역사민속학』 5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위한 후 천왕당에서 마을 제사를 지낸다. 마을 주민들이 천왕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나, 내면적으로는 마을을 개창한 조상신으로 여겨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령으로 여긴다.

또한 18세기부터 단종이 사후 태백산신으로 좌정하였다는 믿음이 태백산 주변 및 영월지역 주민과 무당들 사이에 뿌리내렸으나,⁵⁴⁾ 단종대왕을 천왕으로 여기는 사례가 없다는 사실은 태백산신과 천왕을 별개로 여겨야 함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 등 태백산 자락에 있는 산령각에서 태백산신을 모실 때 ‘천왕’이라 표현한 사례가 없으며, 1735년부터 1737년 사이에 기록된 이인상의 「유태백산기」에 다음과 같은 천왕 관련 기록이 전한다.

[자료 2-27] 이인상(李麟祥)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

… 천왕당(天王堂)에 도착했다. 통금시간까지 도착하기로 약정했는데 드디어 60리 길을 걸어온 것이다. 천왕당 서쪽당에는 석불이 있고 동쪽 당에는 나무상이 있는데 이것을 이른바 천왕(天王)이라고 한다. …

이는 당시 태백산 천왕당[태백당]에서 모신 신령을 태백산 산신 또는 단종대왕으로 여기지 않고, 천왕으로 여긴 것은 천왕을 산신으로 비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고구려 ‘천왕지신총(天王地神塚)’ 고분벽화에 천왕과 지신을 묵서(墨書)한 도상이 등장한다.⁵⁵⁾ 천왕은 상투를 올린佳人(佳人)이 봉황을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이 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국내의 주요 산에서도 ‘천왕’이 등장한다. 지리산 성모천왕⁵⁶⁾을 비롯하여 구월산 삼성사

54) 김효경, 「端宗의 신격화 과정과 그 의미」, 『민속학연구』 5, 국립민속박물관, 1998.

55) 이태호, 「고구려벽화고분 23: 인물풍속, 사신도 - 천왕지신총」, 『북한』 112권, 북한연구소, 1981.

56) 지리산 성모천왕이란 표현은 다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李能和의 『朝鮮巫俗考』에 실린 성모천왕 기록은 다음과 같다.

에서 모신 환인천왕·환웅천왕·단군천왕⁵⁷⁾, 속리산 천왕사⁵⁸⁾ 사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천왕을 천신으로 비정하는 것 또한 무리가 따름을 알 수 있다.

천왕의 성격과 관련하여 지리산 성모·천왕, 속리산 대자재천왕굿(大自在天王 굿)에서 하위 놀이로 남근 큰 것을 봉헌하는 사례, ‘태백 천왕당(太伯 天王堂)’,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지리산 성모(聖母)는 지리산 천왕이다”라고 한 표현 등을 통해 천왕이 하늘의 아들이기에 확보한 권위와 함께 지리적 공간을 설정하여 천상의 원리가 지상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교화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천왕은 천신이나 산신과는 다른 성격의 신령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리산 천왕’이라 표현한 것은 지리산이라는 특정 지역을 지칭한 것으로 한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을 한정하는 것은 ‘천왕’을 ‘천신’으로 인식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천신’은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여 모시는 신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산맥이에서 산은 산에 좌정한

... 세상에 전하기로 지리산 엄천사(嚴川寺)에 범우화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자주 도행(道行)을 하였다. 어느 날 갑자기 산간을 보니 비는 오지 않는데 안개가 끼어 그 길을 찾아 올라가서 천왕봉 꼭대기에 올랐다. 거기서 키가 크고 힘센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는 자칭 성모천왕으로서 하늘에서 인간세계로 내려왔는데, 당신과 인연이 있어 물의 술수를 써서 중매가 되어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였다. 이에 집을 짓고 살아 여덟 딸을 낳았다. 자손들이 번성하여 무술(巫術)을 배웠고, 방울과 부채를 들고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범우화상을 외치며 방방곡곡으로 다니며 무업(巫業 : 직업적 무당)을 하였다. 세상에서 이를 큰무당이라고 하여 ‘지리산정에 올라 성모·천왕을 맞아 신을 내린다.’는 등의 구절이 있다.

朴全之의 「龍巖寺重修記」에 <성모천왕은 지리산신이고, ‘지금 산 아래에는 백무촌(百巫村)이 있다.’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57) 『世宗實錄』 권40, 10年 6月 乙未 <山之東嶺 高大而長 至一息安岳郡而止 嶺之腰有神堂焉 不知創於何代 北壁桓雄天王 東壁桓因天王 西壁檀君天王 文化之人常稱三聖堂 其山下居人 亦稱曰聖堂里 堂之內外 鳥雀不棲 麋鹿不入 當旱暵之時 祈雨稍有得焉 或云檀君入阿斯達山化爲神 則檀君之都意在此山之下 三聖堂至今猶存 其迹可見以 今地望考之 文化之東 有地名藏壯者 父老傳以爲檀君之都 今只有東西卯山 爲可驗耳>

58) 『新增東國輿地勝覽』 15 忠淸道 報恩縣 祠廟條 <大自在天王祠 : 在俗離山頂 其神每年十月寅日下降于法住寺 山中人設樂迎神以祠之 留四十五日而還>



조상신을 의미하는데, 이 지역에서 산뱃이를 행하기 위해 찾는 최고의 산은 태백산이고, 거리 문제로 못 갈 경우 인근의 근산이나 두타산, 선음산 등을 찾는다.⁵⁹⁾ 이들 산에 역시 천왕을 모신 천왕사나 조상신을 모신 산당⁶⁰⁾이 존재하였다. 이는 천왕을 영험한 산에 좌정한 신화상의 시조신(始祖神)⁶¹⁾으로 규정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⁶²⁾

그러므로 신령으로서의 ‘천왕’은 구월산 삼성사에서 세 분 신령을 모두 천왕으로 여긴 사례, 고려 태조 왕건의 조상인 호경이 신정(神政)을 펼친 구룡산 천왕으로 묘사되었다는 사실과 “지리산 성모(聖母)는 지리산 천왕이다”라고 한 『제왕운기』 기록, 대구 논공천왕당 사례 등을 통해 환웅신화에서 보여주는 천왕으로서의 활동 범위와 성격을 넘어서는 천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천왕은 신화상의 시조신으로서, 천신인 환인의 아들이면서 신시(神市)를 열어 천상의 원리가 지상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교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의 아버지로 여겨지기에 천신인 환인, 국조(國祖)로 모셔진 단군과 구분되는 신령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는 아니지만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을 낳은 위숙왕후를 성모·천왕이라 한 것은 새로운 국가를 만든 인물을 탄생시킨 존재를 성모, 즉 천왕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더욱 확대되어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을 개창한 조상신 또는 조상신을 탄생시킨 시조를 천왕이라 하여 마을 제사에서 모시는 주신(主神)으로 좌정시킨 사례들 또한 시조신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천왕을 독자적인 신령으로 여겨야 함

59) 김도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선음산 산메기」, 『박물관지』 15집,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9.

60)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문필봉, 태백시 문곡동 사배리골,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죽암산당) 등에는 집안별, 또는 여러 집안에서 공동으로 만든 산당이 있어 매년 정기적으로 산에 좌정한 조상신을 모신다.

61) 천신이나 산신의 감응 또는 후손이 영험한 산에 좌정하여 천왕이 됨(대부분 天神의 감응 또는 후손으로 인식됨).

62) 김도현, 「한말~일제강점기 태백산에서의 祭儀 전승과 변동」, 『역사민속학』 5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을 잘 보여준다.⁶³⁾

조선시대에 태백산을 중심으로 신화상의 최고 조상신으로 여겨진 천왕을 모신 제의가 폭넓게 설행되었음은 앞서 소개한 [자료 2-1], [자료 2-2]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들 제당에서 모신 천왕의 성격은 위에서 정리한 천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각종 기록에 등장하는 태백산 천왕사가 구한말~일제강점기에 계속 운영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으나, 현재 태백산 만경대가 위치한 곳이 조선시대 각종 자료에 등장하는 천왕사가 있었던 자리였다.

왜냐하면 현재 태백산 정상부 바로 아래에 있는 만경대 옆 산기슭에 고려시대 불상으로 추정되는 석불과 대좌가 파손된 채 발견되었다.⁶⁴⁾ 이와 함께 심의승의 『삼척군지』(1916년)⁶⁵⁾와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의 기록을 종합하면 만경대 터에 태백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만경대 옆에서 발견된 석불과 대좌가 이인상의 「유태백산기」에 소개된 천왕당에 모셔졌던 석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제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모신 신령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의가 행해졌는지 알 수 없다.

63) 김도현, 「환웅신화에 보이는 천왕의 성격」, 『삼국유사의 세계』 최광식교수 정년기념 논총-, 세창출판사, 2018.

64) 김도현, 『史料로 읽는 太白山과 天祭』, 강원도민일보사·강원도·태백시, 2009.

65) 심의승, 『삼척군지』(1916) 상장면 구적명승조

〈태백산에 태백당(太白堂)이 있다. 태백당의 동남쪽 문수산(文殊山)에는 큰 석불(石佛)〈약 80관(貫)〉 하나가 있었는데, 신라 진평왕 50년[628] 무자년에〈지금으로부터 1,288년 전이다〉 자장법사(慈藏法師)가 와서 이 석불을 문수보살이라 하여 그대로 산 이름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태백산 정상에 태백당을 건립하고는 이 석불을 옮겨 안치하였고, 또 불모(佛母) 마야부인(摩耶夫人)과 제석천황(帝釋天皇)도 안치하였다. 대체로 태백당의 유지를 위해 종래에는 삼남지방의 인사들이 여러 번 수리를 하였다. 그러나 대정 4년[1915] 봄에 당시 면장인 최학규(崔鶴圭)와 신사(紳士) 안응순(安應淳) 등이 다시 한층 더 수축(修築)을 하여 그 면목이 매우 새로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삼척을 중심으로 태백산 자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도 태백산이나 태백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산에 좌정한 조상신을 위하는 산뎡이를 행하였다는 사실, 만경대 삼성각에서 산신, 독성과 함께 단군⁶⁶⁾을 모신다는 사실, 태백산 자락에 있는 마을 제당인 소룻골 함백산 성황당에서 태백산신으로 여겨지는 단종과 함께 최고의 조상신인 단군을 모신 사례, 현재 태백산 자락에 있는 단군성전⁶⁷⁾뿐만 아니라 천신이나 태백산 산신과는 별개로 단군을 모신 산당⁶⁸⁾이 많아진다는 사실은 태백산에서 천왕을 모셨던 전통⁶⁹⁾이 구한말~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정리하면, 태백산에서 모신 천왕은 그 명칭이 천왕, 산, 또는 단군⁷⁰⁾으로 표현

66) 구월산 삼성사에서 환인천왕, 환웅천왕과 함께 단군천왕을 모신 사례로 보아 단군은 천왕으로 비정될 수 있음

67) 단군을 모신 제의는 10월 3일 단군성전에서 행한다. 제당골 서낭당에서 산신제를 지낸 후 단군제를 지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시대에 태백산 정상 아래에 위치한 천왕당에서 천왕을 모신 전통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천제단에서 천신을 모신 제의에 밀려서 태백산 아래 단군성전에서 지내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과정에서 천왕이 좌정한 태백산에 먼저 제사지내게 되고, 이 제의가 제당골 서낭당에서의 태백산신제이다.

68) 현재 태백산 자락에서 단군을 모신 곳은 당골에 있는 단군성전을 비롯하여 혈동의 팔보암, 백단사계곡 내 미륵암을 비롯한 많은 산당에서 천신·태백산 산신과 함께 단군을 모신다. 이곳을 찾는 보살들이나 당주들은 단군을 천신이나 태백산 산신과는 별개의 신령으로 여기고 있다.

69) 환웅신화에서 天王者는 천신인 환인의 아들이면서 神市(를) 열어 천상의 원리가 지상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교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존재이다. 가야산을 비롯한 몇 개의 지역에 등장하는 天王者는 天神이나 山神의 감응을 받고 영험한 산에 좌정한 최고의 시조신으로도 등장한다. 國祖 단군은 본래의 성격과 함께 조선 후기에 환인과 환웅의 역할을 수행한 존재로 인식한 사례들이 있으며, 구월산 삼성사에서도 단군을 천왕의 성격을 지닌 신령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태백산에서 모시는 주요 신령 중의 하나인 단군은 나라를 처음 세운 존재이면서, 신화상의 최고 조상신으로 인식되기에 『삼국유사』 속 환웅과 단군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존재로 여길 수 있다.

70)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환웅신화를 소개한 대부분의 기록에는 환인·환웅·단군을 구분하여 그 역할과 의미를 소개하였다. 조선 말기에 편찬된 것으로 여겨지는 『巫堂來歷』에서는 환인과 환웅을 언급하지 않고 檀君을 帝釋으로 설정하여 단군을 三神帝釋이라고 하였다. 즉, 일부 기록에서 단군을 천신으로 여기면서, 환인·환웅이 수행한 역할을 담당한 존재로 여긴 것이다. 태백산에서 단군을 환인·환웅과 구분되는 단군으로 인식 또는 전지전능한 단군으로 인식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태백지역에 산재한 산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산당에 모신 단군은 천신이라기 보다는 國祖 즉, 나라를 처음 세운 존재로 인식하고, 이와 함께 최고의 조상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필자는 본문에서 단군을 國祖와 天王者의 위상을 지닌 것으로 비정하였다.

된다. 그리고 그 성격은 태백산 권역을 배경으로 천상의 원리가 지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교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태백산 권역에 있는 마을·집안 등을 새롭게 개창한 조상을 탄생시킨 시조신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존재로 현재까지 모셔지고 인식된다.

다. 천신(天神)

신령으로서의 천신(天神)은 하늘을 관장하는 신령, 하늘을 초인격화하여 모신 신령, 세상을 관장하는 최고의 신령 또는 기우·역질 구축 등 다양한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신령으로 모셔진다.

현재까지 알려진 천제 또는 제천이라 불리는 하늘[天]에 대한 제의 사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⁷¹⁾ 첫째,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이나 특정 산의 권역을 중심으로 행해진 천제, 둘째, 강원도 삼척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간헐적으로 보이는 마을 단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이 함께 지낸 천제, 셋째, 개인이나 특정 종교집단 차원에서 행한 천제로 구분할 수 있다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내는 전통 또한 필자가 설정한 위의 3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유형과 관련하여, 태백산을 천제지내는 성소로 여겨서 제단을 쌓아 천제를 지내거나, 천신이 강림하는 장소로 여기는 사례들이 있다. 소개하면, 태백산이 지닌 민족의 영산이라는 관념 속에서 구국의 성지로 인식된 것과 관련하여 1937년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의 활동이 주목된다.⁷²⁾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고, 1938년 6월 15일(음력 5월 7일) 윤상명·최익한·유형호·유형남·이창순·이금손·주인섭·고병월 외 18명의 교도들이 제수를 준비하여 6월 16일(음력 5월 8일) 오전 0~3시 사이에

71) 필자는 하늘[天]에 대한 제의 사례를 다음 논문에서 위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김도현, 「한계산성 천제단의 형태와 성격」, 『한국성곽학보』 23집, 한국성곽학회, 2013.
김도현, 「삼척시 내미로리 天祭」, 『종교학연구』 제32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14.

72) 昭和十六年 刑公 第 310號/事件番號 昭和16年刑第936號 재판 기록



독립 기원제를 지냈다. 이 때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28수기·팔만기·오행기·일월성신기·구령기 등을 세웠다. 이러한 의례는 현재 태백산 천제의 모습을 갖추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둘째 유형은 마을 단위로 하위 마을을 대표하는 곳에 천제단을 만들어 천제를 지내는 형태이다. 마을 단위로 하위 마을을 대표하는 곳에 천제단을 만들어 천제를 지내는 사례는 구한말 이전부터 행해진 전통으로 태백산을 중심으로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2-1]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과 백산동 백산마을 사례

태백시 솔안마을과 백산마을에는 각각 천제당이 있다. 이들 마을에서는 격년에 한 번씩 소를 제물로 준비하여 천제를 지낸다. 솔안마을에서 천제를 지내면 백산마을 대표와 하위 마을에서 동참하며, 백산마을에서 천제를 지내면 솔안마을 대표와 하위 마을 사람들이 동참하는 형태로 천제를 지낸다. 언제인지는 모르나 예전에는 솔안마을 또는 백산마을에 속한 하위 마을 단위로 마을 서낭당이 있어 백산 또는 솔안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천제와는 별개로 서낭제를 각 하위 마을 별로 지냈다고 한다.

[사례 2-2] 삼척시 도계읍 점리 사례

삼척시 도계읍 점리는 7개 정도의 하위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마을에서는 매년 서낭제를 지냈으며, 3년에 한 번씩 마을 천제당에서 7개 마을 주민들 대표와 제관 등이 모여 점리 마을 전체의 안녕과 소통·화합을 위해 돼지를 제물로 준비하여 천제를 지낸다.

[사례 2-3]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사례

매년 음력 4월 8일 대현리를 구성하는 하위 마을 대표들과 제관들이 대현리 천제단에서 대현리 전체 주민들의 안녕과 풍요·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천제를 지낸다. 물론 하위 마을 단위의 서낭당에서는 하위 마을 자체적으로 서낭제를 정초에 지낸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위 마을 단위로 매년 서낭제를 지내면서 하위 마을들을 아우르는 마을 천제단에서 매년 또는 수 년에 한 번씩 천제를 지내는 사례가 태백산 자락과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견된다.⁷³⁾ 이들 마을에서는 마을 단위에서 모시는 신령보다 상위 신령으로 여겨지는 천신을 모셔서 마을 주민들의 종교적 염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전체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천제를 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연행되는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천제단은 여러 하위 마을을 관장하는 중심 제당으로 기능하여 매년 또는 수 년에 한 번씩 천제단에 모여 천제를 지내는 사례가 있다. 또한 천제단에서 모시는 신령은 일반적으로 천신과 다른 신령을 함께 모셔 천제를 지내는 예를 여러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이를 구분하여 천신만 모시는 예, 천신과 산신을 함께 모시는 예, 천신과 기타 여러 신을 함께 모시는 예, 비일상적으로 기우를 위해 천제를 지내는 사례, 거리고사에서 상당신으로 모셔진 사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셋째 유형은 태백산에 소재한 각종 산당이나 기도터에서 태백산신과 함께 천신을 모신 사례, 신종교에서 천신을 모시는 사례들이 있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태백산은 하늘을 중시하는 신종교인들

73)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김도현, 「삼척시 내미로리 天祭」, 『종교학연구』 제32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14.



이 모여드는 성지, 구국의 성지로 부각되기 시작했다.⁷⁴⁾ 동학을 만든 최제우 사후 동학교도들이 태백산 권역에 모여들었으며, 다양한 신종교의 신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태백산으로 모여들어 천신에게 제사지냈다.

동학과 관련한 내용은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를 비롯하여 동학 관련 자료집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 자료들을 통해 동학은 하늘(天)을 중시하면서 발흥했기에 설단제천(設壇祭天)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동학을 이끌던 지도자인 이필제(李弼濟)는 1871년에 영해신원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설단제천했다. 관에 쫓겨 다니면서도 설단제천 후에 인근 관아를 습격했다. 이외에 정선에 머물던 최시형이 갈래산 적조암에 들어가 49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때 “태백산중에 들어 49일 기도드리니, 한울님께서 여덟 마리 봉황을 주어, 각기 주인을 정해주셨네”라는 시를 썼다. 갈래산은 태백산 권역에 속하였기에 태백산으로 간주하며, 이곳에서 한울님을 만났다.⁷⁵⁾ 이처럼 태백산은 천신을 만나는 곳으로 강하게 인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태백산 자락에는 건물 형태의 산당인 윤씨산당·유복산당·팔보암·미륵암 등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산당들이 많다, 이들 산당에서는 태백산신을 비롯하여 단군·천신·서낭·용신 등 다양한 신령을 모신 제의 공간을 각각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움막이나 기타 형태로 태백산에서 산기도나 산치성을 드릴 때 태백산신과 함께 천신을 모신 사례 관련 제보는 많다.⁷⁶⁾ 이와 같은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태백산 내 대부분의 산당에서 천신을 별도로 모시고 있다.

74) 김도현, 『史料로 읽는 太白山과 天祭』, 강원도민일보사·강원도·태백시, 2009.

75) 김도현, 「1870년대 태백산 권역에서의 동학교도 활동과 그 의미」, 『박물관지』 제19호,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76) 문수봉 정상 아래, 제당골 서낭당 부근, 백단사 계곡, 천평 당골 계곡 등에 움막 형태의 가건물을 지어 산기도·산치성을 드렸다고 전한다. 현재 문수봉 정상 인근에도 수십 채의 움막이 있으나, 산불 위험 해소와 경관 보호를 위해 철거하였다.

그러므로 태백산 자락에서 천신을 모신 제의는 태백산 정상에서 천제를 지내는 전통으로 확립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천신을 모시는 전통은 각종 산당이나 신종교에서 천신을 모신 제단을 설치하여 모시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이전부터 큰 마을 단위로 천신을 모셔 천제를 지낸 전통 또한 구한말~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까지 전승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태백산 천제 전경.(2008년)

태백산 천제 전경.(2009년)



태백산 자락인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천제에 동참한 마을 간부들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 천제 지내는 전경

라. 용왕(龍王)

이인상(李麟祥)⁷⁷⁾이 태백산과 황지를 다녀와서 쓴 「유태백산기(遊太白山記)」에 태백산에 좌정한 신령으로 ‘천왕(天王)과 황지(黃池)의 신’이 있음을 적었다. 이

77) 凌壺 李麟祥은 조선 숙종 36년(1710년)에 경기도 양주군 회암면에서 태어났다. 자를 원령(元靈). 호를 능호(凌壺) 또는 보산자(寶山子)라고 하는데 “보산자”는 천보산(天寶山)의 “보산”에서 따왔다. 지은 이는 3대에 걸쳐 대제학을 배출한 이경여(李敬輿) 가문의 현손(玄孫)으로 당대의 명문가였지만 증조부인 이민계(李敏啓)가 서자였기 때문에 과거시험도 본과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북부참봉(北部參奉), 음죽현감(陰竹縣監)등 음보(蔭補)로 한미한 벼슬을 했을 뿐이다. 관직생활 후에는 단양(丹陽)의 구담(龜潭)에서 은거했었다. 영조36년 1760년에 51살로 일생을 마친 후 경기도 안산 능길에 묻혔다.

비록 서출이었지만 시문과 학식이 뛰어나 시와 글씨 그림 모두 뛰어났고 저서에 능호집, 그림에 설송도(雪松圖) 노송도(老松圖) 산수도(山水圖) 옥류동도(玉流洞圖) 검선도(劍仙圖) 송석도(松石圖) 송하관폭도(松下觀瀑圖) 한림수석도(寒林秀石圖)등이 있고, 글씨에 대사성김식표(大司成金湜表)가 전할 정도로 당시 문사들의 존경을 받았던 위인이다.

이 글은 지은이가 진사시에 합격했던 서기 1735년에서 1737년 사이 즉, 저자 나이 26~28세쯤에 태백산을 유람하고 남긴 태백산기이며, 『능호집(凌壺集)』에 실려있다.(윤순석, 「遊太白山記」, 『태백문화』 21집, 2008. ; 김도현, 『사료로 읽는 태백산과 천제』, 태백시·강원도민일보, 2008, 49쪽.)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태백산에서 중요하게 여긴 신령이 천왕과 함께 ‘황지(黃池)의 신’, 즉 용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제전을 마련하여 가물거나 물로 인한 변고가 있으면 지방관이 제사를 지내도록 조치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물을 관장하는 용왕을 위한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⁷⁸⁾

이와 함께 태백산이 지닌 신성성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물이기에, 신성한 태백산에는 천왕당이 있었던 곳에 위치한 용정, 현재 당골 청원사 내에 있는 용담,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와 함께 상류에 있는 용소·구문소 등 물을 관장하는 용왕이 좌정하였음을 나타내는 곳은 많다. 태백산에 좌정한 용왕은 기본적으로 물을 관장하면서 신장의 역할, 전쟁에서의 승리 축원 대상 신령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문집이나 지리지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태백산 권역 내의 산당에 반드시 설치하는 제의 공간 중의 하나가 용왕당인데,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거나, 샘이 솟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 산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용왕을 신장으로 여겨 인사드리는 사례가 많으나, 일부 사람들은 천신 기도나 산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 받기 위해 용왕당에서 정성을 드리는 사례도 많다. 그 이유는 용왕당에 흐르는 물을 천신줄 또는 산신줄로 여겨서 천신이나 산신의 영험함 또는 기도 원력을 잘 전달 받는 매개체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매개체 역할은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에 좌정한 용왕의 신성성이 영향을 끼치는 공간 범위를 황지에서 시작된 알물이 경상도 지역을 지나면서 태백산이 지닌 정기를 부여하는 지역 모두를 아우르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태백산에 좌정한 용왕은 물을 관장하는 존재이면서, 수호신장의 역할과 함께 천신이나 산신 기도 공력을 전달해 주는 천신줄·산신줄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이다.⁷⁹⁾

78) 『世宗實錄地理志』江原道 三陟都護府 〈… 황지(黃池)[부(府)의 서쪽이 있는데, 제전(祭田)을 두고, 소재관(所在官)이 제사를 지낸다.

79) 태백산에 용왕이 좌정한 사례는 다음 글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3. 태백산이 지닌 의미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민속을 살펴보면 개인·마을·국가를 비롯하여 불교를 비롯한 신종교에서 산이라는 공간에서 선행하는 종교 의례가 매우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종교의례를 선행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산은 한정되어 있다. 모든 산에서 종교 의례를 행하여 소기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즉 신성성이 없는 산에서 종교 의례를 선행하지 않는다. 신성성을 크게 지닌 산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여기서 다양한 종교 의례를 행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태백산 사례를 중심으로 산이 지닌 신성성에 대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 대에 국토방위를 위하여 다섯 곳에 중사(中祀)를 설치하였는데, 태백산이 중사에 속하였음은 『삼국사기』를 비롯한 각종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김방경의 아들 김순을 태백산제(太白山祭)를 지내기 위한 외산제고사(外山祭告使)로 파견하였다는 『고려사』 열전의 자료는 고려시대에도 국가에서 태백산에 관리를 파견하여 태백산제를 거행하였음을 보여준다.⁸⁰⁾

그런데 조선 세조 때에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태백산을 동진(東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태백산에서 국가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즉 조선시대에 태백산은 국가 제장에서 탈락하고, 대신 강원도의 치악산에 소사가 설치되는 등 국가 제장으로 새롭게 선정된 산들이 등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성현의 『허백당집』 신당퇴우설을 보면 “...산은 비록 높으나 사전(祀

김도현, 『史料로 읽는 太白山과 天祭』, 강원도민일보사·강원도·태백시, 2009.

김도현·장동호, 『3대 강 발원과 태백』, 강원도민일보·태백시, 2010.

김도현 외, 『우리가 알아야 할 태백시의 문화유산』, 태백시·강원대 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11.

김도현 외, 『문헌으로 본 태백시의 지명』, 태백시·강원대 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11.

80) 김도현, 『史料로 읽는 太白山과 天祭』, 강원도민일보사·강원도·태백시, 2009.

典)에 실리지 않은 것은 백성과 국가에 공과 베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⁸¹⁾

즉 국가제장에서 탈락한 이유를 ‘베품’이 없기 때문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베품’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내 치악산은 고려시대에 국가 제장이 아니었으나, 조선 개창 이후 국가 제장으로 지정되었다. 수도 한양을 기준으로 치악산을 비롯하여 의관령 등에 국가 제장을 설치하여 국가 제사를 지낸 것이다. 이는 이들 산에서 발원한 물이 수도인 한양으로 흘러들고, 물길을 따라 발길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한강 발원지를 오대산 우통수로 설정하였기에 태백산에서 발원한 물이 수도였던 한양으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여겼고, 이에 조선 입장에서 태백산을 아무런 베품을 줄 수 없는 산으로 여겼다. 이로 인해 태백산 자락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태백산의 신성성에 기대려고 찾은 영험한 산이었으나,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태백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한양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여겼기에 베품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산이 지닌 신성성의 원천은 물이다. 이 물이 중·하류를 지나며 발길을 만들고, 드넓은 농경지와 마을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지낼 수 있게 한다면 그 산은 베품이 큰 산이고, 이에 기반으로 큰 신성성을 지녔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종교 성소로 기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강은 산에서 시작되고, 산은 그 지역을 아우르는 조산(祖山)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국가 단위에서 나뉠의 위상을 지닌 강은 조산(祖山)에서 시작되어 그 나라의 역사를 묵묵히 굽어보며 흐르기에, 어느 시대든 조산(祖山)과 그 산에서 시작되는 큰 강의 발원지는 소중하게 여겨졌고,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항상 중요한 신앙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산(祖山)과 여기서 시작되는 큰 강은 한 곳으로만 흘러간다. 이로 인해 조산과 여

81) 김도현, 『史料로 읽는 太白山과 天祭』, 강원도민일보사·강원도·태백시, 2009.



기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의 발원지가 있는 곳은 심산유곡으로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조산(祖山)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여러 방향으로 흘러내려가서 국가나 지역의 중심이 되는 강으로 여겨지는 곳은 표면적으로는 심산유곡이지만 실제 사방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 모든 방향에서 이곳으로 모여들고, 나갈 수 있는 사통팔달(四通八達)인 곳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서해안으로 유입되는 가장 길고 큰 강이 한강이고, 남해안으로 흘러가는 가장 큰 강이 낙동강이며,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큰 강이 삼척의 오십천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3대 강의 발원지를 실측해 보면 모두 태백산 자락에서 발원한 물이 해당 하천의 가장 긴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이다.

강은 곧 물이 모여서 형성되기에 물에 대한 사유는 중요하다. 범위를 좁혀 우물이나 샘과 관련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는 생명의 탄생과 같은 시원의 의미가 있으며, 또한 재생과 거듭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우물이나 샘에는 전통적으로 신성성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는 물이라는 것이 인간 존재에 있어서 필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강이 지닌 의미를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면, 강이 담고 있는 물은 생명의 원천이고, 강은 대지에 생명을 불어 넣으며, 청탁 모두를 수용하여 정화하면서 풍요로움도 담당한다. 그리고 왕성한 생명력으로 끝없이 쉬지 않고,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창조력을 지녔으며, 이는 힘과 지성을 상징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와 같이 큰 의미를 지닌 강의 발원지는 항상 강이 시작되는 최상류의 명산으로 인식하였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국가 제사를 지냈던 물이나 강 상류도 결국 명산 유역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제장을 설치할 때 이와 같이 국가를 보전하고 지켜줄 수 있는 명산과 여기에서 발원하는 발원지나 주요

샘에서 국가 제사나 기우제 등을 지냈다. 이에 태백산은 신라 이래 고려와 조선을 지나며 국가를 수호하는 명산으로 여겨졌고, 이에 이곳에서 3대 강이 발원하는 것은 역사·문화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구체적인 자료를 소개하면, 『여지도서』 ‘안동진관 봉화현’조를 보면 “... 태백산은 봉화현 북쪽 70리에 있는데, 강원도 금강산으로부터 그 줄기가 내려와서 경상도의 조종산[祖宗山, 경상도의 지맥을 형성하는 근간]이다. 고려 최선이 쓴 예안 용수사기에 따르면 천하에 명산이 삼한에 많은데, 이중 동남쪽에 있는 태백산이 최고의 명승이다라고 칭송하였다...”라 하였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 봉화현 산천’조에는 “태백산(太白山) 현 북쪽 73리에 있다. 고려 최선(崔詵)의 예안(禮安) 용수사(龍壽寺) 기(記)에, ‘천하의 명산(名山)은 삼한(三韓)에 많고, 삼한(三韓)의 명승(名勝)은 동남(東南)이 가장 뛰어나다. 동남의 거산(巨山)은 태백(太白)이 우두머리가 된다.’ 하였다. ... 용연(龍淵) 태백산 아래 있다. 가물 때 기우(祈雨)하면 응험이 있다.”라 하였다. 이는 경상도의 지맥을 형성하는 근간이 태백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태백산을 중심으로 회화식으로 주변 산과 이어지는 산맥을 표현하거나 주요 산을 여러 점으로 웅장하게 표기한 지도에서 주로 태백산 권역 내에 황지를 표기하였다. 1700년 전후에 만들어진 <조선지도>[古 4709-77] 경상도 지도를 비롯하여 <해동지도>[古大 4709-41] 강원도 삼척부 지도, <동역도>[古 4709-27] 강원도 지도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강원도와 경상도라는 지역적인 구분없이 나타나는데, 특히 <경주도회> 경상도 지도, <비변사인방안지도> 경상도 안동부 지도, <해동지도> 강원도 지도, <지도>[고 4709-92] 강원도 지도, <좌해지도> 경상도 지도, <광여도> 강원도 삼척부 지도에는 황지를 태백산 권역 내에 백두산 천지처럼 매우 큰 연못의 형태로 그린 후 노란 색으로 채색하여 낙동강 발원지로서 그 근원이 매우 깊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이보가 쓴 「유황지기」를 보면 “... 영남지방은 태백산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태백산의 기운을 바로 받았고 마땅히 사람들 중에 인재가 모이고 훌륭한 재주걸출한 사람으로 성공하니 각지에서 영남으로 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니 다른 곳은 우리 영남지방에 비할 곳이 없더라. ...”고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를 형성하는 중심축이 태백산임을 표현한 것으로서, 태백산을 영남 지방의 진산으로 여기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태백산의 기운을 바로 받았기에 영남지방으로 인재가 모이고 훌륭하고 재주걸출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다. 즉 당시 영남지방 사람들의 태백산에 대한 인식과 그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함께 표현한 글이라고 여겨진다.

대표적으로 [좌해지도(左海地圖), 奎12229]를 보면 태백산을 여러 개의 연속된 산봉우리로 이어서 그렸으며, 이를 다시 여러 겹으로 웅장하게 표현하였다. 태백산 자락 중앙에 타원형으로 노란색으로 채색된 황지를 크게 표기한 후 태백산 남쪽 권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를 ‘Y’ 자 형태로 표현하였는데, 이 물줄기는 낙동강 상류로써 안동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황지가 낙동강 발원지로서 그 근원이 매우 깊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이어서 예로부터 산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의 세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즉 마을 단위로 산신(山神)을 모셔서 산신제(山神祭)를 지내거나, 산에 가서 집안별 또는 개인 단위로 산맥이·산치성·산기도를 드린다. 이에 덧붙여 진산(鎭山)·안산(安山)을 정하여 일상에서 산에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고지도에서의 산수(山水) 배치이다.

[여지도(輿地圖), 古4709-68] 영남도를 보면 지도 맨 위쪽에 소백산을 중심으로 태백산과 조령을 평행하게 배치하여 경상도지역 형성의 기원이 되는 주산들임을 잘 표현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조에 소개한 낙동강의 발원지 3

곳은 바로 이들 산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상주에 이르러 하나로 합쳐져 낙동강이 됨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과학적인 실측에 의해서 3대 강 발원지로 인정된 태백산 권역이 역사적으로 보아도 3대 강 발원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것은 태백산이 지닌 다양한 역사적 중요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동해·남해·서해로 향하는 물줄기가 태백산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를 축축하게 적실뿐만 아니라 태백산·황지와 관련하여 쓰인 각종 유산기, 그리고 고지도들을 보면 태백산과 그 주변 지역은 결코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나 통하는 열린 곳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늘과 통하는 태백산과 그 의례인 천제, 3대강 발원지와 관련 물줄기들, 그리고 태백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많은 옛길을 통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한강·낙동강·오십천이 흐르는 강 유역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농토와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산이 지닌 신성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태백산이 지닌 신성성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 나타난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태백산과 태백산에서 발원하는 주요 강의 발원지는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항상 중요한 신앙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명산·대천은 기우(祈雨)치병(治病)을 비롯해 민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다른 소사의 항목과는 달리 치제(致祭)의 대상이 많고, 국가에서의 관심 또한 지대하였다. 삼국시대부터 중시된 산천에 대한 제사는 고려시대에는 잡사에 포함되어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에 들어와서도 건국 직후부터 그 제사가 계속 되었는데, 그 제사의 시행은 수재와 한재를 비롯한 민생(民生)과 관련이 있었다.

즉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국가 제사를 지냈던 물이나 강 상류도 결국 명산 유



역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제장을 설치할 때 이와 같이 국가를 보전하고 지켜줄 수 있는 명산에 제장을 설치하여 국가 제사나 기우제 등을 지냈다.

고대에 불교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태백산은 『삼국유사』의 자장율사 관련 사료⁸²⁾가 정선군 고한의 정암사와 연결되었기에 고대 불교사의 전개에 큰 의미를 지닌다. 즉 태백산은 종교적 신성 공간으로 여겨져서 이 지역에 문수신앙이 전파되면서 태백산의 주봉을 문수봉이라 하였으며, 토착종교 전통이 자장에 의해 문수신앙의 성지로 여겨지고, 이에 더하여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성스러운 종교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⁸³⁾

이와 함께 태백산은 신종교가 성장하는 활동 무대가 되었다. 즉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은 태백산을 기반으로 49일 기도와 교단 정비, 교세 확장을 통해 동학을 재건해냄으로써 동학이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⁸⁴⁾ 그리고 태극중앙명류도 교도들이 태백산 정상에 제단을 쌓아서 1938년 독립을 기원하는 천제를 지낸 성소로 자리매김하였고, 천제를 지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⁸⁵⁾

또한 태백은 사방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 모든 방향에서 이곳으로 모여들고, 또 나갈 수 있는 사통팔달(四通八達)인 곳이다. 길은 산 능선이나 고갯길과 함께 강의 유역을 따라서 형성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큰 산에서 알물이 발원하여 하류 쪽으로 향하면서 강 유역에 늘 교통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면 사람들의 교류가 많고, 이에 따른 신앙 공간들이 고갯마루에 만들어지면서 사방으로 통하는 교

82) 『三國遺事』券四, 「慈藏定律」.

『三國遺事』券三, 「臺山五萬眞身」「溟洲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臺山月精寺五類聖衆」.

83) 서영대, 「갈반지소고—소도의 불교적 수용」, 『종교학연구』 2,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79.

최중성, 「태백이 품은 성지와 성자」, 『2018년 태백산 천제 학술 대회 자료집』, 태백문화원, 2018.

84) 김도현, 「1870년대 태백산 권역에서의 동학교도 활동과 그 의미」, 『박물관지』 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85) 김도현, 『史料로 읽는 太白山과 天祭』, 강원도민일보사·강원도·태백시, 2009.

통로가 완성된다. 구체적으로 새길령 산령각 중수기 등으로 보아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였던 보부상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새길령 산령각이었다는 점은 이곳이 한국의 중심지이면서 사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다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열려 있는 곳이면서도 현재 태백시를 비롯하여 태백산 자락에는 백산·백석평·백석지 등 ‘백’ 자가 접두어로 쓰인 지명이 매우 많다. 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전쟁의 화가 이르지 못하는 깊은 산속이면서 백석의 쌀이 소출되는 농토가 있어 경제적인 궁핍을 면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보다 더 깊숙한 산속에 자신의 종족을 확실하게 보전할 수 있고, 최소한의 식량이라도 생산할 수 있는 상상 속의 백석지를 설정하여 동경했다.

이와 함께 동양의 사고가 서양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중 하나는 연호 사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서기는 끝없이 이어가지만 육십갑자는 60년을 주기로 돌고 돈다. 힘 있는 세력이 횡포를 부리거나, 난세여서 생활하기 매우 힘들어 당장은 생활이 매우 곤궁하고, 종족 보전을 걱정해야할 상황이지만, 기본적인 안전과 경제 여건이 보장되는 산 속에서 은거하면서 때를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다시 자신들의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많은 이들이 ‘백석지’를 찾아 나섰는데, 이곳 태백산 자락으로 온 사람들은 이곳을 열린 공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난세를 피하면서 후일을 기약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였고, 실제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4대조인 목조 이안사가 전주에서 탄압을 피해 태백산 자락인 노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방랑시인 김병연 집안 또한 황해도에서 이곳 태백산 자락으로 탄압을 피해 와서 정착하였고, 유성룡의 형과 부모님이 임진왜란을 피해 봉화 백석으로 피난 온 이유도 이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⁸⁶⁾

86) 김도현, 『경사스런 나라를 위하여 준경묘·영경묘·천은사 그리고 삼척』, 강원도민일보·삼척시, 2012.



태백산을 신성하게 여겨서 그 정기를 받으려는 전통은 현대에도 이어져서 낙동강 유역에 있는 경상북도 안동·봉화·울진지역을 비롯하여 하류인 부산에 위치한 많은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가에 태백 또는 태백산 관련 가사를 적어 태백산이 그들의 뿌리라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⁷⁾

태백에서 외부로 향하는 길은 동서남북 방향으로 다 열려 있다. 동쪽으로는 유령[느릎재]를 통해 삼척 도계와 연결되며, 통리를 통해 삼척 도계와 삼척 가곡-원덕으로 연결된다. 서쪽으로는 두문동재와 만항재·싸리재를 통해 정선과 연결되며, 화방재와 당목재를 통해 영월지역과 연결된다. 남쪽으로는 새길령을 통해 천평-봉화로 이어지고, 낙동강이 이어지는 강 유역을 통해 구문소-봉화지역으로 이어진다. 북쪽으로는 피재를 통해 삼척 하장·정선·강릉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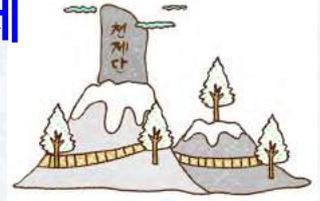
태백지역에서는 사방으로 흐르는 물길이 있기에 이 물길을 따라 사통팔달로 연결된 길이 나 있어 태백을 에워싼 모든 지역에서 태백으로 올 수 있으며, 태백에서 모든 방향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태백산 자락이다. 이와 함께 태백산 자락에는 초기 국가 단계에서부터 천제를 지낸 전통이 있었고, 그 전통은 태백산 천제와 함께 마을 천제로 이어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하늘과 통하는 성지 또한 태백산이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태백산이 지닌 의미, 즉 신성성을 바탕으로 큰 베품을 주며, 외진 곳이면서 사통팔달로 이어진 발길, 물길 그리고 보편적인 종교적 공감대가 충만한 곳이기에 난세를 피할 수 있으면서 희망이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성소임을 잘 보여준다.

김도현, 「김병연 집안이 영월로 온 배경과 의미」, 『제21회 김삿갓문화제 학술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영월문화원, 2018년 10월.

87) 안호진 님 제공(전 태백문화원 사무국장)

III. 태백산 천제단과 천제



1. 태백산천제 연혁

태백산에서의 제의는 주관한 주체나 형식이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나지만, 신라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꾸준히 이어져왔다. 신라 일성이사금 5년(138)에 “...겨울 10월에 북쪽으로 순행하여 몸소 태백산에 제사지냈다...”⁸⁸⁾라는 기록과 『삼국사기』 제사지 중사조에 “오악(五岳)의 하나로 중사(中祀)를 지낸 제장(祭場)으로 하였다”는 기록⁸⁹⁾으로 보아 신라시대에 천신 또는 산신에게 제사지냈다고 볼 수 있다.⁹⁰⁾ 고려시대에는 국가에서 외산제 고사를 임명하여 태백산제를 지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록⁹¹⁾들이 있어 태백산신에게 제사지낸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세조대에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태백산을 동진(東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태백산에서 비록 국가 제사를 지내지 않았지만 민간에서 태백산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고, 이에 지방 관청과 무당들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태백산에서의 제의는 천왕을 모셔 제사지냈음을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성현의 『허백당집』 등을 보았을 때 조선시대 태백산에서의 제사는 일정 부

88) 『三國史記』卷 第一, 逸聖尼師今 五年 十月, 北巡 親祀 太白山.

89) 『三國史記』卷 第三十二 雜誌 第一 祭祀, 中祀 五岳 東吐含山(大城郡), 南地理山(菁州), 西鷄龍山(熊川州), 北太伯山(奈己郡), 中父岳(一云 公山 押督郡).

90) 新羅 逸聖尼師今이 138년에 태백산에서 직접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 제사지낸 것인지, 태백산에 제사지낸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에 天神 또는 山神에게 제사지냈다고 표현하였으며, 이는 향후 다른 지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규명해야할 과제이다.

91) 『高麗史』列傳 17 / 諸臣 / 金方慶

〈九年, 又上箋乞退, 以推忠靖難定遠功臣三重大臣僉議中判典理司事世子師, 仍令致仕, 加僉議令, 封上洛郡開國公, 食邑一千戶, 食實封三百戶, 一日, 乞告上, 王遣子恂, 爲太白山祭告使, 隨之, 至鄉, 爲親舊留數日, 謂曰, 秋稼登場, 民力未暇, 豈可久煩汝爲, 遂還〉



분을 향리들이 주도하면서,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동학을 비롯한 신종교에서 태백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례를 행하였음을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이후에는 대종교 교인들이 태백산 정상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며, 지금은 태백산천제위원회가 결성되어 1987년부터 매년 10월 3일 천제를 지낸다.⁹²⁾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내거나 태백산신을 모신 전통은 태백산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거리 등의 문제로 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백산 줄기가 내려온 산봉우리나 능선 아래에 상당으로 여기는 천제단[천제당 또는 천지단]을 마을 단위로 만들어 천제를 지내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많은 마을에서 태백산과 관련한 당신화가 만들어져 단군을 모시거나 천제를 지내는 예를 발견할 수 있다. 태백산신령을 마을 제당의 주신으로 모셔서 마을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마을 또한 많다.

이들 마을에서는 천신을 인격천으로서의 천신으로 인식하면서 마을신으로 모시는 서낭신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신령으로 여기고 기우제를 지낼 때 모시거나 거리고사를 지낼 때 상당신으로 모신다.⁹³⁾

2. 태백산 천제단

현재 태백산 내의 신앙 공간을 크게 정리하면 당골 입구에 있는 서낭당[부정당으로 여김]에서 시작하여 장승거리, 반재, 만경대 입구에 있는 서낭당을 지나 만경대와 용경, 단종비각, 천제단, 장군단 하단을 거쳐 문수봉에 이르는 넓은 영역이 신성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천제를 위한 실제 종교 공간은 만경대

92) 신라 이래 태백산에서의 제의 전통과 현재 행해지는 태백산 천제에 대하여 다음 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김도현, 『史料로 읽는 太白山과 天祭』, 강원도민일보·강원도·태백시, 2009, 68~112쪽.

93)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90~121쪽.

입구에 있는 서낭당 터부터라고 하며, 여기서부터는 근신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종교 종단은 1987년에 지역 유지들과 제휴하여 당골에 단군성전을 건립하면서 태백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천제에서 분리되어 자체 건립한 단군성전에서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현재 태백산에는 천제와 관련하여 3기의 제단이 있고, 현재의 만경대가 위치한 곳에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태백천왕당(太伯天王堂)·신사(神祠)·태백산사(太白山祠)·천왕당(天王堂)·태백신사(太白神祠)·태백사(太白祠)·천왕사(天王祠)·태백당(太白堂)·구령탑 등으로 일컫기도 하였던⁹⁴⁾ 제단이 있었다.

천제단은 태백산 정상에 자연석으로 쌓아 만든 3기의 제단 가운데 하나로, 장군단과 하단의 중간에 있는 해발 1,560m의 봉우리에 위치한 중심 제단이다.

천제단은 규모 면에서 여느 단과 달리 월등히 크다. 1953년 사진 자료에 따르면 제단의 돌이 흐트러져 방추형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후 정비하여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다. 현재 제단은 자연석 편마암으로 쌓았으며 둘레 27.5m, 높이 2.4m, 폭은 좌우 7.4m, 전후 8.4m의 약간 타원형을 이룬 원형제단이다. 남쪽으로만 계단이 설치되었고 석단 상부에는 제단이 설치되었다. 제단의 앞면 축대에는 「천제단 대종교태백지사근제(天祭壇 大倥教太白支司謹製)」라 새긴 글이 남아 있다. 제단 위에는 높이 76cm, 폭 40cm, 두께 30cm 정도의 ‘한배검’이란 비가 있다.

그리고 태백산 천제단과 장군단 일원에서 2000년 4월 9일 신인수에 의하여 쇠말 네 점이 수습되어, 2000년 11월 30일 국가에 귀속된 후,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네 점 모두 말의 등에 안장이 놓여지고 한 개를 제외하고 꼬리 쪽에 말띠꾸미개가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94) 태백산에 있었던 제당 명칭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음 글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김도현, 『史料로 읽는 태백산과 天祭』, 강원도민일보·강원도·태백시, 2009, 88~98쪽.



장군단은 태백산 정상에 자연석으로 쌓아 만든 3기의 제단 가운데 하나로 중앙에 위치한 천제단에서 북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다. 지도상에서 해발 1,566m의 '태백산'이라 표기되어 있는 봉우리가 장군단이 있는 지점이다. 유일사 방향에서 등산하면 세 개의 제단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단이다. 제단의 높이는 약 2.9m이고, 둘레는 약 20m로 장방형이며 편마암으로 축조하였다. 남쪽으로만 계단을 설치하였고, 내부의 중앙에 70cm 정도의 제단을 쌓았다. 제단 내에는 자연석을 세워 놓았다. 장군단의 신격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단은 태백산 정상에 자연석으로 쌓아 만든 3기의 제단 중 하나로, 천제단 남쪽 언덕 아래로 0.2km 지점에 있다. 부소단(夫蘇壇) 또는 구을단(丘乙壇)으로도 불린다. 별도로 지내는 제는 없으며, 북쪽으로만 계단이 없고 나머지 세 방향에는 모두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제단 꼭대기의 북쪽 면에 45cm가량의 자연석을 세워놓았다. 현재의 모습은 최근에 정비한 것으로 단의 총 높이는 약 190cm, 폭은 약 510cm410cm이다.

태백산 정상에서 500m쯤 아래에 만경대라는 사찰이 있고, 여기에 용정(龍井)이 있어 옛날부터 천제에 올릴 제수(祭需) 준비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만경대 부근에는 '조선국태백산단종대왕비'(朝鮮國太白山端宗大王碑)라는 명문이 새겨진 단종비각(端宗碑閣)이 세워져 있다. 1950년대 중반에 한 무녀의 꿈에 단종이 태백산신으로 현몽하여 세웠다고 한다. 이는 18세기부터 단종이 사후 태백산신으로 좌정하였다는 믿음이 태백산 주변을 비롯해 영월지역 주민들과 무당들 사이에 뿌리 내렸다는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 준다.

태백천왕당·천왕당·천왕사·구령탑이라는 명칭은 모시는 신령을 모두 천왕으로 보는 호칭이며, 구령탑은 천(天)의 9개 분야(分野)인 구천(九天)에서 유래한다. 신사(神祠)·태백산사(太白山祠)·태백신사(太白神祠)·태백사(太白祠)는 태백산의

신령을 위하는 사당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후대 일부에서 부르는 마고탑은 태초(太初)에 천지를 이룩한 거인 할머니가 쌓은 탑이라는 의미로서 천지가 시작된 공간임을 암시한다.

1736년에 쓴 이인상의 「유태백산기」에 당시 태백산 천왕당에 대하여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 천왕당에 도착했다. 통금시간까지 도착하기로 약정했는데 드디어 60리 길을 걸어온 것이다. 천왕당 서쪽 당에는 석불이 있고 동쪽 당에는 목상(木像)이 있는데 이것을 이른바 천왕이라고 한다. ...”

이 자료는 당시 천왕당이 당집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천왕당에 석불과 함께 천왕이라 불리는 목상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천왕당에서의 종교 의례가 불교와 민간신앙이 공존하는 형태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태백산 정상부 바로 아래에 있는 만경대 옆 산기슭에 고려시대 불상으로 추정되는 석불과 대좌가 파손된 채 발견되었다. 심의승의 『삼척군지』와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기록을 종합하면 만경대 터에 태백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만경대 옆에서 발견된 석불과 대좌가 당시 태백당(천왕당)에 모셔졌던 석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태백산 천제단 전경



태백산 천제단 내 제단과 위패



태백산 장군단



태백산 하단



태백산 만경대 전경[옛 천왕당 태]



태백산 만경대 내 석조 대좌편

3. 태백산천제의 전승 양상

태백산에서의 제의는 주관한 주체나 형식이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나지만, 신라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중 천제를 지낸 전통 또한 그 연원이 매우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동학을 비롯한 신종교에서 태백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례를 행하였음을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이후에는 대종교 교인들이 태백산 정상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며, 지금은 태백산천제위원회가 결성되어 1987년부터 매년 10월 3일 천제를 지낸다.⁹⁵⁾

95) 김도현, 『史料로 읽는 太白山과 天祭』, 강원도민일보사·강원도·태백시, 2009.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내거나 태백산신을 모신 전통은 태백산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거리 등의 문제로 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백산 줄기가 내려온 산봉우리나 능선 아래에 상당으로 여기는 천제단[천제당 또는 천지단]을 마을 단위로 만들어 천제를 지내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많은 마을에서 태백산과 관련한 당신화가 만들어져 단군을 모시거나 천제를 지내는 예를 발견할 수 있다. 태백산신령을 마을 제당의 주신으로 모셔서 마을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마을 또한 많다.

이들 마을에서는 천신을 인격천으로서의 천신으로 인식하면서 마을신으로 모시는 서낭신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신령으로 여기고 기우제를 지낼 때 모시거나 거리고사를 지낼 때 상당신으로 모신다.⁹⁶⁾

가. 모시는 신령(神靈)

1937년에는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이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고 1938년 6월 15일(음력 5월 7일) 이튿날에 독립기원제를 지냈다고 한다. 1938년 기록에 따르면 제단을 설치한 후 28수기[宿旗]를 비롯한 각종 깃발과 제수를 준비하여 천제를 지냈다.

1949년에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시멘트 단과 한배검의 비석은 없었다. 그리고 제단은 구단탑(九段塔)이라 하여 아홉 단(段)으로 쌓아 올렸다. 그 주위에는 33천기(天旗)와 28수기를 꽂고, 단의 중앙에는 태극기와 구성기(九星旗) 또는 칠성기(七星旗)를 세웠다. 제물도 아홉 종류였다.

1949년에 작성된 최익한의 수기에 따르면 당시 태백산제는 10월 3일 자시를 기해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왕당에서 거행하였다. 이 때 중앙에는 태극기, 중간에는 칠성기와 현무기를 각각 꽂고 주변에 33천기와 28수기를 배치하였다.

96) 김도현, 『史料로 읽는 太白山과 天祭』, 강원도민일보사·강원도·태백시, 2009.



1987년 태백산 천제위원회가 결성되어 천제를 주관하면서 천제단 내부에 해·달·북두칠성을 그린 기를 세워 놓았다. 동쪽에 세운 해 깃발 안에는 삼족오, 서쪽에 세운 달 깃발 안에는 토끼 그림을 각각 그렸다. 이와 같이 해와 달을 그린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도상이다. 이와 함께 대종교에서 만든 천제단 위에는 돌로 만든 위패에 한배검이라 음각하여 모시고 있다. 제단 외곽에는 28수기와 각종 염원을 쓴 깃발을 세웠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태백산천제에서 모신 신령은 한배검 즉, 천신(天神)이며, 천제를 지낼 때 하늘을 상징하는 해·달·별을 깃발 형태로 주위에 둘러서 외호하는 형태로 모셨다고 볼 수 있다,

나. 제관

태백산 천제는 1987년에 ‘태백산 천제 위원회’가 결성되어 각종 준비와 의례를 주관하여 지내다가 2008년에 명칭을 ‘천제 보존회’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제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2008년에 천제를 주재한 인사는 제주[태백시장], 현관[태백시의회의장·태백문화원장], 번시관, 집례, 축관, 집사이다. 실무 준비는 태백문화원에서 주관하며, 매년 10월 3일 천제단에서 오시(午時)에 지낸다.

다. 제수(祭需)

신라와 고려시대에 태백산에서 행한 국가 제사에 올린 제수를 현재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시대에 태백산에서 제사지낸 이들이 준비한 헌공물인 소(牛)에 대한 기록은 성현의 『허백당집』 신당퇴우설과 허목의 『미수기언』 퇴우조에서 각각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태백산신이라는 것은 무슨 신인가? … 삼도(三道)의 사람이 산꼭대기에 당

(堂)을 짓고, 상(像)을 설치하여 제사지낸다. 해마다 왕래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제사를 마치면 각자 신이 앉은 자리의 앞에 소를 매어 놓고, 허겁지겁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 말하기를 “만약 돌아보면 신이 공손치 않음을 알고 죄준다.”고 한다. 3일이 지난 뒤에 주군(州郡)에서 이를 거두어 쓴다. 이름하여 ‘퇴우(退牛)’라고 한다. …

… 원근에서 태백의 신을 다투어 섬기는데 무릇 제액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를 사(祠) 아래에 바치고 기도의 말을 끝낸 뒤 곧 바로 일어서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다. 뒤돌아보면 소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고 귀신이 흠향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와 가축이 사(祠) 아래에 가득차면 산 아래 사람이 죽여서 먹어도 재액이 없었다. 이를 ‘퇴우’라고 한다. 관부에서 이를 듣고 감고를 정하여 날마다 관에 바치게 했다. 읍 사람들이 소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자 지금의 산승(山僧) 충학(沖學)이 그 사(祠)를 불 질러 요망한 사가 이에 없어지고 인하여 헌우(獻牛)의 일도 없다. 감고도 또한 폐하였다. …

위의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에 태백산에서 개인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구체적으로 준비한 제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소를 헌공한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1949년에 작성된 최익한의 수기에 의하면 당시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에서 행한 태백산제는 10월 3일 자시(子時)를 기해서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왕당에서 거행하였는데, 중앙에는 태극기를, 중간에는 칠성기와 현무기를 꽂고 주변에는 33천기와 28수기를 배치하였다. 제기는 봉화군 춘양의 유기점에서 81개를 맞추어 1회만 사용했다. 모든 참제자는 저녁에 등정하여 천제를 모시고 아침에야 하산했다. 제관은 모두 흰색 도포를 입었다. 참제할 사람은 1년 전부터 일체의 부정을 가리고 심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제물은 모두 날것으로 했는데, 아홉 종류의 제물을 아홉 벌 장만했다. 곧 81개



의 제물을 올린 셈이다. 청옥, 청송엽, 금, 은, 진주, 백미[靑玉, 靑松葉, 金, 銀, 珍珠, 白米] 외에도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2종류가 더 있었다.⁹⁷⁾

2008년 태백산 천제를 위해 준비한 제수는 천주[가양곡왕주], 소머리, 오곡[쌀·보리·콩조·기장], 고사리, 미역, 대구포, 밤, 대추, 꽃감, 백설기[1시루], 삼베, 물이며, 이와 함께 한라산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산에서 가져온 흙을 각각의 주머니에 담아 올린다. 물은 태백산 정상 아래에 있는 용정의 물을 이용한다. 메는 준비하지 않으며, 소머리와 떡을 제외하고 다른 제수는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



태백산 천제에 따른 제수 진설.(2008년)

라. 제의 과정

신라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태백산에서 행한 의례 과정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록이 없어 현재 알 수 없다. 그러나 1937년의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의 활동이 현재 행해지는 태백산 천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고 독립 기원제를 지냈다. 1938년 6월 15일(음력 5월 7일)에 윤상명·최익한·유형호·유형남·이

97) 임동권, 「태백산천제 조사 보고서」, 1993.

창순·이금손·주인섭·고병월 외 18명의 교도들을 중심으로 탑을 쌓았다. 6월 16일(음력 5월 8일) 오전 0~3시 사이에 독립 기원제를 지냈는데, 이때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28수기·팔만기·오행기·일월성신기·구령기 등을 세웠다. 이러한 의례는 현재 태백산 천제의 모습을 갖추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전통을 바탕으로 현재 태백산 천제를 매년 10월 3일 오시(午時)에 지내는데, 구체적인 제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1987년부터 태백산 천제 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천절에 지낸 천제 순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영신굿: 풍물패가 영신을 위해 풍물을 울리며 천제단 앞에서 영신 맞이굿을 한다.
- 천황굿 사설 구송: 박용문 외 10명으로 구성된 태백문화원 문화학교 동문들이 천황굿 사설을 구송한다.
- 개의(開儀): 집례가 천제의 개의를 알린다.
- 번시례(燔柴禮): 초의를 입은 번시관이 쭉을 들고 등단하여 화로에 쭉을 태워 잡귀를 쫓고 천제를 하늘에 알린다.
- 강신례: 집사의 인도를 받은 제주는 관세위에서 손을 씻고 닦고 등단하여 천제단 앞에 꿇어앉는다. 향을 사르고 천잔에 술을 따라 제단 앞에 부어 신을 내리게 하는 의식으로, 제주는 9번 절한다.
- 참신례: 제주는 봉작에게 받은 천잔에 술을 부어 천단에 올리고 제주이하 모든 참제원들은 9번 절을 한다.
- 전폐례: 제주는 봉지들로부터 받은 폐백[삼종천·오곡천수]을 천단에 바친다.
- 진찬례: 제주는 봉찬들로부터 받은 제례 음식물[천채·천소·천과·희생 등]



을 천단에 올린다.

- 고천례: 축관이 제주 옆에 꿇어앉아 고천문을 봉독한다. 이때 제주 이하 모든 참제원들은 꿇어 엎드린다.
- 현작례: 아헌관이 인도되어 관세위에서 손을 씻고 등단하여 천향을 피우고 천잔을 올린 다음 9번 절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후 종헌관이 인도되어 관세위에서 손을 씻고 등단하여 천향을 피우고 천잔을 올린 다음 9번 절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 송신례: 제례의식이 끝나고 신을 배웅하는 의식으로 제주가 다시 등단하여 천향을 피우고 초자로 모든 천잔에 천주를 세 번씩 침작을 한다. 그리고 제주 이하 봉향봉작들은 천단에서 내려와 제자리로 가서 서고 이어서 제주 이하 모든 참제원들은 9번 절한다.
- 음복례: 천단에 바친 제물을 내려 골고루 나누어 먹는다.
- 망료례: 제주는 희생의 귀를 잘라 망료대로 나아가 망료를 한다.
- 소지례: 신령 앞에서 비는 뜻으로 한지를 불살라서 하늘에 올리는 의식으로 제주 이하 모든 참제원은 차례로 등단하여 소지를 올린다.



태백산천제에 앞서 진행된 천무(2008년)



태백산천제를 지내기 위해 천신을 모시는 과정 (2008년)



태백산천제 중 번시례(2008년)



태백산천제를 지내기 위해 봉지들이 제수를 옮김 (2009년)



태백산천제 중 강신례에서 제관이 절을 함(2008년)



태백산천제 중 고천례(2009년)



태백산천제 중 음복례(2009년)



태백산천제에서 제관들이 소지를 마친 후
참례원들이 소지를 올림(2008년)



4. 태백산천제가 지닌 의미

고대국가 단계에서부터 중요하게 모셨던 태백산신을 위한 제의는 개인 또는 마을 단위 산신제, 고갯마루 산신제, 또는 단종을 태백산신으로 여겨 모시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태백산에 설치된 제당을 ‘태백천왕당, 천왕당, 천왕사(太伯天王堂, 天王堂, 天王祠)’라고 한 것으로 보아 태백산사(太白山祠)는 천왕당(天王堂)이고, 태백사(太白祠)는 천왕사(天王祠)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당 명칭을 통해 태백산에서 천신 또는 산신의 감응을 받은 ‘천왕(天王)’이라 불리는 신령을 모신 제의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태백산에서 천왕을 모셨던 전통은 한말~일제강점기를 지나 ‘단군’을 모시는 제의와 조상신을 위하는 산맥이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태백산에서의 제의를 ‘천신(天神)을 모신 천제(天祭)’로 대부분 인식하고 규정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큰 베품을 바탕으로 신성함이 깃든 태백산에서 하늘을 관장하는 최고의 신령이기에 특정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때 천신을 모셔 독립기원제를 지내면서 태백산천제를 지내는 전통이 확립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강원도와 경상도의 지원에 의해 전승되다가, 1987년 태백산천제위원회가 결성되어 매년 개천절에 천제를 지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태백산 전체를 아우르는 산신제가 조선시대에 폐지된 이후 태백산을 대표하는 제의 전통이 단절되었으나, 1938년에 지낸 천제를 계기로 태백산을 대표하는 제의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더하여 태백산 천제와는 별개로 태백산 권역에서 초기 국가 단계에서부터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 단위 천제, 개별 신종교나 산당에서 행하는 천제도 전승되고 있다.

신라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태백산에서 행한 제의를 고려·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마리산 참성단에서 행해지는 제천례 일부 요소와 비교를 통해 태백산천제가 지닌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백산에서 국가 주관 제의 과정에 모신 신령은 신라와 고려시대에 태백산신을 모셨으며, 조선시대에 민간에서 천왕(天王)을 모셨는데, 이를 관에서 관리하는 형태였다. 마을 천제와 개인 신당에서 천신을 모신 사례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그 전통은 초기 국가 단계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의 과정에서 강화도 참성단에서는 도교의 신들을 제사의 대상으로 받들어 지방(紙榜) 형태로 모셨으나, 태백산 천제단에서는 하늘을 상징하는 해·달·북두 칠성과 28수기를 깃발로 만들어 모셨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신라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태백산에서의 제의 장소가 어떤 형태였는지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에 작성된 유산기에 소개된 내용으로 보아 해당 형태였음을 알 수 있고,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현재와 같이 돌로 쌓은 제단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마리산에서는 돌로 쌓은 제단 형태의 참성단이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도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태백산에서 제의를 주관한 제관은 고려시대까지 왕이나 국가에서 파견된 관리가 주관하였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국가제장 선정에서 탈락됨으로써 향리나 민간인이 제의를 주도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마리산 참성단에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파견하여 제의를 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태백산 천제단과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서의 천제를 주관하는 이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다.

넷째, 조선시대까지 태백산에서의 제의에 올린 제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소를 헌공한 사례는 많다, 1987년부터 태백산천제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지



낸 천제에 올린 제수는 조선시대에 소와 삼베를 헌공한 전통을 살려 소머리와 삼베를 올리며, 백설기와 소머리를 제외한 모든 제수는 생으로 올린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마리산 참성단에서는 조선시대에 도교의 제사에서와 같이 차·탕·술과 떡을 준비하여 올렸으며, 국가에서 제수 등을 준비하기 위한 별도의 제전(祭田)을 내려주었다는 점은 태백산지역과 다른 점이다.

현재 마리산 참성단에서의 제의에 올리는 제수는 태백산 천제단에 올리는 제수와는 달리 대부분 조리한 제수를 올리며, 소머리를 올리지 않는다. 하늘에 대한 제사라 하더라도 올리는 제수는 지역적 특징이나 종교 의례 전통에 따라 차이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두 지역 나름의 특징이 제수에서도 일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의례를 행하는 시간은 두 지역 모두 자시에 지냈으나, 지금은 낮에 지낸다. 절차는 태백산에서의 제의 절차에 대하여 조선시대까지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 없다. 1987년부터 매년 10월 3일 오시에 지내는 태백산 천제는 이 지역 나름의 무속식과 유교식 의례를 적절히 융합하여 만든 절차에 따라 지낸다. 이에 비해 조선시대에 마리산 참성단에서 행한 의례 과정은 각종 기록을 통해 그 대략을 알 수 있다. 특히 1511년 유승조에 의해 운마락(雲馬樂)을 벌였다는 점은 태백산과 비교되는 점이다. 1982년 하늘에 제사지낸 전통을 부활한 이후 1997년 공식적으로 참성단에서의 제천행사를 부활하면서 지낸 개천대제 과정은 유교식 절차를 근간으로 제천례를 행한다.

현재 태백산 천제에서는 28수기와 함께 ‘세계평화, 민족통일, 국태민안, 우순풍조, 민족의 영산 태백산, 태백산 천제, 대한민국 천제’(世界平和, 民族統一, 國泰民安, 雨順風調, 民族의 靈山 太白山, 太白山 天祭, 大韓民國 天祭]라고 각각 쓴 깃발을 만들어 배치하였는데, 이 깃발은 태백산에서의 천제(天祭)를 통해 기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서는 제천례를 마친

후 국운의 번창과 태평시대를 기원하며 성화를 재화한다. 기원하는 바는 유사하다 볼 수 있으나, 방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태백산은 구국의 성지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동학을 만든 최제우 사후(死後) 동학교도들이 태백산 권역에 모여들면서 태백산은 민족의 종산으로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었다. 특히 신종교가 일어나면서 신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태백산으로 모여들어 천신에게 제사 지냈다. 신흥종교 중에서는 1937년의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의 활동이 주목된다.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고 독립 기원제를 지냈다. 이러한 활동은 태백산이 지닌 민족의 영산이라는 관념 속에서 구국(救國)의 성지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구국을 위한 의례가 행해지면서 태백산에서의 제의는 천제(天祭)의 형식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내거나 태백산에서 민간 치성을 드리던 전통은 태백산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태백산에서 제사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백산 줄기가 내려온 산봉우리나 능선 아래에 천제단[천제당 또는 천지단]을 만들고 마을 단위로 천제를 지낸 사례들도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도교에 기반을 두면서 국가 제사로 행해진 마리산에서의 제천의례와 구분되는 점이다.

하늘에 제사지낸다는 점에서는 태백산 천제단이나 마리산 참성단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제의 장소다. 그러나 그 역사적 연혁이나 의례 과정,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등에서는 구분되는 점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다른 지역의 제천의례 자료에 대한 좀 더 치밀한 조사와 분석·비교를 통해 태백산 천제가 지닌 기능과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천 장소로서의 태백산이 지닌 신성성을 부각시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천의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태백산 자락에서의 마을 천제 전통

1. 마을 천제 개요

최고 신령으로서의 천신(天神)이 포함된 제사인 천제(天祭) 또는 제천(祭天)이라 불리는 하늘(天)에 대한 제의(祭儀) 사례 중 마을 천제(天祭)는 전국 각지에서 간헐적으로 보이는 마을 단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이 함께 지낸 천제이다.

즉 천제는 개별 마을 단위로 지내는 사례도 있으나, 마을 단위 제의보다 그 위상이나 제의 동참 범주, 의미가 더 확장된 형태의 천제를 지내기 위해 매년 또는 수년에 한 번씩 하위 마을들을 모두 동참시켜 설행하는 사례도 많다. 단위 마을 모두를 아우르는 천제를 지낸 이유는 개별 마을에서 종교 의례를 통한 역병이나 우질 구축, 가뭄 극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하위 마을을 모두 아우르는 제의를 행할 사회적·문화적 필요성으로 인해 마을에서 모시는 신령보다 상위 신령으로 여겨지는 천신을 모셔서 마을 주민들의 종교적 염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을 천제가 지닌 위상과 기능을 중심으로 전승 양상을 살펴보면, 상당으로 기능하는 천제, 마을신앙 구심체로 기능하는 천제, 개별 마을 단위 천제, 각종 역질 구축을 위한 천제, 기우(祈雨)를 위한 천제로 분류할 수 있다.

천신을 상당신으로 모신 유형은 마을신앙 구조가 상당과 하당, 또는 상·중·하당으로 구분되어 마을 제사를 지내는 마을에서 최고 신령인 천신을 상당인 천제당(천제단)에 모신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연결되는 하위 마을들을 모두 아우르는 구심체 기능을 하는 천제당은 관련 마을들을 대표하는 중심 마을의 제당이다. 이에 하위 마을 대표들이 천제당에 모여서 마을 천제를 지낸 후 하위 마을 단위로 마을 제사를 지내기에 상하 위계를 보

여주는 유형이다. 이에 해당하는 천제당은 같은 생활권 또는 문화권에 속한 하위 마을들이 천제를 통해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 유형에 속한 천제 중 천신과 함께 산신을 모신 사례도 있다. 그 이유는 산신에 의탁하여 종교적 염원을 달성하려는 목적보다는 천신이 좌정한 천제당이 위치한 곳을 관장하는 산신을 위한 의례로 볼 수 있다.

개별 마을에 위치한 천제당에서의 마을 제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신(主神)으로 천신(天神)을 모신 마을이 있지만, 마을 제사를 지낼 때 천신을 모시지 않고, 성황·토지·여역신을 모시거나 당산할아버지, 당산할머니 등 마을 주민들의 종교적 염원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신령들을 모신 마을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제의 공간이 천제당 임에도 불구하고 천신을 모신 천제를 지냈다고 볼 수 없다. 이와는 달리 단위 마을에서 천신을 주신(主神)으로 모시고, 개별 기능을 담당하는 산신, 성황신 또는 여역신 등을 함께 모시거나, 하위 제차인 거리고사에서 상위 신령으로 천신을 모신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마을이 분화되면서 천제당 중심의 마을 신앙 전통이 무너진 후 이곳을 단위 마을의 제당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기우제 또는 천제라고 한다. 즉 농촌에서 비가 안 내려 한발(旱魃)의 피해가 극심해지면 기우제를 천제단에서 지내기도 하였는데, 삼척시 동할리를 비롯하여 많은 마을에서 이를 ‘천제(天祭)’라 하였다. 이를 통해 천제당이 기우를 위한 제당의 역할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을 천제는 역질 구축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천제,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금한동 천제,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화개산의 천제단에서의 제의,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독미산 천제당에서의 제의,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마을 제의 중 거리고

사에서 상당신으로 천신을 모신 사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을 천제는 개별 마을, 또는 연결성을 지닌 다수의 하위 마을 주민들이 1년 또는 수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천제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기우(祈雨), 역질(疫疾) 구축(驅逐) 등 특정 영역을 관장하는 신령들이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종교 기능을 담당하는 최고의 신령인 천신을 마을에서 모신 제의(祭儀)가 마을 천제(天祭)이다.

2. 전승 양상

가. 태백시 함백산 절골 천제

1) 개요

함백산 절골 천제당(天祭堂)⁹⁸⁾은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5통 절골로 들어가는 길의 옆에 있다. 천제당이 처음 건립된 것이 조선 현종대를 전후하여 만들어 졌다고 전하나⁹⁹⁾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는 없다. 다만 이 지역에서 3대째 살고 있는 김영진 님의 증언에 따르면 선대 할아버지 때부터 이곳에 천제당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100년 이상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자리는 절골 입구 철로로부터 약 2.8km 지점의 하천 오른쪽 옆 바위 밑에 있었는데, 이 때 작은 건물의 형태로 있었다고 한다.¹⁰⁰⁾ 이후 이곳 옆에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섬 입구 자락으로 옮겼다. 처음에는 능애집¹⁰¹⁾이었으나 1967

98) 이 天祭堂에 대한 기초 조사는 지난 1967년 문화재 관리국에서 주관하여 장성을 황지중앙초등학교에 근무하였던 金鍊洙 선생님의 의해 이루어졌다.(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 편)』, 1997, 526~527쪽.) 그리고 함백산 천제당과 관련한 위의 글은 다음 논문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김도현, 「태백시 咸白山 절골 天祭堂 운영 양상과 그 성격」, 『강원문화연구』제28집,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09.

9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 편)』, 1997, 527쪽.

100) 김영진(69) 님에 따르면 선대에 이와 같이 있었다고 한다.

101) 너와집을 이르는 것으로 지붕을 붉은 소나무 조각으로 덮은 집이다. 강원도에서 느에집 또는 능애집이라고도 한다. 너와는 200년 이상 자란 붉은 소나무 토막을 길이로 세워 놓고 뼈기를 박아 쳐서 잘라낸

년 3월 주민들이 루핑 집으로 개조하였다고 한다. 이 때는 천제당 주변에 신목(神木)이 우거져 있고, 그 앞으로 맑은 냇가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¹⁰²⁾



함백산 절골 천제당 원터 전경



함백산 절골 천제당 원터 근경

이후 1970년대 들어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각 마을에 있는 각종 마을제당을 없애는 정책을 취함에 따라 건물이 헐리게 되었다. 건물이 헐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매년 삼월 삼진날 당제를 거행하였다.¹⁰³⁾ 이후 수해로 인해 천제당 자리가 심하게 파손되어, 1995년 5월 21일 마을 대표와 심적사 주지스님 등 6명이 옮겨 짓기 위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낸 성금과 김시돈 씨의 토지 사용 승인으로 현재의 위치에서 천제당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동년 7월 23일(음력 6월 26일) 현재의 터¹⁰⁴⁾에 천제당을 완성한 후 이곳에서 제(祭)를 올리게 되었다.¹⁰⁵⁾

널쪽으로,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가로 20~30cm, 세로 40~60cm이며 두께는 4~5cm이다.

10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 편)』, 1997, 526~527쪽과 김영진(69세) 님의 진술.

103) 김부선 님(71세), 박분이 님(70세), 김영진 님(69세)의 진술에 의함.(2007년 조사)

104) 원래 자리에서 골짜기 쪽으로 약 550m 올라간 지점임.

105) 천제당 건립 과정에 대하여 안덕헌(64세) 님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천제당 이 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07년 조사)

- 1995년 5월 21일 심적사 주지스님, 마을 대표 5명이 이건축진 위원회 결성.

- 1995년 5월 26일 손대헌, 안덕헌 씨가 현재의 자리를 답사한 후 땅 주인인 장사장과 김시돈 씨에게서 토지 사용을 허락받은 후 성재수 철학관에서 6월 9일, 18일 날짜를 받아들음.

- 1995년 6월 9일 절골 모란노인정에서 황치 3동 6, 7통 주민들을 대상으로 천제당 이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회의를 개최했는데, 32명의 주민이 이전 건립에 동의하는 서명을 함.



천제당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는 지금도 개인적인 치성을 올리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1967년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내부에 제신도(祭神圖)가 달려져 있고, 간단한 제단이 있었으며,¹⁰⁶⁾ 신목(神木)으로 높이 14m, 둘레 3m의 소나무 1본(本)이 있었다고 한다. 이때도 당이름은 천제당이였다.

현재 위치에 있는 천제당은 슬레이트 맞배형 지붕으로 된 건물로서 가로 395cm, 세로 336cm, 높이 330cm의 한 칸으로 된 제당이다. 제당 내부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제단이 있고, 제단 정면에 ‘상천 신위(上天 神位)’, ‘함백산신령위(咸白山神靈位)’라 적힌 신위(神位)와 각각의 신위 오른 쪽에 명주실과 한지를 걸어두었다. 출입문은 이중 구조로서 외문(外門)은 쌍여닫이 나무문이고, 내문(內門)은 쌍미닫이 창호문이다.

제당은 북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오른쪽에 천제당 건립과 함께 세운 장승[천하 대장군, 지하여장군]이 있고, 사방으로 금줄을 둘러놓았다. 제당 앞에는 절골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으며, 도로 건너편에 계곡물이 흐른다. 그리고 천제당 왼쪽 산기슭 쪽으로 가건물로 만든 개인 기도처가 있고, 올라가는 나무에 예단으로 한 지를 명주실로 묶어두었다.

천제당에서 모시는 신(神)은 천신(天神)과 성백산 신령(咸白山 神靈)인데, 태백 지역에서 천신(天神)을 모시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¹⁰⁷⁾

-
- 이후 천제당 건립을 위해 찬조금을 받았는데, 140명의 주민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내었고(275만 2,000원, 돼지 1마리), 16명이 콘크리트, 목재를 비롯한 각종 자재와 차량, 식사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주민 20명이 1일에서 최장 10일간 공사 현장에서 인력을 제공하였다.
 - 1995년 7월 23일(음력 6월 26일) 오시에 준공식을 하였는데, 찬조금으로 72만 8,000원을 받았다.

106) 이에 대하여 김분선 님(71세), 박분이 님(70세)의 진술에서도 원래 자리에 있던 제당에는 호랑이에 앉아있는 신선을 그린 산신도가 있었고, 외벽이 합판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였다.(2007년 조사)

107) 태백지역에서 天神을 모시는 예는 장성동의 백산리에서 天祭堂을 건립하여 蓮花山 신령과 天神을 모시고 있고, 태백산 天王堂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곳 황지 3동 절골 입구의 천제당에서 天神

그리고 이 천제당의 창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한다.¹⁰⁸⁾

신라(新羅) 문무왕시(文武王時) 서역기원(西曆紀元) 670년대[1300년 전]에 지금의 사곡동(寺谷洞) 유곡(幽谷)에 윤필(尹必) 거사(居士)가 입산(入山) 수도(修道) 하였고[기거소(其居所)를 상심적(上深寂)이라 함] 다음 원효대사(元曉大師)께서 대각(大覺)을 얻었다 하여 의상조사(義湘祖師) 역시 이곳에서 도통(道通)하였던 바 당시 그 자리에 심적사(深寂寺)가 있었으니 현재도 그 흔적(痕迹)이 희미하나 마 남아 있어 제정일치시대(祭政一致時代)의 유물로서 전해오며 그 본당사지(本堂寺址)에 천제당(天祭堂)을 이룩함.

이곳이 절골이고 계곡 아래쪽에 신라 탑으로 추정되는 탑재가 발견된 본적사지(本寂寺址)가 있으며, 계곡 안쪽으로 은적(隱寂)·묘적(妙寂)·심적(深寂)이 있었다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척주지』(陟州誌) 허목(許穆)의 기록으로 보아 위의 전설은 마을신앙의 처소를 불교에 가탁하려 한 전설이라 볼 수 있다.



함백산 절골 천제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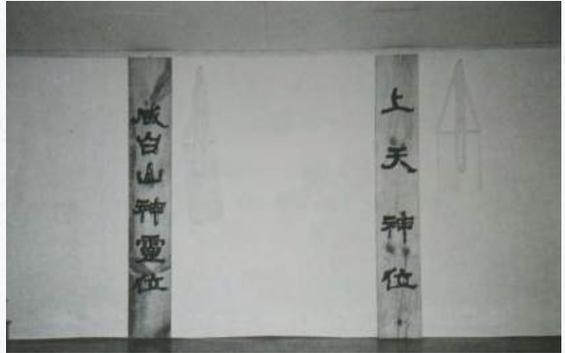
함백산 절골 천제당 근경

을 모신 경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咸白山 神靈을 모시는 곳은 소도동의 소룻골 서낭당과 어평 서낭당, 함백산 서낭당, 서학골에 있는 산신당, 삼수동 절골 입구에 있는 서낭당 등이다. 함백산 자락에 있는 마을에서 주로 함백산 산신령을 모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동대 박물관 외, 『太白市の 歴史와 文化遺蹟』, 관동대 박물관·태백시, 1997, 262쪽. 임동권 외 2人 共著, 『태백산 민속지』, 민속원, 1997, 45~53. 112쪽.

10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 편)』, 1997, 527쪽.



함백산 절골 천제당 전경



함백산 절골 천제당 근경



함백산 절골 천제당 전경



함백산 절골 천제당 근경

2) 함백산 절골 천제당 제의(祭儀)

① 제의 양상(祭儀 樣相)

함백산 절골 천제당에서의 제의는 음력 3월 3일 오전 10시경에 지내고¹⁰⁹⁾, 제관은 생기복덕을 보고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¹¹⁰⁾ 2003년 당제에서는 초헌관 이만생, 아헌관 이운호, 종헌관, 축관 김영진이 하였고, 제수 준비는 통장인 안덕현이 하였다.

109)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 편)』에는 삼월 삼짇날 오시에 지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삼월 삼짇날에 지내는 예가 많지 않는데, 삼척지역에서는 도계읍 발리리[산신당], 삼척읍 도경1리 2반[천제당], 원덕면 풍곡3리[성황당]에서 이날 지낸다.

110)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 편)』의 기록에는 제관으로 초헌, 아헌, 종헌, 제수를 **연령과** 상합하여 깨끗한 남자로 선발한다고 하였다.

삼수동 5, 6통 주민들이 약 200여 가구인데, 이 중에서 제(祭)를 지내는데 참여하는 가구는 100여 명으로서 통장들이 제사비용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걷는다. 보통 자발적으로 성의껏 내는데 매년 약 100만 원 정도 걷힌다. 이 자금은 전부 제수 준비와 제의가 끝난 후 거행되는 마을 잔치에 사용된다. 2003년 삼월 삼짇날 고사에서는 제사비용이 약 120만 원 걸려서 운영되었다.¹¹¹⁾

제수 준비는 통장들이 하는데, 2003년에는 안덕현 통장님 댁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1967년에 준비한 제수는 술·흰떡·흰밥·돈육·과실이었는데, 요즘에는 술[양조장에 주문], 메 2그릇¹¹²⁾, 소머리, 대구포, 과일, 삼색 나물, 탕, 백설기¹¹³⁾를 준비하여 올린다. 전에는 소머리 대신 소 간, 돼지고기를 쓰기도 하였다고 한다. 특별히 금기하는 음식은 없으나 개고기와 끝에 ‘치’ 자가 들어가는 생선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제물은 모두 조리를 하여 제상에 올리는데, 제기는 마을 공동 제기를 사용한다.

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를 지내기 전 약 7일에서 10일 전에 도가집과 천제당을 청소를 하고, 금줄을 쳐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한다. 2일 전에는 통장님들이 중심이 되어 걸립된 기금으로 제수를 마련한다. 이 때 상갓집에 다녀왔거나, 개고기를 먹은 사람은 도가가 될 수 없고, 도가집이나 제당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삼월 삼짇날 오전 9시 10시 사이에 제의를 거행하는데, 전에는 부정풀이를 하였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먼저 한지와 명주실을 제단 위에 각 위패별로 오른쪽에 걸고, 제수를 진설한다. 이 때 제수는 메와 술잔을 제외하고는 한 상만 차린

111)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 편)』의 기록에는 주민 약 500여명 정도가 堂祭에 참여하였는데, 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어 총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祭費로 祭需를 준비하였다고 한다.

112) 3년 전까지 天神, 咸白山神, 수부지신을 위해 메 3그릇을 준비하였다고 함.

113) 쌀 40되를 하는데, 시루째 제단에 올린다고 함.



다. 순서는 ‘초헌 - 독축 - 아헌 - 종헌 - 소지(燒紙) - 음복’ 순인데 일반적인 서낭고사(유교식) 방법과 유사하다. 전에는 공식적인 제의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잔을 올렸으나, 지금은 통장님이나 참여한 개인이 제사비용 납부자를 위해 건강과 가정 화목, 경제적 번성을 기원하며 소지를 올려준다.

전에는 여자와 상가에 갔다 온 사람이나 개고기를 먹는 등의 부정이 없는 남자들은 희망자 전원이 제의에 참여하였으나, 지금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마을공동회관에 모여 마을잔치를 준비하고, 제관과 통장들만 제의에 참여한다.

당제가 끝난 후 결산을 하고, 진설된 음식을 모두 거두어 마을회관에서 미리 준비한 술과 안주, 음료로 마을잔치를 연다.

축문은 한국전쟁 이전에 제작한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1년간 가정과 개인의 평안, 하늘로부터 오는 재액의 소멸, 건강, 농업 풍요 등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유(維)

세차(歲次) 년(年) 삼월(三月) 삭초삼일(朔初三日)헌관(獻官)

감소고우(敢昭告于)

상천신위(上天神位)

산신령신위(山神靈神位)

진자일방 천유여세 기명차령(鎮茲一方 千有餘歲 旣明且靈)

기무불응 고유필지 당차신춘(祈無不應 告有必知 當此新春)

유아중민 제성앙축 일년안태(惟我衆民 齊聲仰祝 一年安泰)

천재개소 백복병지 자연길일(天災皆消 百福並至 茲涓吉日)

감천생폐 복유(敢薦牲幣 伏惟)

존령(尊靈)

물구비성 강차신령 삼농등풍(勿咎菲誠 降且神靈 三農登豐)

육축번식 여귀악수 비도잡류(六畜繁殖 厲鬼惡獸 匪徒雜類)

불입경내 전해수다 감망신덕(不入境內 前惠數多 敢望新德)

격사사흠사 상(格事斯欽事 尙)

향(饗)

② 함백산 절골 천제당(天祭堂)과 제의(祭儀) 성격

이 지역에서 천제는 그 기능과 마을 내 다른 신령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으로서의 사례, 천신을 다른 신령들과 같이 모시면서 마을신앙의 처소로 기능하는 사례, 산신령과 함께 모신 사례, 비밀상적으로 기우를 위해 천제를 지내는 사례,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내기에 여건이 좋지 않아 천제단을 마을 내에 만들어 망제 형태의 천제를 지내는 사례, 거리고사에서 상당신으로 모셔진 사례 등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백산 절골 천제당은 천신(天神)을 산신(山神)과 함께 모신 유형¹¹⁴⁾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속하는 사례를 소개하면, 삼척시 도계읍 점리에서 천신(天神)과 함께 ‘산신(山神)’·‘지신(地神)’을 모시며, 태백시 백산동 번지당골 천제당에서는 ‘연화산 신령’을 함께 모시고 있다.

함백산 절골 천제당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위치, 제당 형태, 모시는 신격(神格), 제일(祭日), 제물(祭物)과 그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4) 이들 마을에서 함께 모셔지는 신령은 주로 제당이 위치한 主山の 山神靈을 天神과 함께 모시고 있다.



첫째, 이 지역 천제당의 위치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태백산 천제단의 영향으로 태백산 줄기가 끝나는 능선의 아래쪽에 위치한 것, 하천 옆이나 하천 중간에 형성된 섬 내부에 위치한 것, 산 중턱 쪽에 계곡물이 ‘Y’ 자로 만나는 곳 내부에 위치한 것, 산 중턱에 위치하여 마을을 내려다보는 곳에 위치한 것, 산 정상부나 그 아래에 위치한 것 등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함백산 절골 천제당은 하천 옆이나 하천 중간에 형성된 섬 내부에 위치한 유형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삼척시 원당동 천제, 노곡면 하월산리 천제, 가곡면 동활리 천제단, 가곡면 풍곡리 덕풍 천제단, 태백시 삼수동 절골 천제당 등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천제당에서는 마을제당으로서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기우제당으로의 역할이 크기에 가뭄이 심하게 들면 기우를 위한 천제가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곳이 많다.

둘째, 천제당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산 능선에 돌담이나 흙담을 두른 형태, 당집 형태, 하천 옆의 임시 제단을 설치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함백산 절골 천제당은 당집 형태이다. 천제단은 하늘과 통하기에 지붕이 있는 제당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실제 현지에서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당집 형태를 띤 곳도 발견할 수 있다. 삼척시 남양동 천제당, 태백시 통동 시릉산 천제당, 백산동 번지당골 천제당, 삼수동 절골 천제당 등은 당집 형태로 세워져 있다. 대부분의 천제당은 지붕이 없는 형태인데, 위에서 소개한 당집 형태의 천제당 또한 당집을 짓기 전에는 돌담을 두른 형태였다.

현재 당집 형태의 천제당은 대부분 마을의 상당이거나 중심제당으로서 매년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셋째,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산은 하늘을 대리하는 상징으로 여겨졌기에 산신(山

神)을 소우주화된 천신(天神)으로 간주하여 천신과 산신을 동일 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¹¹⁵⁾ 그러나 이 지역의 천제당에서 모시는 신령은 일반적으로 천신(天神)과 다른 신령을 함께 모셔 천제를 지내는 예도 있다. 이를 구별해보면 천신만 모시는 예, 천신(天神)과 산신(山神)을 함께 모시는 예, 천신(天神)과 기타 여러 신을 함께 모시는 예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함백산 절골 천제당은 천신(天神)과 산신(山神)을 함께 모시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도계읍 점리, 태백시 삼수동 절골, 태백시 백산동 번지당골 천제당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마을에서 함께 모셔지는 신령은 주로 제당이 위치한 주산(主山)의 산신령(山神靈)을 천신(天神)과 함께 모시고 있다. 이들 제당에서의 치제(致祭)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주기를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함백산 절골 천제당 제의에서 올리는 축문을 보면 천신(天神)에 먼저 고한 후 산신(山神)에게 고하는 축문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즉 천신(天神)에게는 1년간 평안, 하늘로부터 오는 재액의 소멸과 복을 기원하였으며, 함백산신령에게는 풍년(豊年)과 육축 번식(六畜 繁殖), 그리고 각종 잡귀와 도적 등이 마을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등의 구체적인 기원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마을에서 천신(天神)을 최고의 신으로 여겨 마을 단위를 관장하는 신령이 지닌 능력을 넘어서는 요소들을 기원하고 있으며, 함백산 산신령은 그 하위의 신령으로 여겨 이 지역의 많은 마을에서 모시는 토지신·여역신 등에게 기원하는 요소들이 이루어지길 염원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태백시 소도동 소룻골에 있는 함백산 성황당을 들 수 있다. 이 제당에서 모시는 신령은 주인이 ‘단군’이고 부주인이 ‘단종’이라고 한다. 여기서 ‘단군’은 천신으로 볼 수 있으며, ‘단종’은 태백산 산신으로 볼 수 있다.

115) 이필영,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 문화 이야기』, 웅진닷컴, 2001, 30쪽.



그리고 한 제당(祭堂) 내에 천신(天神)을 산신(山神)과 함께 모신 사례는 아니지만 마을 내에서 천신(天神)과 산신(山神)을 위한 별도의 제당들을 만들어 모시는 사례는 전남 신안군 도초면 지남리 지북마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¹⁶⁾

그러므로 함백산 절골 천제당에서는 상위신으로 천신을 모시고, 마을 주민들의 구체적인 염원을 함백산신령에게 기원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동해시 동호동 천제단에서 천신과 함께 토지신과 여역신을 모시며, 삼척시 남양동 천제당에서 천신과 함께 성황신을 모시는 등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산간 지방에 있는 천제당에서는 대부분 산신(山神)을 천신(天神)과 함께 모시는데 비해 농촌이나 도시에 있는 마을에서는 ‘성황신 또는 토지신 또는 토지신·여역신’ 등을 모셔서 마을 주민들이 당면한 구체적인 염원들이 성사되길 기원하는 신령으로 좌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천제당에서의 제일(祭日)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례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례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례는 대부분 가뭄이 들었을 때 행하는 기우 의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 의례는 비록 비정기적이고, 늘 새로운 날을 받아서 지내는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4월 말 ~ 5월 초 사이에 날을 받아 천제를 지낸다. 매년 또는 수 년을 주기로 천제를 지내는 제당에서도 날을 받아서 지내는 예가 많다.

삼척 시내에 있는 남양동 천제당, 갈야산 천제당, 마달동 천고사 등 대부분의 제당에서는 (음)1월 1일 천제를 지낸다. 근덕면 초곡과 원덕읍 월천 등 해안마을에서는 주로 1월 15일 천제를 지내며, 도계지역에 있는 무건리에서는 3월 3일, 심포리와 한내리에서는 4월 중에 택일하여 지낸다. 함백산 절골 천제당에서는 3

116) 이 마을에서는 洞祭를 天祭라 부르며, 마을에서 제사를 모시는 곳은 4곳(상당·중당·하당·거릿제)이다. 이 중 日月星辰에 제사지내는 곳이 상당이고, 중당은 산신에게 제사지내는 제당이라 한다. 나경수, 「지남리 지북마을의 민속」, 『전남민속연구(신안군 도초면지역 민속종합조사 보고)』 창간호, 전남민속학연구회, 1991, 17~22쪽.

월 3일 지내는데 비해 인근에 있는 서학골 중간마을에서는 정월에 날을 정하여 지낸다.

이것으로 보아 제일(祭日)은 지역 여건과 마을 내 다른 제당의 제일(祭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날짜가 정해져 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함백산 절골 천제당에서 2000년까지 수부를 함께 모셨다고 한다.

수부신은 서낭님을 모시고 다닌 하위 신으로 여기는 마을들이 많다. 노곡면 하월산리에서 서낭고사를 지낼 때 서낭님 메 한 그릇, 서낭님 모시고 다니는 수배 메 한 그릇을 다른 제수들과 함께 올린다. 이 마을에서 인식하는 ‘수배’는 이 마을에 옛날부터 살아 내려오는 인간의 귀신인데, 서낭님을 잘 모시고 위하던 분들을 초들어서 모시는데, 옛날부터 서낭님을 잘 모시던 사람이 수배 노릇을 한다고 여긴다. 수부신의 유래나 기능을 이와 같이 여기는 마을이 많은데, 그 유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은 서낭신과 함께 위하는 유형이 있다. 이들 마을에서는 신격이 비록 서낭신의 하위 신으로 인식하지만 서낭신과 수부 신을 위한 메를 올리거나, 위목지를 서낭신과 함께 2장을 거는 등 잘 위해주는 유형에 속한다. 이들 마을에서는 서낭신과 함께 고사를 지낼 수도 있고, 서낭고사를 지낸 후 별도로 간단하게 위할 수도 있다.

둘째 유형은 서낭고사를 지낸 후 서낭신을 위해 준비한 제수 일부를 몰려 간단하게 수부를 위하는 유형이다.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삼척시 성남동의 경우 수부상은 차려 놓되, 별도의 의례를 행하지 않는 마을들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덕읍 이천 1리에서는 제당 밖에 별도로 마련된 수부단에서 제수를 일부 몰려서 수부를 위한 의례를 행한다.

셋째 유형은 수부신을 객귀물림과 같은 수준에서 위해주는 마을들이 있다. 이



들은 수부신을 잡귀잡신 정도로 여기기에 이와 같은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제물도 바가지에 서낭신을 위한 제물 중 일부를 조금씩 떼어내어 제당 밖에서 간단하게 위해준다.

이와 같이 수부신을 위하는 이유는 서낭신이나 토지신처럼 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신격으로 대하여 위하는 것도 아니고, 원혼(冤魂)으로 여겨 잘 대해주어 해꼬지를 막자는 의미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낭님을 호위하는 신으로서 살아생전에 마을을 열었고, 마을신으로 좌정한 산신이나 서낭신을 잘 모셨기에 집에서 조상 모시듯이 잘 위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마을마다 그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함백산 절골 천제당에서 수부를 위한 별도의 메를 준비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천신·함백산신과 함께 수부신을 모셨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수부신과 관련한 위의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천제당에서의 제의를 잘 지냈던 마을의 선대 어른들도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여 천신과 함백산 산신의 하위신으로 여겨 잘 모셨다는 것은 절골 천제당을 마을 제당으로 운영하였던 마을이 나름대로의 전통과 위계질서를 갖추었던 마을이었다고 여겨진다.

나. 태백시 백산마을 천제

1) 개요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 변지동골과 통동 시릉골에 각각 천제당이 있다. 각 하위 마을 단위로 서낭당이 있어 단위 마을 단위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지만, 이들 하위 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 제당으로 천신(天神)을 모시고 있다. 백산동과 통동에서 격년제로 천제를 지내는데, 2015년에는 백산동에서, 2016년에는 통동에서 마을 단위로 천제를 지냈다.

천씨·정씨·서씨들이 백산마을을 개창하여 마을 기반을 저상하면서 천제당을

세운 것으로 전한다. 이들이 천제당을 만들어 제사를 지낸 목적을 살펴보면, 백산에서는 질병 예방을 위함이며, 제를 지내지 않으면 일반 질병이 침입한다고 여긴다. 축문을 보면 천제를 지내는 목적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소개하면, 마을 평안, 역질 구축, 해로운 금수를 멀리해 주실 것 등을 기원함이 내재되어 있다.

통동에서는 마을 평안과 질병 소멸을 추구하며, 천제를 통해 통리에 속한 모든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유대관계 강화가 목적이다.

제일(祭日)은 1967년 자료를 보면, 음력 3월 15일 정오에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은 산불 예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통제 기간이기에, 이 시기를 지나서 좋은 날을 받아서 지낸다.

제당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산 천제당은 영동선의 동백산역에서 백산역 방향으로 0.8km를 진행하면 태백종합경기장으로 진행하는 도로와 분기하는데, 이 도로를 따라 0.7km를 더 진행하면 번지당골의 연화산 유원지 입구가 나온다. 이 골짜기 안쪽으로 0.8km를 들어가면 있다.

천제당 건물은 석축을 쌓은 후 그 위에 정면 1칸, 측면 1칸 목조 건물로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에 기와를 올렸다. 그리고 천제당 주위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돌담을 둘렀다 제당 내부는 정면에 나무로 만든 제단을 설치하였고, 입구 방향 오른쪽부터 옥황상제, 연화산 산신령, 연화산 삼신을 모셨다, 제당 내 좌우 벽에 회원 명단과 중건 관련 편액을 게판하였다. 천장에는 상량문이 쓰여 있다.

백산 천제당을 현재와 같이 중수하기 이전에는 천제당과 그 오른쪽에 한 칸 규모의 칠성당이 있었다. 그리고 번지당골 입구에 백산 입구 마을 성황당이 있어 마을 주민들이 위하였으나, 지금은 그 위세가 매우 약해졌다.



통동 시릉산 천제당은 영동선의 동백산역에서 북쪽으로 0.6km를 진행하다가 동쪽으로 개설된 한보탄광의 진입로를 따라 0.1km를 들어가면 한보탄광 건물이 있고, 이 지점에서 남측으로 개설된 비포장도로를 따라 약 1.1km를 들어가면 계곡이 둘로 분기하는데 이 분기점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을 천제당골이라고 한다.

제당 정면에 ‘천제당(天祭堂)’이라 쓴 편액을 걸었으며, 건물 규모는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에 시멘트로 벽을 마무리하였으며, 지붕은 홀처마에 슬레이트를 올린 맞배지붕 형태이다. 제당 주위에 신목으로 느릅나무 2그루, 신배나무 1그루, 들메나무 2그루가 둘러져 있다. 천제당 내부 좌측 벽에는 1928년 제당 신축 당시 작성한 ‘천제당 이전문’과 1998년에 천제당을 중건할 때 작성한 ‘중건기’가 걸려 있다. 이것으로 보아 1928년 현재 자리에 건물 형태로 천제당을 지었고, 1998년 다시 중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당 내부 정면에 시령을 만들어 한지 2장을 걸었으며, 일자형 시멘트로 마감한 제단을 설치하였다.

백산 천제당과 관련하여 전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성심으로 천제당에서 기도하면 득남득녀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으며, 천제를 지내기 위해 준비한 제물을 절취한 자는 절대 해를 보게 된다고 한다.

마을 어르신인 존오[마을 지도자]가 이장일 때 돼지를 잡아 천제 지냈으나, 윤감[전염병]이란 병이 있었는데, 주민들 모두 병에 걸리자 무당에게 물어보니 소를 올리지 않아서 병에 걸린 것이라 하여 소를 잡아 천제를 다시 지내고나니 병이 다 나았다고 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돌담을 두르고, 내부에 제단을 만들어 천제를 지냈으나, 현

회장님 선대 어른신이 살아 계실 때 목수를 모셔서 제당 형태의 천제당을 지었다. 이 때 제당 건물을 지은 목수[병오생]가 당주를 했는데, 부인이 낙태하였다. 이후 부인이 다시 임신을 하여 아들을 출산하였다고 한다. 딸만 여럿 있었던 목수가 백산 천제당에서의 정성이 받아들여져 아들을 낳은 것이라고 다들 여겼다고 한다.

천제단 앞에 큰 전나무가 있는데, 40년 전에 도별꾼이 나무를 자르려 하다가 위에서 소리 나서 보니 구렁이가 내려와 그 자리에 쓰러졌다고 한다. 현재도 나무를 베었던 흔적이 전나무 밑동에 남아 있다. 백산과 통동 사람들은 서로 자신들의 마을에 있는 천제당에 모신 천신이 할아버지 천신이라고 주장하여 그 격이 높음을 과시하려 한다.

백산과 통동에 해당 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제당이나, 하위 마을 단위로 서낭당이 있어 마을 주민들이 위하지만, 천제당은 이들 하위 마을 전체를 관장하여 2년에 한 번씩 흠어져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 모두가 모여 천제를 지낸 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마을공동체신앙 운영 사례로 볼 수 있다.

2) 전승 주체

현재 백산동에는 80여 가구가 거주하며, 통리 솔안마을 역시 8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천제를 지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1967년 조사 자료를 보면 각 가구별로 성의껏 낸 현금 2만 원 내외의 자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지금은 기금을 모아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원이며, 과거 백산이나 통동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인근이나 다른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도 회원으로 자격을 가지고 백산 천제, 통동 천제에 참여한다. 백산동 천제 회원들은 기금이 2,000만 원 정도 적립되어 있기에 여기서 나오는 이자와 찬조금



으로 천제를 지낸다.

백산 천제당 내부에 백산천제당 회원 명부가 편액 형태로 걸려 있다. 이에 의하면 회원은 총 112명인데, 이 중 돌아가신 분이 10명이어서 현재 회원이 102명임을 알 수 있다. 회칙이 있어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계원들은 명단을 내부에 걸고, 고인이 되면 자제가 대를 이어 계원으로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 회원들에게는 준비한 제물을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해 ‘봉개[뭉이]’를 준비하여 나누어 주는데, 소고기 한 뭉치와 떡 등을 준다.

백산과 통동에서 격년제로 지내기에 백산에서 주도하는 천제에 통동 솔안마을 대표들이 참가하며, 통동 솔안마을에서 주도하는 천제에도 백산 대표들이 참여한다. 이것으로 보아 전승 주체는 백산과 통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회원들이며, 그 전승지역은 태백시 백산과 통동을 중심으로 그 전통이 잘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승방법

현재 백산 천제당 회장은 장** 님으로 2년 임기의 회장직을 수행한다. 회장의 소임을 담당하는 사람은 천제 준비와 운영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마을이장·제관 등이 실수 없이 천제를 지낼 수 있도록 잘 이끌고 있기에 백산 천제와 통동 시릉산 천제는 2년에 한 번 번갈아가며 음력 2~3월에 좋은 날을 받아서 천제를 지내기에 지금까지 잘 전승되고 있다.

4) 마을 천제의 실제 및 특징

백산동에서는 천제당에서 천제를 지내기 전에 제관을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제관은 3헌관을 선정하는데, 지난 2015년에는 통장이 초헌관, 노인회장이 아헌관, 이** 님이 종헌관을 담당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총무를 선정하여 천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게 하며, 축관 1명과 집사 2명, 당주를 선임한다. 이들의 복장은

청포에 유건을 쓰고 제사를 지낸다.

천제 준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이는 당주이다. 2015년 당주는이** 님이 담당하였는데, 제주(祭酒)를 20일 전에 담그고, 그 때 금줄을 치고, 위목지를 걸고, 제물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제물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를 잡아서 제물로 분육하는 것이다. 수소를 전날에 잡아서 부위별로 나누고, 대부분의 살코기를 110cm 정도의 싸리나무대를 이용하여 꼬지를 만들어 숯불에 살짝 구워서 준비한다. 소고기 꼬지는 많이 만들어 회원들과 동참한 외빈과 기타 참석자들에게 ‘봉개’라 하여 소고기 한 덩어리를 골고루 나누어준다.

술은 20일 전에 번지당골 입구에 단지를 묻어 담근다. 2015년에는 쌀 30kg, 누룩 18장을 준비하여 제주를 담았다. 제주(祭酒)로 올리는 술은 청주를 걸러서 별도의 단지에 담아 봉한 후 제사를 지낼 때 개봉하여 올린다.

백산 천제당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준비한 제물은 메 2그릇[백산과 술안마을에서 각각 모시는 천신을 위한 메], 술 3잔[모신 각 신령별], 청수 3잔[당주가 미리 준비], 소 한 마리를 희생으로 올리게 됨을 보여주기 위해 소머리, 소 앞·뒷다리 각각 1개, 갈비 한 짝, 소꼬리, 소가죽, 간, 염통, 천엽, 소고기 꼬지 4개를 제단에 진설하였다. 이 때 소고기는 염통과 간은 그대로 올리며, 나머지 부위는 굽거나 삶아서 올렸다. 이외에도 삼실과, 과일[수박, 사과, 배, 참외], 포, 새우메 [2그릇], 백설기 한 시루를 준비하여 진설하였다.

제물을 진설하는 동안 제관은 성금을 내는 등 천제에 동참한 사람들과 회원들을 위한 소지 종이에 직책, 이름, 생년 관련 간지를 적어서 준비하였다.

2016년에 통동 시릉산 천제당 제단에 진설한 제물은 백설기 한 시루, 소머리, 과일[수박·바나나·사과·배], 나물[콩나물·고사리·시금치], 삼실과, 포, 소고기 꼬



지, 간, 술이었다.

2015년 백산 천제당에서 행한 제의를 중심으로 진행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당주가 각 신위별로 위목지를 걸었다. 제단 정면 벽에 각 신위별로 여러 장의 위목지가 걸려 있는 이유는 이전에 걸었던 위목지가 쌓여서라고 한다. 위목지를 정면 벽에 건 후 제물을 진설하였다. 이 때 백산천제보존회 회장이 진설이나 제의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필요시 지시를 하고, 자문을 하였다.

제의 진행은 향과 초를 피운 후 초헌관이 옥황상제, 연화산 산신, 연화산 삼신 순서로 술을 각각 1잔씩 올리고 참여자 모두가 부복한 후 축관이 축문을 읽었다. 독축 후 메와 떡에 나무 가지를 꼬아서 수저를 준비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잔을 내린 후 아헌관이 술을 올리고 다시 참여자 전체가 함께 절을 한 번 하였다. 이후 술을 내리고 종헌관이 술을 올리고 다시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절을 한 번 하였다.

이후 음복을 3헌관이 함께하였고, 이들 제관들의 음복이 끝난 후 회장과 축관, 참여 집사 등이 음복하였다. 이 때 백산과 통리가 속한 황연동 동장님과 반장, 당주 사모님, 솔안마을 통장, 기타 참여자들이 함께 술을 올리고 절을 하였다. 이후 당주가 개인별 소지 종이를 한꺼번에 기구에 담아 소지하였다. 이 때 당주가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하였다. 소지를 마친 후 당주가 떡을 일부 떼어 돌담에 놓고 수부, 잡귀잡신을 위한 고수레 성격의 헌식을 하였다.

천제당에서 제의를 마친 후 제당을 가로질러 걸은 금줄은 그대로 두고 2년 후 다시 걸게 된다. 참여자들은 천제당 앞 전나무 아래에서 황덕불을 피워 만들어진 숯불을 이용하여 꼬지의 고기를 적당한 두께로 썰어서 구워 음복을 위한 안주로 준비하였다.

위와 같이 천제당에서 제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원들과 주민들은 번지당골 입구에 천막을 쳐서 모두 모여 음식을 먹으며,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다. 이때 부녀회원들이 가마솥을 걸어놓고 소고기 국을 끓이면서 삶아진 소고기를 썰어서 안주와 소고기 국밥에 넣을 건더기를 준비하였다. 술상은 백설기, 구운 소고기, 삶은 소가죽을 안주로 내어 왔다.

마을 단위의 서낭고사도 있지만 모든 마을을 아우르는 천제당에서의 제의와 준비한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음복을 통하여 백산 주민들은 스스로 ‘오늘은 다 모여서 즐겁게 잔치하는 날’이라 여긴다. 이를 통해 백산 천제당에서의 제의가 지닌 기능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백산동(栢山洞) 번지당골 천제당(天祭堂)
(2015년 5월 16일)



백산동(栢山洞) 번지당골 천제당(天祭堂)에서 천제를 지내기 전에 제관이 위목지를 걸고 있음(2015년 5월 16일)



백산동(栢山洞) 번지당골 천제당(天祭堂)에서 천제를 지내기 위한 진설



백산동(栢山洞) 번지당골 천제당(天祭堂)에서 천제를 지내는 중에 축문을 읽음

다.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 천제

강원도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 천제는 인근에 있는 백산마을과 격년제로 마을 천제를 지낸다. 2019년에는 백산마을에서 천제를 지냈기에 2018년에 솔안마을에서 천제를 지냈다. 이와 같이 격년제로 지내는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통동과 백산마을은 철암천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마을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사회·경제적인 연결성이 이들 마을을 공동의 천제문화권으로 연결하였다고 보여진다.

원래 솔안마을 천제는 통동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천제였다고 한다. 매년 음력 3월 초하루에 날을 받아서 음력 3월 중에 마을 천제를 지냈는데, 이 때 통동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통동 14통 사례를 들면, 14통 내에 솔안마을을 비롯하여 짝바위골과 용정마을이 있다. 용정마을에는 마을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통동 14통 이외의 마을들 또한 마을 내 서낭당이 대부분 있어서 매년 정월 초에 마을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마을 주민들은 격년제로 음력 3월 중에 열린 통동 천제에 동참함으로써 전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현재 천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 기금과 자발적인 기부금·소지값 등으로 충당한다.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은 제물 준비에 사용되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제물이 소[牛]와 술이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천제에 올린 희생물은 사냥을 하여 준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소를 희생으로 올린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예전에는 천제를 지내는 당일 새벽에 운영위원들이 소를 끌고 천제당에 가서 이를 도축한 후 제물을 준비하여 낮 11~12시 경에 천제를 지냈다고 한다.

늘 소를 잡아서 천제를 지낸 전통은 시대 변화에 따라 도축된 소를 구입하여 지내는 형태로 바뀌었다. 2018년에 구입한 소고기는 소 머리, 내장(전체), 간, 고

기 부위[다리와 꼬리 부위는 구입 안 함: 천제에 올리는 고기 20근, 식사 준비용 100근 정도]이다. 이와 같이 준비한 소고기는 싸리나무 꼬지에 소고기 덩이 10개 정도를 끼어서 제물로 올린 후 주먹고기 한 개와 떡을 참여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술은 20되 정도 담그는데, 천제 지낼 날짜가 정해지면 재료를 준비하여 곧장 천제당 앞에 향아리를 묻어 제주를 담근다.

제당은 통동 시릉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데, 그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다. 지붕은 슬레이트 맞배지붕이고, 벽은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서 몰타르로 외벽과 내벽을 마감하였으며, 출입문은 나무로 만든 양여닫이문이다. 천제당 정면에 ‘천제당(天祭堂)’이라 쓴 편액을 걸었다. 제단 내부 정면에는 시령을 걸어 이에 위목지와 실을 건다. 제단은 일자형으로 시멘트로 마감하였다. 제단 내부 대들보에는 1998년 3월 4일 상량하였음을 알려주는 상량문이 쓰여 있다. 제단 내 좌측 벽에는 천제당이전문과 천제당증건기가 걸려 있어 제당의 연혁을 알려준다.

통동 시릉산 천제당에서 모시는 신령은 산신과 천신이다. 이는 천제를 지낼 때 위목지를 2장 걸며, 메와 잔을 각각 2개 올리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천제당에서 산신과 천신을 모시는 이유는 천제당이 위치한 시릉산 산신을 터주로 여겨 모신 것이며, 주신은 마을을 관장하는 천신이다. 이에 2분 신령을 모신다.

2018년 솔안마을 천제는 현재 통동 14통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인근 주민들과 백산마을 간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지냈다. 2018년 사례를 중심으로 제의 진행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천제를 지내기 전날인 4월 22일. 천제를 주관하는 솔안마을 대표인 통장과 반장, 제관들 그리고 부녀회 회원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제물을 준비하였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제물인 소고기는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싸리나무 꼬챙이에 주먹고기

형태로 썰은 소고기 덩어리 5개씩 꽂은 소고기 꼬지를 만들어 둔다. 이와 함께 다음 날 마을 주민들을 위한 소머리 국밥을 비롯한 각종 음식을 준비한다.

천제를 지낸 4월 23일에는 아침 일찍 천제당에 올라가서 가마솥을 걸고 음식을 준비해야 하나, 비가 하루종일 와서 마을회관에서 제물 준비와 마을 주민 음복을 하게 되었다.

제의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관들은 천제당에 도착하여 황톳불을 마련한 후 미리 담가둔 제주를 거른다. 제주는 위에 뜬 청주를 올린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물로 올릴 새우메를 짓고, 준비한 소고기 꼬지를 알불을 이용하여 불에 거슬리는 정도로 구워낸다.

이와 같은 준비를 하는 중에 미리 준비한 제물은 제단에 진설한다. 진설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 천제 진설도

제물 진설이 끝난 후 제관이 향을 피운 후 술을 올리고 재배한다. 다시 술을 2잔 올린 후 제물을 덮은 뚜껑을 열고, 수저를 꼽은 후 모든 참여자들이 부복한 후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난 후 제관이 술을 올리고 재배한 후 메의 뚜껑을 덮고 재배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마친 후 헌관이 음복한 후 모든 참여자들이 재배한 후 음식을 내리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천신과 산신 소지를 먼저 올린 후 마을 공동체를 위한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린 후 황톳불에 둘러 모여서 동참한 주민들이 음복을 한 후 식사를 한다. 2018년 천제 당일 비가 많이 와서 부득이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전체 음복례를 하였다.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 천제당 전경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 천제를 지내기 위해 술을 담근 현장과 천제당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 천제를 위해 담근 술을 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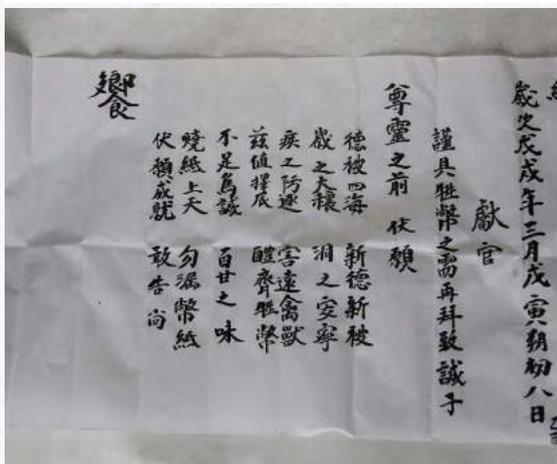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 천제에 올릴 새우메를 지음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 천제에 올릴 소고기꼬치 준비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 천제 진설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 천제 축문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 천제에서 술을 올림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 천제에서 제관 헌작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 천제에서 소지를 올림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 천제를 지낸 후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음복함

라.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천제

매년 음력 4월 8일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에서는 인근 마을로 통하는 냇재에서 산신제와 성황제를 지낸 후 낮 12시경에 대현리 전체 주민들이 모여 천제를 지낸다. 천제를 지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물은 돼지 1마리이다. 그리고 천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마을 토박이들이며, 여자들은 제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필자가 현지 조사한 2018년에는 대현리 이장과 각 마을 반장이 참여하였는데, 반별로 돌아가며 반장이 제관으로 임명되어 제수를 준비한다. 대현리에는 작은 마을 단위로 마을 제당이 있고, 여기에서 매년 정초에 마을 제사를 지낸다. 음력 4월 8일 지내는 대현리 천제에 모든 마을 대표들과 주민들이 동참한 것으로 보아 대현리 천제는 대현리 전체를 관장하는 천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제의 경비는 대현리 마을 기금과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대현리 천제당은 백천계곡으로 진입하는 중에 ‘천제당구비’라고 불리는 계곡 좌측 위의 봉우리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사방이 탁 트인 곳인데, 아래에는 계곡 물이 휘감아 돈다.

자연 암반 위에 5단 정도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지은 제당인데,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고, 지붕은 슬레이트로 마감한 맞배지붕 형태이다. 제당 내부 정면에 시렁을 걸어 위목지를 거 수 있게 하였으며, 제단은 일자(一字) 형태로 24cm 정도의 높이로 만들었다.

모시는 신령은 태백산신과 천신이다. 태백산신을 모신 이유는 이곳을 관장하는 신령이 태백산신이기 때문이다. 즉 터주로서 태백산신을 모시고, 주신(主神)으로 천신을 모신다. 이에 위목지를 2장 걸고, 새우메와 잔을 2개 준비한다.

마을 천제를 지내는 이유는 천신을 모셔서 대현리 마을 전체 주민의 화합과 안녕, 소통을 위함이다.

천제를 지내기에 앞서 제당 건물 앞에 금줄을 치고 위목지 2장을 시렁에 건 후 제물을 진설한다. 준비한 제물 중 메는 새우메이고, 닭은 전체를 튀겨서 올린다. 돼지고기는 삶아서 덩이살 형태로 올리며, 술은 막걸리이고, 탕은 육탕이다. 준비한 제물 진설은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천제 진설도

제물 진설을 마친 후 천제를 지내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향을 피운 후 제관이 절을 한 후 술을 2잔 올린다. 이후 참석자들이 모두 재배한 후 술을 내리고, 다른 제관이 다시 술을 2잔 올리고 재배한다. 이후 수저를 메와 제물에 걸친 후 모두 부복하여 신령이 흠향하기를 기다린다. 이후 산물을 올린 후 반개하고, 전체 참석자들이 재배한다. 그리고 소지를 올리는데, 소지를 올리는 순서는 산신 소지와 천신 소지를 먼저 올린 후 마을 소지를 올리고, 마을 대표들과 주민들을 위한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다 올린 후 음식 일부를 떼어 재반하고, 음식을 내려서 현장에서 나누어 먹는다. 제당을 정리한 후 하산하여 당주댁에 모여 동참하지 못한 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마을 주민들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마을 주민 음복례를 마친다.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천제당 전경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천제를 지내기에 앞서 위목지를 걸음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천제 제물 진설을 하는 제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천제 제물 진설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천제에서 제관 헌작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천제에서 제관들이 절을 함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천제를 마친 후 음복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천제를 마친 후 당주덕에 마을주민들이 모여 음복함

3. 마을 천제의 구조와 의미

가. 천제 중심의 마을공동체 신앙 구조

마을의 지리·지형적 요소와 문화 전통, 경제 여건, 교류 환경, 구성원들의 성향과 구성 형태가 마을별로 다르다. 이에 천신을 모신 전통이 있는 마을들이라도 그 운영 형태나 추구하는 기능 등이 매우 다양하다.

마을 천제가 지닌 위상, 천신과 함께 모신 신령과의 관계와 종교적 기능 등을 중심으로 천제 중심의 마을공동체 신앙 구조를 분류하면, 상당에서의 제의로 기능하는 천제, 마을신앙 구심체로 기능하는 천제, 다른 신령들과 함께 좌정하여 단위 마을을 위한 마을신앙으로 기능하는 천제, 매년 또는 일정 기간에 한 번 기

우 또는 역질 구축을 위해 지내는 천제, 상당과 하당으로 구분되는 마을제의에서 하당 제의인 거리고사에서 상위 신령으로 모셔진 천신을 위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당에서의 제의로 기능하는 천제가 있다.¹¹⁷⁾ 천신을 상당신으로 모신 유형은 마을신앙 구조가 상당과 하당, 또는 상·중·하당으로 구분되어 마을제사를 지내는 마을에서 최고 신령인 천신을 상당인 천제당(천제단)에 모신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매년 3월과 9월 초정일 또는 초해일에 동제를 지낸다. 모시는 신령은 천신과 지신인데, 배신(配神)으로 천신(天神)에게 산신(山神), 지신(地神)에게 성황신·역신(城隍神·疫神)을 모신다. 제일(祭日) 아침에 산신을 위한 소제를 지낸 후 저녁에 주민 각호에서 마련한 제상을 갖춰 각 호주가 참여하여 성황과 역신을 위한 육제를 지냈다.¹¹⁸⁾ 즉 천신(天神)을 상당신으로 모신 형태의 동제임을 알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서는 매년 정월 초 해일(亥日)에 마을제사를 지내는데, 모신 신령은 천신(天神)·포신(醮神)·해신(海神)이다. 이중 가장 먼저 올리는 제의는 천신을 모신 천제인데, 상당신제로 여긴다. 이후 포제단에서 포신을 위하고, 아랫당에서 해신을 모신다.¹¹⁹⁾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3리 사례를 소개하면, 천제당(天祭堂)이 주로 마을제사를 지낼 때 가장 격이 높은 대상으로써 치제(致祭)되거나 개인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풍어를 기원하는 대상으로 치제되며, 부수적으로

117) 마을 내에서 천신을 상당에 모신 사례는 유형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원덕읍 월천3리, 원덕읍 호산리, 근덕면 초곡리, 근덕면 궁촌2리, 근덕면 교가2리 제동 마을 등에서 발견된다.

118) 村山智順, 『部落祭』, 조선총독부, 1937, 64~65쪽.

119) 강정식, 「신앙·전설 유적」, 『북제주군의 문화유적(II) - 민속 -』,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41~42쪽.

간수 단지를 통해 풍흉을 점치는 등의 3가지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제수 준비에서 천제당 제물에 가장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데, 생선·과일 등에서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올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인 제의 과정은 천제당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팽나무를 신목으로 한 할아버지당과 바닷가에 있는 할머니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며, 예전에는 마지막 절차로 바닷가에서 용왕제를 지냈다고 한다.¹²⁰⁾

신기면 대평리에서는 ‘천제당 → 서낭당’, 근덕면 교가2리 제동마을에서는 ‘천제 → 용왕제’의 순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천제당을 상당으로 여겨 가장 큰 정성을 드린다. 이에 비해 인근의 원덕읍 호산리 해망산 천제당에서 ‘천제당 → 할아버지당 → 할머니당’의 순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에서는 할아버지당에 가장 많은 정성을 드린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도계읍 무건리의 ‘천제 → 성황제’, 근덕면 초곡리의 ‘천제 → 성황제사 → 수부신 위함’과 근덕면 궁촌2리에서의 ‘천제 → 윗서낭제 → 아랫서낭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마을에서도 천제당을 상당으로는 여기고 있으나, 실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하여 성황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¹²¹⁾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산신당과 천제당
(2018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서낭제에서 천신
위한 후 소지 올림(2004년)

120)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11쪽.

121)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11~112쪽.

둘째, 관계성을 지닌 하위 마을들을 관장하는 마을신앙 구심체로 기능하는 천제이다. 천제당이 설치된 중심 마을과 연결되는 하위 마을들을 모두 아우르는 구심체 기능을 하는 천제당은 관련 마을들을 대표하는 중심 마을의 제당이다. 이에 하위 마을 대표들이 천제당에 모여서 마을 천제를 지낸 후 하위 마을 단위로 마을 제사를 지내기에 상하 위계를 보여주는 유형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에서는 하위 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천제단에서 3년 주기로 마을 천제를 지내며, 각각의 단위 마을에서는 매년 서낭제를 지낸다. 점리에서 천제를 지낼 때 모시는 신령은 천신과 함께 ‘산신·지신’이다.¹²²⁾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 번지당골 천제당과 솔안마을에서는 격년제로 돌아가며 마을 천제를 지낸다. 즉 2018년에 솔안마을에서 천제를 지내면 백산마을 대표들이 참가하고, 2019년에 백산마을에서 천제를 지내면 솔안마을 대표들이 참가하는 형태이다. 백산과 솔안마을이 같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이들 마을들을 아우르는 천제를 매년 지냈는데, 마을이 분화되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천제를 지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¹²³⁾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에 속한 하위 마을은 상수문·중수문·하수문인데, 이들 마을 각각에는 천신과 산신을 각각 모시는 제단이 있었다. 이에 매년 정월 초에 마을 제사를 지낼 때 각 마을마다 천신을 먼저 모신 후 그 아래의 산신단에서 산제를 지냈다고 한다. 3개 마을을 아우르는 천제를 중수문에서 지내다가 마을들이 분화되면서 다른 지역 사례와는 달리 천제 지낸 전통을 단위 마을에서도 계속 유지한 사례로 볼 수 있다.¹²⁴⁾

122) 필자 현지 조사(2011년)

123) 필자 현지 조사(2015~2018년)

124) 현재 상수문·중수문·하수문 마을에서 마을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 흔적만 남아 있다. 필자 현지조사(2018~2019년)



이에 해당하는 천제당은 같은 생활권 또는 문화권에 속한 하위 마을들이 천제를 통해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 유형에 속한 천제 중 천신과 함께 산신을 모신 사례도 있다. 그 이유는 산신에 의탁하여 종교적 염원을 달성하려는 목적보다는 천신이 좌정한 천제당이 있는 곳을 관장하는 산신을 위한 의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태백시 삼수동 절골 천제당의 원래 자리는 절골 입구 철로로부터 약 2.8km 지점의 하천 오른쪽 옆 바위 밑에 있었으며, 이 때 작은 건물의 형태로 있었다고 한다. 이후 이곳 옆에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섬 입구 자락으로 옮겼다. 처음에는 능애집이었으나 1967년 3월 주민들이 루핑집으로 개조하였다고 한다. 이 때는 천제당 주변에 신목(神木)이 우거져 있고, 그 앞으로 맑은 냇가 흘렀다고 한다.

이후 1970년대 들어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각 마을에 있는 마을제당을 없애는 정책을 취함에 따라 건물이 헐리게 되었다. 건물이 헐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매년 삼월 삼짇날 당제를 거행하였다. 천제당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는 지금도 개인적인 치성을 올리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1967년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내부에 당신도(堂神圖)가 둘러져 있고, 간단한 제단이 있었으며, 신목(神木)으로 높이 14m, 둘레 3m의 소나무 1본(本)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도 당이름은 천제당이었다. 현재의 위치에 있는 천제당은 기와를 올린 맞배형 지붕이고, 가로 395cm, 세로 336cm, 높이 330cm 크기의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로 만들어진 제당이다. 제당 내부에는 나무판자로 만든 제단이 있고, 제단 정면에 ‘상천 신위’, ‘함백산신령위’라 적힌 신위와 각각의 신위 오른쪽에 명주실과 한지를 걸어두었다.¹²⁵⁾

125) 김도현, 「태백시 咸白山 절골 天祭堂 운영 양상과 그 성격」, 『강원문화연구』,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09, 141~143쪽.



삼척시 도계읍 점리 천제에서 제관들이 절을 함
(2014년)



태백시 통동 솔안마을 천제 지내는 전경 (2018년)

셋째, 다른 신령들과 함께 좌정하여 단위 마을을 위한 마을신앙으로 기능하는 천제이다. 개별 마을에 위치한 천제당에서의 마을 제의 사례를 살펴보면, 천신(天神)만을 모신 마을도 있지만, 단위 마을에서 천신을 주신(主神)으로 모시고, 개별 기능을 담당하는 산신, 성황신 또는 여역신 등을 함께 모신 사례들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마을이 분화되면서 천제당 중심의 마을신앙 전통이 무너진 후 이곳을 단위 마을의 제당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67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면 선흘리(善屹里)에서 매년 정월 초 해일(亥日) 마을 동쪽에 있는 천제동산에 있는 천제당에서 마을 수호를 기원하며 동제를 지냈다. 제당 명칭이 천제당이므로 천신을 모신 사례로 볼 수 있다. 현재 제단을 천제동산 아래로 이전하였고, 제단 명칭을 포제단이라 하여 포신과 토지신을 모신 포제를 지내는 형태로 변동되었다.¹²⁶⁾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10통 2반과 4반의 마을 제당으로 기능하는 천제단은 동호동 골말에서 매년 동호동 대동회가 주관하여 음력 선달 그믐날 아침부터 도가와 제관 그리고 집사들이 천제단 내 공터에서 희생(犧牲)인 돼지를 잡아 부위별로 해체한 후 피제사를 지내고, 제수 준비를 하여 밤 12시가 지나면 천제를 지낸다.

126) 『한국의 마을제당(전라남도·제주도편)』, 국립민속박물관, 2002, 900쪽. 필자 현지 조사 (2018~2019년)



예전에는 밤하늘의 별 중 북두칠성의 물을 담은 쪽에 길게 비스듬히 늘어선 세 쌍의 별이 일직선으로 일치하면 ‘삼태가 올랐다’고 표현하는데, 이 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여 제사를 마치면 첫 닭이 운다고 하였다.¹²⁷⁾

마을제당은 천제단과 서낭당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1967년 조사 자료¹²⁸⁾에 의하면 ‘천제당’이라 불린 당이 상당과 하당, 총 2곳이 발한 5리, 즉 지금의 동호동 골말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을 주민들도 마을 고사를 지낼 때, 천제당을 상당으로 여기고, 서낭당을 하당으로 여겼다고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1967년에 조사된 동호동 제당 자료는 현존하는 천제단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이중 상당으로 불린 천제당은 마을의 북쪽에 해암(海巖) 동쪽 방향으로 있었다. 돌담으로 둘러진 6평 1칸 크기의 제당이었고, 내부에는 25자 길이의 성왕대 1개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신목(神木)으로 모신 3m 길이의 나무가 2주(株) 있었다. 현재 남아 있는 천제단을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호동 천제단에서는 ‘토지신·천지신·여역신’을 모시고 있다. 이에 반해 동호동의 인근 마을에서 모시는 신령은 ‘토지신·성황신·여역신’이다. 중앙에 모신 ‘천지신(天地神)’은 하늘과 땅에 정성을 드리기 위해 모셨다고 보았을 때, 좌측에 협시하는 ‘토지신(土地神)’을 따로 모신 것은 마을에서 토지신을 이중으로 모셨음을 알 수 있다. 마을에서는 천제단에서 모시는 천지신을 ‘하늘신’으로 인식하여 이를 ‘성황신’보다 격이 높은 신령으로 인식하고, ‘성황신’은 마을 수호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호동 인근에 있는 만우동·사문동·부곡동·발한동 등의 서낭당에서 모시는 주신인 성황신은 마을 수호신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것으로 믿으며 치제(致祭)되는

127) 김도현, 「동해시 동호동 천제단 운영과 그 성격」, 『박물관지』 14,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7, 47~72쪽.

128)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의 마을 제당(강원도편)-1967년 조사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1997, 183~189쪽.

것에 비해 동호동 천제단에서의 하늘신에 대한 제사는 그 위상이 단위 마을을 넘어서서 주변 마을 모두를 아우르는 상당제로서의 위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태백산 천신을 할아버지신으로 인식하고, 동호동 천제단에서 모시는 천지신을 할머니신으로 여기는 것은 이 지역이 태백산 문화권에 속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¹²⁹⁾

과거에 국가 단위나 지역 단위로 치제되던 제당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단위 마을제당으로 운영되어 해당 마을 주민들만을 위한 제당으로 그 위상이 격하된 예가 매우 많다. 동호동 천제단 고사 또한 주변 마을을 아우르는 상당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제당에서 동호동 주민들만을 위한 제당으로 축소 운영되어, 동호동 마을에 들어오는 모든 액을 막아주고, 마을의 평안과 주민들의 건강과 복을 기원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 천제당 위상의 변화와 유사한 변동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삼척시 남양동 천제당에서는 천령지신(天靈之神)과 함께 성황지신·후토지신(城隍之神·后土之神)을 모시며, 원당동에서는 오십천 가에서 천제를 지냈는데, 천신과 함께 지신·용신을 모셨고, 성북동 갈야산 천제당에서는 천신을 모신 전통이 사라지고, 토지·성황·여역신을 모신다. 마달동 천고사에서는 성황지신·지직지신·천사지신을 모시고, 교동 우지마을에서는 토지성황여역신을 모시는데, 우지마을에서 보관하고 있는 옛 홀기에 의하면 ‘성황=지직’, ‘토지=천사’, ‘여역=용왕’으로 부기되어 있다. 이는 성북동 갈야산 천제단과 우지마을 서낭제에서 모시는 신령에 천신이 현재 없지만 그 연원을 살펴보면 천신을 모신 천제를 지냈다고 볼 수 있다.¹³⁰⁾

넷째, 매년 또는 일정 기간에 한 번 기우 또는 역질 구축을 위해 지내는 천제이

129) 김도현, 「울진 12령 셋재[鳥嶺] 城隍祠와 祿負商團」, 『실천민속학』 16집, 실천민속학회, 2010, 238~242쪽.

130)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13쪽.



다.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기우제 또는 천제라고 한다. 즉 농촌에서 비가 안 내려 한발(旱魃)의 피해가 극심해지면 기우제를 천제단에서 지내기도 하였는데, 전라남도 순천시 별양면 봉림리 장기마을,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를 비롯하여 많은 마을에서 이를 ‘천제(天祭)’라 하였다. 이를 통해 천제당이 기우를 위한 제당의 역할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순천시 별양면 봉림리 장기마을에는 마을 중앙에 있는 산 정상에 천신을 모신 천제당이 있다. 심한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늘에 제사를 지낸 장소이다.¹³¹⁾ 즉 천신을 모신 천제당에서 기우를 위한 의례를 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을 천제는 역질 구축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천제,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금한동 천제,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화개산 천제단에서의 제의,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독미산 천제당에서의 제의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마을을 위한 제의와는 관련 없이 매년, 또는 3~10년 주기로 천제를 지내는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인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천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천신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봉두산 천제단,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내당마을 천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에서는 10년 주기로 천제봉 정상에서 살아 있는 소를 산 아래에서 잡아 쟁기[각 부위별로 자른 것을 지칭]를 제당 주위 나무에 걸어 놓고 천제를 지낸다. 모시는 신은 천지지신(天地之神)이며, 주요 제수는 소·메·과일포·제주 등이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31)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의 마을제당(전라남도·제주도편)』, 국립민속박물관, 2002, 374쪽.

천제를 지낼 것을 결의하면 택일(擇日)을 하는데, 주로 봄에 한다. 날을 받으면 마을회의를 하여 삼헌관을 정하는데, 이장이 주로 초헌관을 한다. 초헌관은 천제단 근처 능선에 제주를 담아 봉하고, 북평 우시장에서 깨끗한 소를 구입한다. 구입한 소는 천제 전까지 깨끗한 집에 맡겨 여물을 잘 먹이는데, 정해지면 거부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천제를 지내기 전날 저녁에 천제봉 아래에서 소를 잡는데, 부위별로 잘라내어 칩에다 꿰어 제장 주위 나무에 건다. 이 때 부위별로 하나하나 떼어내는 것을 ‘쟁기 췌다’라고 한다. 쟁기를 건 후 제관들이 현장에서 새우메를 짓는다. 진설을 마친 후 천제를 지내는데, 그 과정은 마을 서낭당에서의 제의 과정과 유사하다. 소지는 천지신을 위한 소지를 먼저 올려 잘 응감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마을 소지-각 성씨별 소지’를 올린다. 이후 음복을 하고 산에서 내려온다. 날이 밝으면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음복을 하면서 마을 잔치를 한다. 제비는 각 가구별로 추렴하여 충당하며, 만동회의에서 결산한다.¹³²⁾

제주시 용담1동에는 매년 정월 초 정일에 궁당에 천신을 모셔서 거리제 일명 천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하는 이야기는 “천신은 천지개벽부터 있었으며, 부락민은 부락에 어떠한 질병, 불의의 사고가 없기를 천신(天神)께 빌며 가호마다 만사에 소원성취를 염원한다.”이다. 즉 질병 구축이나 사고 방지를 위해 천신제를 지냈다고 볼 수 있다.¹³³⁾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봉두산 정상에 평지에 천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천연두가 창궐할 때 무사히 지나가길 기원하며 수송아지를 희생으로 준비하여 천제를 지냈다고 한다.¹³⁴⁾

132) 김도현, 「삼척시 내미로리 天祭」, 『종교학연구』 32, 한국종교학연구회, 2014, 49~72쪽.

133)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의 마을제당(전라남도·제주도편)』, 국립민속박물관, 2002, 725~726쪽.

134) 강정식, 「신앙·전설 유적」, 『북제주군의 문화유적(II) - 민속 -』,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64~65쪽.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내당마을에는 마을 주민과 부락민과 가족에 해가 없기를 기원하며 천제를 지냈다고 한다.¹³⁵⁾

다섯째, 상당과 하당으로 구분되는 마을제의에서 하당 제의인 거리고사에서 상위 신령으로 모셔진 천신을 위하는 유형이 있다.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마을제의 중 거리고사에서 상당신으로 천신을 모신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월산리에는 마을제당으로 기능하는 성황당이 있지만 각종 잡귀 구축과 소가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마을 입구에서 거리고사를 지내면서 상위 신령으로 천신(天神)을 좌정시켜 위한다. 이 마을은 정월에 잡신을 위한 의례인 거릿고사를 중심으로 마을 제사를 지내는데,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90~100년 전에 사방에서 우질이 돌았던 시기가 있었다. 이 우질을 막기 위해 집집마다 쌀을 한 봉지씩 거두어 떡을 한 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거리에 나가서 빌었더니 인근의 상월산이나 다른 동네에서는 소가 죽어 나갔으나 이 마을에는 피해가 없었기에 이후 매년 거리고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는 정월에 한번만 천신(天神)을 위하고 객구를 먹이기 위한 것으로, 하늘을 위한 의례이기 때문에 성황보다 더 크게 지내는 것이다.

정월고사는 성황고사보다는 거릿고사가 중심이 되므로 성황당에는 메를 한 그릇 올리고, 거릿고사에는 떡 2시루·메·대구포·과일·술 등을 올린다. 제물은 천신의 몫과 잡신·객구를 위한 제수를 따로 마련한다. 천신을 위해 준비한 제수를 제단 위에 올리고, 잡신을 위한 제수는 제단 바닥에 진설한다.

떡 한 시루는 동네 공공기금에서 쌀을 사와서 하나, 다른 한 시루는 집집마다 쌀이나 잡곡을 한 대접씩 모아서 떡을 만들어 올린다. 전자의 것은 천신의 몫이

135)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의 마을제당(전라남도·제주도편)』, 국립민속박물관, 2002, 272쪽.

며, 후자의 것은 잡신과 객구를 위한 것으로 제단 아래에 차린다. 제수는 당주집에서 정월 성황당 고사에 올리는 제물과 같이 준비하는데 마을 재산이 있지만 잡곡 쌀을 한 대접씩 모으는 것은 집집마다의 정성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 외에 천신을 위하여 과일과 현주라고 하여 산에서 떠온 깨끗한 물을 잔에 올리고 초와 향을 피우며, 산신을 위하여 냄비에 지은 잡곡메·대구포 그리고 동이술을 차려 놓는다. 제사를 지낸 후 이 술을 바가지로 퍼서 신목(神木) 주변에 뿌리는데 객구는 원래 많이 먹어야 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¹³⁶⁾

그러므로 마을 천제는 그 기능과 마을 내 다른 신령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승됨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을마다 종교적 염원이 각각 다르므로,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천신과 함께 마을에서 요구되는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신령들을 모시며, 그 기능 또한 마을별·상황별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나. 마을 천제가 지닌 의미

마을 천제에 대한 기존의 조사·연구 성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 차원의 천제와는 달리 마을 천제는 마을 구성 요소와 환경,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한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특정 영역을 관장하는 산신이나 서낭신과는 달리 다양한 종교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 천제로 자리매김하여 전승되고 있다.

마을 천제가 지닌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천제가 지닌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심 마을에 있는 천제당에서의 천제는 상호 연결성을 지닌 여러 하위 마을 주민들을 아우르는 구심체 역할을 한다.

강원도·경상도를 비롯하여 많은 마을에서 큰서낭당·도서낭당·대서낭당 등의

136)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17~118쪽.



명칭을 지닌 마을제당들이 있다. 이것은 제당이 위치한 마을이 인근 마을의 중심지 역할을 하여 큰서낭당에서 마을 제사를 지낸 후 하위 마을에서 마을 제사를 지내는 상하 위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천제당은 이와 같이 여러 하위 마을 주민들을 아우르는 중심 제당 역할을 하여 같은 생활권 또는 문화권에 속한 하위 마을들이 천제를 통해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와 같은 역할은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지만 주변 상황의 변화에 의해 그 위상이나 역할이 변동되기도 한다. 즉 그 위상을 계속 유지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들 간의 관계성이 약화되어 천제당이 소재한 마을에서 천제당이 상당의 기능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종교적 기능은 서낭이나 당산할머니 등이 수행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는 앞서 소개한 삼척시 원덕읍 월천3리 가곡산 천제단,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삼척시 근덕면 교가2리 제동마을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들 마을에서는 천제당을 상당으로 여겨 가장 큰 정성을 드린다.

이에 비해 인근의 원덕읍 호산리 해망산 천제단에서의 제의, 도계읍 무건리 천제, 근덕면 초곡리의 천제, 근덕면 궁촌2리에서도 천제단에서의 제의를 상당에서의 제의로 여기고 있으나, 실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하여 성황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천제당의 기능이 약화되어 천제당에서 하위 마을 단위로 실행하는 서낭고사 또는 당산제만 행해지는 사례들도 많이 나타난다. 천제 중심의 마을 간 결속력이 약화되어 천제당에서 천제가 사라지고, 하위 마을 단위의 마을 제사만 명맥을 유지하는 정읍시의 내동마을, 삼척시 성북동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둘째,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천제단이 기우제장으로 기능하여 여기서 모셔진 천신이 가뭄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믿는 사례들도 있다.

즉 농촌에서 비가 안 내려 한발(旱魃)의 피해가 극심해지면 기우제를 천제단에서 지내기도 하였는데, 이를 ‘천제(天祭)’로 여기는 마을들 중 대표적인 사례를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활리 천제단은 1964년까지 부처바우[부처바위] 앞에 있는 마당바위[지금은 도로 개설되어 있음]에서 비가 오지 않아 농업에 큰 지장이 있으면, 황소를 제물로 하여 천제를 지냈다. 마을에서는 ‘기우제’라고도 하였으나, 비에 대한 염원을 하늘에 빌었기에 ‘천제’라 하였다. 기우와 함께 풍농과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천제를 지내지 않으면 마을이 없어진다고 하여 지낸다는 얘기도 전한다. 천제 지낸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로 봄에 날을 받아서 지냈는데, 주요 제물인 소는 동활리 주민들이 가구별로 성의껏 낸 돈으로 마련하였다. 마을이장이 주관하여 날을 받아 지냈으며, 제관은 생기를 맞추어서 삼헌관을 뽑았다. 마지막 천제의 제관은 ‘마을의 심구장, 순화 할아버지, 윤구장님네’가 담당하였다고 한다.

천제를 지내기 전날 현장에서 소를 잡은 후 다음 날 새벽에 제사를 지냈다. 이때 생고기를 제상에 진설하였는데 그 부위는 소머리·다리고, 이와 함께 메 1그릇, 채소, 술[막걸리]을 제단에 진설하였다. 진설이 끝나면 삼헌관들이 각각 술을 올리고 절을 한 후 소지를 올렸다. 이 때 개인 소지는 올리지 않고 동네 소지를 올리며 비와 풍농·풍요 등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천제를 지내면 3일 이내에 비가 온다고 믿었다.

부처바우가 있는 골짜기에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마는 물론 상여와 신행 가마도 다니지 못하였다.¹³⁷⁾

셋째, 역병이나 소 전염병 등이 창궐하면 나쁜 악질을 구축하려는 염원을 담은

137)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15쪽.

마을 천제를 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염원을 담아 천제를 지낸 사례는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천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마을에서는 소가 병이 들어 죽고, 마을 청년들이 다수 자살하는 등 우환이 끊이지 않자 마을 내 천제봉에서 10년에 1번씩 소를 희생으로 하여 낫을 받아 천제를 지냈다. 이후 마을의 우환은 사라졌으나, 그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¹³⁸⁾

위 사례 이외에도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금한동 천제,¹³⁹⁾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화개산 천제단에서의 제의,¹⁴⁰⁾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독미산 천제당¹⁴¹⁾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많이 발견된다.

그런데 금한동 천제 사례를 보면, 천제를 지낸 시기가 매년 정월 대보름 이전 좋은 날을 받아서 자시에 지냈다는 것으로 보아 천제를 지낸 계기는 역질 구축이었으나,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에서 3년에 한 번씩 지내는 마을 제의로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울진군 금강송면쌍전리를 비롯하여

138) 김도현, 「삼척시 내미로리 天祭」, 『종교학연구』 32, 한국종교학연구회, 2014, 54~68쪽.

139)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한동 천제 사례를 보면 역질 구축을 위해 천제를 지냈음이 축문에 잘 나타나 있기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覆印載印 恐有癘氣 延我東鄉 自遠及近 人多死亡 黎元憂悶 勞心焦腸 食不甘味 寢不安床 閭里齊聲 陳禱薦香 用伸虔告 崇酒于觴 悠悠昊天 日我爺孃 庶幾監臨 俾無愆殃 憐我愚悃 聽我勤禱 明命是降 赫威斯揚 驅除虐癘 呵禁不詳 廓清山川 安妥吾方 壽域和風 民物永昌 尙饗>

140) 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화산 천제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이 마을에는 軍馬를 키우는 목장이 있었는데, 군마가 병이 들어 죽으면 그 책임을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에 주민들은 정신적·신체적 危害를 피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군마가 병이 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을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농사와 바다일이 잘 되고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 하늘에 제사를 모신다고 한다.(나경수, 「개도리 화산 천제」, 『디지털여수문화대전』(<http://yeosu.grandculture.net/GC01302265>))

141) 쌍전리 동제는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의 덕거리(쌍전1리) 대봉전 마을 앞 독미산에 있는 천제당에서 3년에 한 번 음력 정월 14일 子時에 마을의 태평무사와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天神에게 지내는 마을 제의이다. 쌍전리에서 전해 오는 '천제당 이야기'를 보면 예정된 날에 제를 모시지 않으면 마을에 돌림병이 돌거나 흉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 때문에 쌍전리 주민들은 태평무사와 豐農을 기리고 재앙이 없기를 기원하는 마을 제사를 3년에 한 번이라도 지내고 있다.[김도현, 쌍전리 동제],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GC01801358>)

마을 제사로 정착되어 전승되는 유사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역질 구축을 위해 천제를 지낸 전통이 정기적으로 지내는 마을제의 전통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영역을 관장하는 산신이나 서낭신과는 달리 최고의 능력을 지닌 신령으로 여겨지는 천신은 연결성을 지닌 다수의 하위 마을 주민들이 1년 또는 수년에 한 번씩 열리는 천제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 비정기적으로 기우(祈雨)를 위해 천제를 지내거나, 역질 구축 등 특정 기능을 하는 신령들이 해결할 수 없는 종교 기능을 수행하는 신령이고, 이를 마을에서 모신 제의가 마을 천제이다.



V. 태백산 소재 신당에서 천신(天神) 모신 전통

1. 개요

태백산 자락에는 개인이 소유한 많은 산당들이 있다. 조사한 산당은 태백산 당골에 있는 윤씨산당·유복산당·불정암·배씨산당·진주산당, 백단사 계곡에 있는 백단사·미륵암·약수암·편일암·태백산 산당대왕사, 유일사로 향하는 능선에 있는 태백사, 사길령 아래에 있는 팔보암, 함백산 소룻골에 있는 팔도산당, 장산 아래에 있는 어평마을 마고할머니당, 금천계곡에 있는 금천문수산당, 사배리골에 있는 문수산당·김씨산당·송죽인화 그리고 함백산 절골에 있는 함백암이다.

태백산에 소재한 산당의 일반적인 구조는 입구에 서낭당이 있고, 제당 또는 건물 입구에 걸립 또는 오방신장을 모신 사례들도 있다. 서낭당은 신당의 입구로 여겨서 중요하게 여긴다.

신당 내부는 불교와 무속이 융합된 팔보암과 백단사는 대웅전이 중심이지만, 무속 중심의 개인 신당은 대부분 산신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령을 모신 제단 또는 제당을 배치하였다.

개인 신당 내에 천신을 모시는 제단을 설치한 곳은 윤씨산당·유복산당·함백암·대왕사·미륵암 등인데, 대부분 노지에 제단을 마련하였고, 윤씨산당은 비가림 시설을 하였다. 돌로 만든 제단 위에 천신을 상징하는 세장방형의 돌을 세워 천신으로 여긴다. 약수암에는 천궁(天宮)이라 칭하는 천제단이 있는데,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제단을 모방하여 만들었다.

산신당에는 일반적으로 주신(主神)으로 태백산신을 모시고, 좌우에 협시하는 신령으로 칠성이나 오방신장 등을 모시며, 동자도 함께 모신다. 미륵암·대왕사·팔보암 등 많은 신당에서 단군을 모신 사례들도 있다. 이 때 단군을 일반적으로

조상으로 여긴다. 이와 같은 신령들과 함께 대신할머니·세존·용왕·장군 등을 함께 모신 사례들도 있다.

산신당과 함께 모든 신당에는 용왕당이 있다.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샘솟는 곳에 설치하였는데, 천신줄이나 산신줄, 삼신줄, 칠성줄 등이 연결되어 통한다고 하여 이곳에서 천신기도나 산신기도, 삼신기도 등을 드리는 사례들도 많다.

이외에도 칠성단·문수단·미륵단 등을 설치한 사례도 있다. 신당이 지닌 영험함이 잘 표출된다고 여겨지는 신령들을 이들 신당에서 주로 모신다.



태백산 윤씨 산당 전경



태백산 윤씨 산당 내 천신단



태백산 당골 배씨 산당 내 천신단



2. 신당 형태와 활용

개인 산당 내에 설치된 천신단은 신당 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나, 깨끗하고 조용한 곳에 위치한다. 대왕사·팔보암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데, 천제단 바닥을 넓직한 돌로 편평하게 마감한 후 일자형(一字形) 돌제단을 설치한 후 그 위에 천신등을 제단에 세워진 세장방향 돌에 모신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천신 기도를 드리거나 내림굿을 선행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든 팔보암·대왕사·약수암·윤씨산당 등의 사례가 있으나, 산비탈에 작은 규모로 만든 함백암 등의 사례도 있다. 이에 그 규모가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함백암 천신단 사례를 소개하면, 법당 뒤 산자락에 바위가 메(山) 형태로 되어 있는 곳에 설치하였는데, 허공으로 되어 있는 천신 기도터이다. 천신단에 오르기 힘들어서 3년 전에 회향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신단에서 사용한 옥수 그릇과 촛대는 아직까지 비치되어 있다. 그 아래에 천신 기도드리는 제단을 별도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운영하였는데, 이 또한 최근에 유지하기 힘들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적으로 천신 기도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그 아래에서 간단하게 정성을 드리고 있다.

태백산 사배리골 김씨산당의 천신단은 국기 게양대 형태로 조성하여 태극기와 세존기·산신기를 걸어두었고, 제단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었다. 천신을 위한 제물은 별도의 상을 준비하여 그 아래에 제물을 진설한다.

천신단에서 천신제를 지내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살들이다. 천신(天神)의 기(氣)가 매우 크고 강력하여 일반인들은 감당이 안 된다고 하여 일반인들은 천제단에서 천신 기도를 드리는 사례가 매우 적다.

천신단에서 내림굿을 하거나 별도의 천신제를 지낸다면 많은 제물을 준비하지만, 대부분 천신에게 인사오거나, 산신제 등을 지낼 때 상위 신령께 인사드리러

온다는 생각들이기에 인사드리는 정도의 간단한 제물을 준비하여 천신을 위한다.



태백산 백단사계곡 내 미륵암 천신단 1



태백산 백단사계곡 내 미륵암 천신단 2



태백산 백단사 내 천신단 전경 1



태백산 백단사 내 천신단 전경 2

3. 전승 양상

태백산에서 일반적으로 최고 신령으로 천신을 상정하지만, 실제 최고 신령은 ‘천신(天神)’이라기보다는 ‘천령지신(天靈之神)’이다.¹⁴²⁾ 이에 아래에서 ‘천신(天神)’이라 쓴 표현은 ‘천령지신(天靈之神)’을 이르는 것이다.

142) 天神은 하늘을 다스리는 또는 관장하는 지위를 지닌 신령을 의미한다. 즉 ‘지위’라는 개념을 설정한 용어이다. 이에 비해 천령은 지위보다는 하늘이 지닌 신성한 靈,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에 하늘에 대한 기도의 대상 신령은 지위를 의미하는 天神이 아니라, 신성한 靈, 그 자체를 의미하는 天靈,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天靈에 의탁하려는 것’이다. 이에 하늘에 대한 기도의 대상은 ‘天靈’ 또는 ‘天靈之神’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시 남양동 천제당, 무속인들의 개인 신당에도 ‘天靈’ 또는 ‘天靈之神’을 모신 사례들이 많다.



태백산 소재 산당의 천신단 또는 천제단에서 ‘천령지신’을 위하는 유형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 ① 내림굿을 하기 위해 천신단에서 천신을 위하는 유형
- ② 종교적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천신제를 지내는 유형
- ③ 산당에 기도하러 오는 개인이 자신의 주신(主神) 또는 상당신으로 여기는 천신(天神)께 인사드리는 유형[하늘의 영(靈)을 내림굿으로 받은 무속인 포함]
- ④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제단이나 장군단에서 천신기도 또는 위하는 유형[산당에 천신단 설치 유무(有無)와 무관]
- ⑤ 천신 기도를 할 때 천신줄이 허공[공간 제약이 없기에] 또는 물줄기를 통해 전달되기에 산당 내에서 하늘과 잘 통하는 곳 또는 용왕당 옆에서 천신 기도를 하는 유형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림굿을 받기 위해 천신단에서 천신을 위하는 유형은 신내림을 받은 사람의 몸주가 천신이면, 천신단에 가서 내림굿을 받는다. 그런데 천신(天神)의 기(氣)가 매우 크기에 이를 못 견디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내림굿을 받았더라도 기(氣)가 소진되어 매우 힘들어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태백산 사배리골 김씨산당 천신단에서 천신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 천신단 앞에 천신상을 차리는데, 과일 5가지, 쌀, 초, 향, 삼실과 백설기 등을 준비하여 진설한다. 이 때 천신이 내린 영험함을 표출하기 위해 천신단 앞에서 작두를 타는 사람도 있다. 지금은 작두 대신 용동우타기를 하여 내림굿을 하는 중에 천신 공수를 내려 받는다.

둘째, 종교적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천신을 직접 위하는 유형이 있다. 천신단에서 종교적 염원을 이루려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 최고의 신령인 천신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여 지극 정성으로 위함으로써 희망하는 종교적 염원이 달성되길 기원한다. 이 때 깨끗한 제물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부분 생공양물을 올린다.

천신을 주신(主神)으로 위하기 위해 함백암에 온 보살이 준비한 제물을 소개하면, 생고기[보통 소고기, 소·돼지머리는 안 올림], 생공양, 과일, 술[곡주], 삼실과를 올리고, 상황에 따라 메을 지어 올리고, 나물을 올리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동자동녀를 위한 사탕도 올린다.

셋째, 하늘의 영(靈)을 내림곳으로 받은 무속인이나 산당에 기도하러 오는 개인이 상당신인 천신께 인사드리는 유형이 있다. 산당에 천신단이 있는 경우 이곳에서 천신줄을 받아서 내림곳을 한 보살은 이후 기도를 드리러 올 때 해당 산당의 천신단에서 반드시 인사를 드린다. 이와 함께 함백암 사례를 보면, 천신 기도를 드리기 위해 산당을 찾은 사람들 또한 산당에 와서 천신께 먼저 인사를 드린 후 제물을 차리고 부처님과 산신의 순서로 인사를 드린 후 천신단에서 천신 기도를 드린다. 태백산 사배리골 김씨산당 사례를 보면, 산신을 위하러 오거나, 간단한 기도를 위해 들린 사람들도 산신에 마지를 올리거나 간단한 정성을 드리기 전에 천신에게 먼저 인사드리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 산당에 천신단이 없거나, 천신 기도를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제단이나 장군단에서 천신을 위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제단에서 기도를 드리는 유형이 있다.

태백산 내에 있는 산당이나 기도터에서 기도를 드리는 중에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제단에 와서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들은 태백산 정상에 천신이 강림하는 최적의 장소라고 여겨 천신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



일부 보살들은 태백산 내 산당에서 천신을 위하고, 천신 기도를 한 후 다시 태백산 천제단과 장군단에 와서 정성을 드리는 사례들도 있다. 이들은 태백산에서의 기도에 정성을 더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올라와서 정성을 드린다고 하였다. 이들은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제단에는 맑은 신령, 즉 천신이 좌정한 곳이고, 장군단에는 천신을 수호하는 수호 신장이 계신 곳이라 여긴다. 이에 천제단에 먼저 들러 정성을 드린 후 장군단에서도 정성을 드린다.

산당에 천신단이 없는 금천 문수산당의 사례를 보면, 이곳에서 기도를 한 후 천신 기도를 하거나, 상당신으로서의 천신께 인사를 드려야한다고 여길 경우 태백산 천제단에 올라가서 천신을 모신다.

다섯째, 천신 기도를 할 때 천신이 허공에 있다고 여겨 산당의 적당한 곳에 좌정하여 천신 기도를 하거나, 산당에 천신단 존재 유무(有無)에 상관없이 천신줄이 통하는 용왕당 옆에서 천신 기도를 하는 유형이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대부분의 산당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물이 나오는 샘이나 맑은 물이 흐르는 곳 옆에서 용왕을 위할 뿐만 아니라 천신 기도나 산신 기도, 칠성 기도를 하는 사례들은 매우 많다. 이들은 물줄기를 통해 천신줄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곳에서 기도하면 좋은 효험이 있다고 믿는다.



태백산 천제단에서 개인 천신기도를 위한 제물 차림



태백산 천제단에서 개인 천신 기도



태백산 팔보암 천신단 입구



태백산 팔보암 천신단 근경



태백산 팔보암 천신단 정면



태백산 팔보암 천신단에서 인사드리는 사람들



태백산 백단사계곡 내 편일암 전경



태백산 백단사계곡 내 편일암 천신단



함백산 함백암 전경



함백산 함백암 내 천신단



태백산 새배리골 김씨산당 천신단



태백산 새배리골 김씨산당 천신단 전경



태백산 백단사 계곡 약수암 천신단 1 표석



태백산 백단사 계곡 약수암 천신단 1 근경.



태백산 백단사 계곡 약수암 천신단 1 원경



태백산 백단사 계곡 약수암 천신단 1



태백산 백단사 계곡 약수암 천신단 2(정면)



태백산 백단사 계곡 약수암 천신단 2(측면)



태백산 당골 유복산당 전경



태백산 당골 유복산당 천신단 입구



태백산 당골 유복산당 천신단





VI. 태백산 기반 신종교에서 천신을 모신 전통

1. 개요

태백산지역에서 신종교도들이 활동한 사례는 매우 많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동학의 제2대 교주 최시형이 태백산 적조암에서 49일 특별기도(천신 기도)를 드리면서 조식을 정비하여 동학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사례와 태극중앙명류도에서 태백산 청상에 천제단을 쌓아서 독립 기원제를 지냈다는 사실이다.

위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태백산에 기반으로 하여 신종교에서 천신을 모신 전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최시형의 활동과 동학

가. 강원도지역에서의 동학 운동

강원도 지방에도 일찍이 동학이 포교된 것으로 보이는데, 최제우에 의해서 홍천 북방면 지역에서 포교활동이 있었고,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곧은골 지역에도 동학당이 설치되어 몰래 동학이 포교되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¹⁴³⁾

그 후 1863년 동학의 교조 최제우가 흑세무민이라는 죄로 체포되어 1864년 3월 10일 처형된 후, 동학은 국가로부터 무수한 탄압을 받게 되었다. 최제우를 따르던 측근들 20여 명이 체포되어 일부는 처형되고 일부는 귀양을 가게 되었으며, 일부는 체포되지 않고 도망치기도 하였고 체포를 면한 제자들이나 신도들은 최제우의 시신을 수습하여 용담에 안치하고 최제우의 유족들은 단양의 접주 민사엽의 집으로 옮겼으나 얼마 안 있어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두곡으로 피신하였다.¹⁴⁴⁾

143) 강원향토문화연구회,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전적지 성역화사업 기본 계획』, 홍천군, 2004.

144) 姜時元, 『崔先生文集道源記書』, 1880.

최제우 측근의 한 사람이었던 최시형은 강시원과 같이 채삼인으로 가장하고 산악지대로 숨어들어 해마다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의 산중턱에 있는 바위굴에서 기거하면서 식량을 얻지 못하여 초근목피로 15일간을 연명하다가 다행히 박용걸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 그 후 박용걸과 그 아버지를 교인으로 입교시키고 의형제를 맺어 박용걸 집에서 은거하며 49일 기도제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그는 박용걸을 만남으로써 동학재건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후 신시일과 유시현을 교도로 입교시킴으로써 영월·정선 지방에 포교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872년 최제우의 유족들을 박용걸 집으로 이거시키고 포교에 열중하였다.¹⁴⁵⁾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지역은 평창·정선·영월·강릉·삼척·홍천·원주·횡성·양양·기린·간성·인제·김화·금성 등지였다. 그 가운데서도 평창·정선·영월·강릉·삼척·홍천 등지에서 활동이 활발하였다. 교단 측의 자료를 보면 강원도에서는 1894년 9월에 원주에서 이화경(李和卿)·임순화[林淳化 또는 林淳華], 횡성에서 윤면호(尹冕鎬), 홍천에서 차기석·심상현(沈相賢)·오창섭(吳昌燮) 등이 기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¹⁴⁶⁾

나. 동학교도들이 태백산 권역에서 활동한 배경

영해신원운동과 문경작변이 실패로 끝난 후 최시형을 비롯한 동학교도들이 영월과 정선 등 태백산 권역에 은거한 배경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배경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해신원운동 후 최시형은 강원도 영월·정선과 충청도 단양 세 고을이 맞닿은 강원도 영서의 산악지역으로 피신하여 동학조직의 재건활동을 벌였다. 이들 지역은 영해 민란 이전에 동학이 포교된 지역으로 동학교문과 연고가 있어 관의 추

145) 姜時元, 『崔先生文集道源記書』, 1880.

146) 강원향토문화연구회, 『홍천 풍암리 동학혁명군전적지 성역화사업 기본 계획』, 홍천군, 2004.



격을 받던 최시형 등이 피신하기에 적합하였다. 영월지역은 일찍이 1864년 3월 경 최제우의 제자 이경화가 귀양 와서 영월 소밀원 일대를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한 뒤 장기서라는 교도가 있었다. 단양지역은 1862년 말에 민사염이란 인물이 접주에 임명될 정도로 최제우 재세시 상당수의 교도들이 활동한 곳이었다. 최제우가 처형당한 뒤인 1864년 4월에 민사염은 최제우 유족의 피신처를 알선하여 정선 문두곡으로 이주시킨 적이 있었다. 영해신원운동 이후 이곳으로 피신해 온 최제우 재세 시부터 또는 영해민란 이전부터 동학과 연고가 있던 정선·영월·단양 세 고을의 접경지역 중에서도 영월 소밀원, 영월 직동, 정선 무은담, 정선 미천, 영춘 장현곡, 단양 사동 등을 비밀 포교지로 삼아 동학 재건 활동을 벌였다.¹⁴⁷⁾

특히 주목할 점은 최시형의 동학교문 안에서의 지위가 보다 확고해진 계기는 역설적으로 1871년 ‘신미교조신원운동’, 즉 영해민란의 실패 직후였다. 왜냐하면 교조신원을 명분으로 봉기를 주장했던 변란 세력의 대표 이필제와 동학의 교리 또는 교세를 이용하여 구향(舊鄕)들의 탄압을 막으려 했던 신향(新鄕) 출신 교도들이 대거 희생당함으로써 1871년 3월 이후 동학교문 조직은 자연스럽게 최시형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실제 최시형은 ‘영해민란’ 과정에서 이필제에게 압도당하여 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모든 교도들을 통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영해민란이 실패하고 이어 그해 8월의 문경작변마저 실패하여 이필제와 그를 따르던 세력들이 모두 체포됨으로서 최시형이 중심이 되어 교문 재건활동을 벌이게 되었으며, 영해민란 와중에 살아남아 피신해 온 강시원·전성문 등이 모두 최시형과 의형제로 결속하고, 강원도 정선·영월·인제, 충청도 단양·영춘 등지에서 새로 입교한 인물들이 모두 최시형을 중심으로 결속함으로써 비로소 최시형 중심 지도체제가 구축되기에 이른 것이다.¹⁴⁸⁾

147) 박맹수, 「최시형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5.

148) 박맹수, 「최시형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5.

최시형은 18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사실상 동학교문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1864년 이후 지속되어온 동학교문의 과도기적 지도체제를 극복하고 단일지도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영남지방에서는 태백산을 진산으로 여겨 모든 산과 물줄기가 태백산에서 유래한다고 여겼으며, 실제 문인들에 의한 이곳으로의 유람 또한 많이 행해졌다. 이와 함께 동학교도들이 1870년대에 피신하여 생활하였던 충청북도 단양·영춘, 강원도 영월·정선 등은 넓은 의미에서 설정할 수 있는 태백산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태백산 권역에서는 이미 신라,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국가 차원이나 지방 차원, 또는 개인 차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치성을 드린 전통이 있었기에 이들 동학교도들도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49일 기도를 드린 천의봉은 현재 백두대간 상에 있는 금대봉 줄기에서 이어진 산으로써 조선 후기의 기록을 보아도 여기에 신을 모셨다고 전한다.¹⁴⁹⁾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학교도들은 처음 창도되었던 경주, 그리고 초기에 세력이 확장되었던 경상도 동해안과 내륙지방을 거쳐, 그 활동 범위가 점차 강원도와 충청도로 확장되는 과정에 영해신원운동과 문경작변과 같은 큰 실패를 경험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지도자들의 희생과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하늘에 제사지낸 전통이 매우 강하고 과거 영남지역의 진산으로 인식되었던 태백산 권역으로 1870년대에 자연스럽게 이동하여 이곳에서 그 기반을 다시 정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870년대에 해월을 비롯한 동학교도들이 주로 활동한 지역이 태백산 자락이라는 것은 다음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 정선 남면 무은담에 거주하였던 유인상은 ‘무은담’이라는 이름이 좋고,

149) 김도현, 『史料로 읽는 태백산과 천제』, 강원도민일보사, 2009.



또 산수가 좋은 태백산을 찾아와 살고 있던 사람으로, 학문과 재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시골 양반¹⁵⁰⁾이라고 『도원기서(道源記書)』에 기록되어 있다. 즉 유인상이 살았던 무은담을 태백산 자락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해월이 기거하였던 박용걸 집은 영월 직동이며, 이곳을 드나들었던 유인상의 집은 정선 남면 무은담이다. 유인상이 살던 정선의 무은담과 영월 직동은 크게 먼 지역이 아니다. 무은담에서 별어곡을 지나 자울재라는 고개를 넘어, 함백(咸白)을 거쳐 길운산(吉雲山) 옆으로 난 고개를 넘으면 직동 바로 아래 동네인 큰 터 골짜기를 만나게 된다. 이 산간 소로 또한 태백산 자락에 속해 있다.

셋째, 해월을 비롯한 동학교도들이 49일 특별 기도를 행하였던 적조암은 강원도 동부에서 가장 높은 해발 1,573m의 함백산(咸白山) 한 봉우리인 천의봉(天宜峯 또는 天義峯)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주위에는 태백산(1,567m), 태장산(1,409m), 대덕산(1,307m), 백운산(1,426m), 매봉산(1,303m), 조록바위봉(1,087m), 지장산(931m) 등의 높은 산들이 솟아 있다. 이들 산들 또한 태백산 자락에 속하는 산들이다. 그러므로 적조암 또한 태백산 자락에 속해 있다.

넷째, 1872년 적조암에서의 49일 특별 기도를 마치고, 해월 선생이 남긴 시(詩)를 보면 ‘태백산 중에 들어 49일의 기도를 드리니[太白山中四十九]¹⁵¹⁾’라는 시구(詩句)가 있다. 해월은 그가 기도한 적조암이 태백산 중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해월이 1874년 이후 정착한 단양 도솔봉 아래에 있는 사동이나 송두둑마을이 비록 좁은 범위에서는 소백산 자락이지만 조선시대의 각종 유산기에 적힌 태백산 권역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큰 범주에서 태백산 자락에 속한다고 볼

150) 박맹수, 「최시형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5.

151) 「太白山工四十九」의 시에 관하여, 동학교단의 기록에는, 훗날 이 시에 對句가 될 다른 隻句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과 같은 말을 담고 있다. (『천도교서』, 『천도교창건사』, 『시천교역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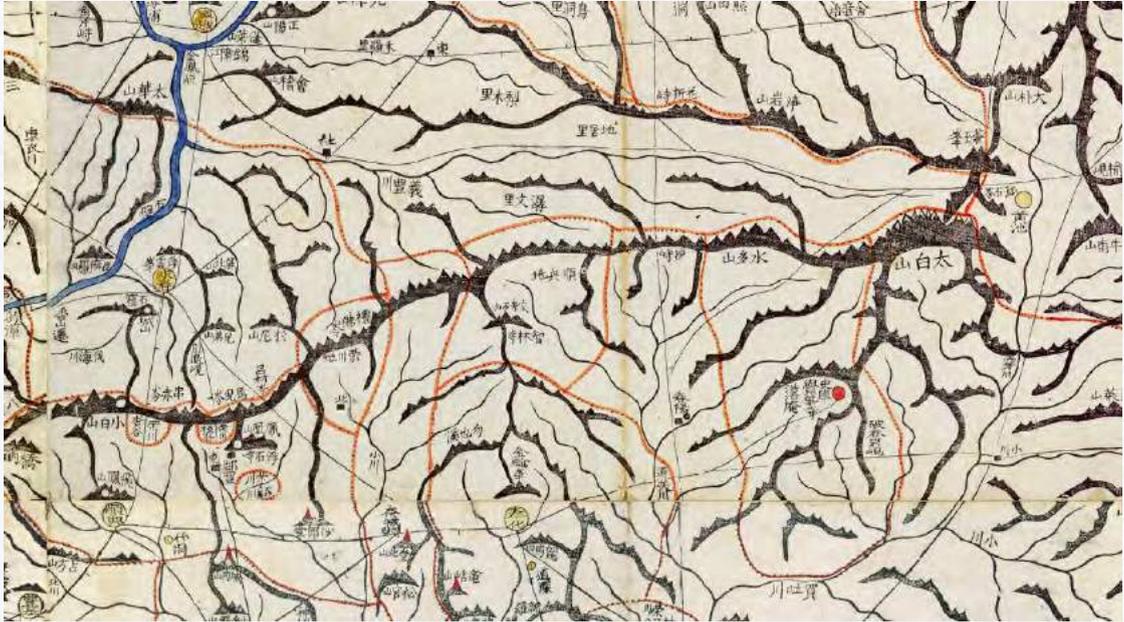
수 있다.

그러므로 1870년대에 해월과 동학교도들은 큰 범주로 설정된 태백산 자락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동학 조직을 정비하고, 각종 제례 의식과 수련법, 경전 간행 등을 하여 동학을 체계화하여 1880년대 이후 전개된 전국 단위의 동학 운동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영월·정선·단양이라는 행정적인 구분보다는 태백산 자락이라는 지형적인 연결성을 중심으로 1870년대 동학교도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함은 각종 고지도에 나타난 산줄기와 강줄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 동학 재건을 위한 활동

수운 최제우가 순도한 이후 최시형은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산 용화동에 은거하며, 교단 부활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곳에 동학교도들에 의한 신앙공동체 마을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필제가 주도한 영해작변에 동참하고, 이후 문경에서 이필제가 다시 거사하였으나 실패함에 따라 동학교도들은 관군의 추격을 피해 태백산 자락으로 피하게 된다. 즉 1871년부터 1875년 사이에 영월 직동, 정선 무은담, 단양 사동과 송고촌으로 옮겨 다니며 동학교도들을 모으면서 신앙 활동을 하였다. 이 과정에 49일 특별 기도법을 정립하였고, 동학 제례를 정비하였으며, 개접을 통해 보다 확대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동학 역사 기록인 도적(道跡)과 경전 간행을 추진하였다. 1870년대에 행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동여지도〉[1870년대 동학교도 활동 관련: 태백산, 영월 직동, 정선 남면, 단양 송고촌]

1) 49일 특별기도 수련법 확립

1871년 강수와 함께 태백산 줄기 바로 아래인 영월 직동[영월 상동읍 소재] 박용걸 집에 은거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동학 재건 계획을 수립한 최시형은 이필제 등의 위계에 따른 것도 신앙의 심지가 약해서라고 자책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신앙적인 수행 방법을 고민하면서 궁극적으로 후천의 개혁을 열기위해 올바른 수행을 통해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깊이 자각하게 된다. 이를 위해 ‘49일 특별 기도’를 창안하여 1872년 1월 5일 49일 기도를 끝내고 고천식(告天式)을 거행하였다.

영월 직동에서 정선의 유시현 집으로 와서 머물게 된 최시형은 인근에 있는 갈래산 적조암에 들어가 강시원·유시현·전성문과 함께 1872년 10월 15일부터 49일 기도를 시작하여 12월 5일에 마쳤다. 『도원기서』에 따르면 이 때 행한 기도 방법은 네 사람이 둘러 앉아 한결같이 동학의 주문을 읽으며 수련에 임하는 것이었다. 기도에 정진하는 동안 계절이 바뀌어 주변이 온통 눈꽃으로 덮여 장관을

이루는 모습으로 변하였다. 매서운 실 바람은 청아한 음악 소리를 내고 있었다. 최시형은 이 광경을 보고 감회를 시로 나타내었다.

태백산중에 들어 49일의 기도 드리니[太白山上四十九]

한울님께서 여덟 마리 봉황을 주어

각기 주인을 정해 주셨네.[受我鳳八各主定]

천의봉 위에 핀 눈꽃은 하늘로 이어지고[天義峯上開花天]

오늘 비로소 마음을 닦아 오현금을 울리는구나.[今日琢磨五絃琴]

적멸궁에 들어 세상의 티끌 털어내니[寂滅宮殿脫塵世]

뜻 있게 마치었구나. 49일간의 기도를.[善終祈禱七七期]

최시형은 1874년 4월에는 정선 남면 사동, 1881년 10월 태백산, 1882년 6월 단양 남면 송두독, 1884년 6월 익산 미륵사 사자암, 1884년 10월 공주 가십암, 1887년 3월 정선 갈래산 적조암에서 49일 수련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는 49일 수련법이 동학에서의 수련법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여 강원도를 떠났어도 이 수련법을 계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⁵²⁾

49일 특별 기도를 통한 수련법이 지닌 의미는 첫째, 해월 선생이 주도한 교단 정비의 새로운 계기를 이루는 정점이 되었고, 둘째, 49일간의 특별 기도를 동학 교단을 이끄는 주요한 방법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행하였는데, 훗날 동학의 주요 지도자가 된 손병희·박인호·서인주(徐仁周)·손천민(孫天民)·이원팔(李元八) 등에 대한 지도에도 활용하였다. 셋째, 무너진 교단을 일으키는 길은 다름 아닌 수련을 통한 ‘신앙에의 결사’에 있음을 해월 선생은 깊이 자각하고 이를 실행함

152) 박맹수, 「최시형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5.



에 따라 동학을 널리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¹⁵³⁾

2) 제례 정비

1872년 1월 5일 영월 직동에서 49일 특별 기도를 끝내고 최시형은 이필제의 난에 휘말리는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고, 많은 교도들이 희생되었음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 지난날의 허물을 뉘우치는 축문을 지어 한울님께 고하는 의식인 고천식(告天式)을 거행하였다. 이후 1872년 3월 10일 수운 선생 기일 제사, 1872년 4월 5일 수운 선생 득도일을 맞이하여 영월 직동 박용걸의 집에서 승통제사를 지내고, 1872년 10월에 태백산 적조암에서 49일 특별기도를 행하면서 영월과 정선을 오가며 동학교도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하는 등 동학 조직 복원에 주력하였다.

점차 조직이 안정되고, 관아에서의 토벌 활동이 약해졌고, 1874년 수운 부인 박씨 장례식도 끝내면서 안동 사람 권명하의 도움으로 단양 남면 사동[장정리에 속함] 도솔봉 아래에 거처할 집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당시 강수, 김연국, 김용순 등이 해월이 사는 곳 근처로 이사 와서 같이 활동하게 된다.

해월은 1875년에 사동 인근의 큰 마을인 송고촌(송두둑)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동학은 그 조직과 활동이 다시 안정화 되면서 체제 정비를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의례를 정비하여 포덕 20년(1879)에 이르러서야 겨우 의례의 제도화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 시기에 이르면 신념 체계도 체계화되었고 조직도 안정되어 갔다. 아울러 의례 제도도 기본 틀을 이루게 되었다. 수운 최제우는 창도 후 3년 만에 순도하여 제도화할 시간이 없었다. 뒤를 이은 해월신사에 의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동학은 제도화된 제례를 완성할 수 있었다.

제례는 당시 상황을 반영하면서 시기에 따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변

153) 윤석산, 「정선, 영월, 단양 지역과 동학」, 『정선지역의 동학 활동 심포지움 자료집』, 2010.

화과정은 ‘고천제례 → 설법제 → 구성제 → 인등제(告天祭禮 → 說法祭 → 九星祭 → 引燈祭)’로의 변화이다.

3) 동학 관련 유허지 - 적조암

갈래산 적조암은 현재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정암사의 부속암자인 적조암을 가리킨다. 적조암은 1871년 3월 영해 교조신원운동 직후 영월·정선·단양 접경지역으로 피신해 온 최시형이 1872년 10월 몇몇 교도들과 입산하여 49일 수련을 한 뒤 동학 교단의 중요한 수련장소이자 비밀 포교지의 하나가 되었다.

적조암은 고한에서 약 6km 정도 북동쪽으로해발 1,200m에 이르는 고지대에 있다. 이곳에서 수행하던 스님은 ‘철수좌(哲首座)’라 불릴 정도로 공부를 매우 많이 하여 그 공력이 매우 높은 경지에 오른 선승이면서 연로한 분이었다.¹⁵⁴⁾ 최시형과 강수·유인상·전성문·김해성 등은 포덕 13년(1872) 10월 14일에 양곡을 지고 산으로 들어갔다. 적조암에 주석하셨던 노스님은 동구까지 내려와 맞아주었으며, 하오 4시경에 도착하자 감자를 찌서 내어놓았다. 이튿날 김해성은 돌아가고 최시형과 강수·유인상·전성문 4인이 제각기 자리를 정하고 15일부터 49일 기도에 들어가 12월 5일(양 1873년 1월 3일)에 이르러 수련을 무사히 마쳤다.

최시형은 영해 교조신원운동 직후인 3월 15일경 관의 추격을 피해 용화동 상죽현을 탈출하여 단양 영춘 부근으로 피신하였다. 그는 적조암에 입산하기까지 끊임없는 관의 지목과 체포령에 시달리며 단양 영춘, 영월 소밀원, 영월 직동, 정선 무은담, 인제 등지를 전전하며 피신에 여념이 없었다. 영해 교조신원운동 실패로 경상도 일대 수백 명의 교도들이 희생당한 데 이어 1871년 3월부터 1872년 10월 사이에도 최제우의 장남 세정(世情)이 양양에서 장사(杖死)당하고, 세정의 처와 최제우의 차녀가 인제에서 체포당했으며, 최시형 주위에는 강시원·전성

154) 윤석산, 「정선, 영월, 단양 지역과 동학」, 『정선지역의 동학 활동 심포지움 자료집』, 2010.



문·황재문 등 경상도 출신 소수 교도들만이 남아 있었고, 강원도로 피신해 온 이후 정선 무은담, 영월 소밀원과 직동, 단양 영춘 등지에서 새로 입교한 소수의 교도들만이 있었다. 이 무렵 동학교단은 거의 와해지경에 이르렀고, 교도들의 정기적 모임 구실을 했던 계(契)도 유명무실해졌으며, 연중 세 차례에 걸쳐 각 지방 교도들이 모여 봉행하던 기제[忌祭: 3월 10일], 득도기념제(4월 5일), 탄신제(10월 28일)마저도 제때 봉행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도생(圖生)을 위한 필사적인 피신생활만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이 같은 어려운 시기에 최시형은 어떻게든 영해 교조신원운동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피신지인 강원도를 중심으로 동학교단 재건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1872년 10월 적조암 입산 수련은 바로 영해 교조신원운동 이후 강원도를 기반으로 한 동학교단 재건활동의 효시였다.

1870년대부터 동학교문의 중요한 비밀 포교지의 하나로 등장한 정선 갈래산 적조암은 1880년대 동학교문의 중요 지도자들의 입산 수련함으로써 동학교문의 중요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지 역할을 하였다. 이 적조암 수련에서 주목되는 것은 동학의 주요 지도자들이 최시형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련기간은 대체로 49일이었다. 49일 수련 전통은 1872년 최시형·강시원·유시현·정성문 등이 적조암에 입산하여 수련을 한 이후 동학의 주요한 수련전통이 되었던 것이다.



적조암 가는 길 안내석



적조암 편액



동학 관련 적조암터 표시석



적조암터 전경

3. 천지중양명류도의 활동과 천제

태백산이 지닌 민족의 영산이라는 관념 속에서 구국의 성지로 인식된 것과 관련하여 1937년 태극교도[천지중양 명류도]들의 활동이 주목된다.¹⁵⁵⁾

태극중양명류도는 1907년 송병화(宋炳華)가 창시한 유교계의 신종교이다. 당시 본부를 서울에 두었으나 그 뒤 곧 소멸하고, 함경북도에 설치된 성진지부·길주군지부·함경북도총지부와 함경남도의 단천지부만 교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길주군지부와 함경북도총지부는 1932년 길주교화원으로 병합되면서 소멸되고, 성진지부 하나만 남게 되었다. 공자를 숭배하고 유교정신을 이어받아 도법예의(道法禮儀) 생활의 실천을 교지로 하였다.

이들의 교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태극성은 조선독립을 기념(祈念)하는 자의 도성도신(導星導神)인 바, 이에 기원하면 천지개벽 때 후천세계가 출현해서 조선은 독립하고 교도만이 고위고관에 올라 자손번영할 것이라는 것인데, 전적으로 정감록을 부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입교자(入教者)는 봄·가을에 열리는 공자제(孔子祭)에 참석하여야 하며, 이때

155) 昭和十六年 刑公 第 310號/事件番號 昭和16年刑第936號 재판 기록



개최되는 강회(講會)에서 한문 실력을 시험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는 교단 임원인 유사(有司) 또는 도유사(都有司)로 임명된다.

1년마다 열리는 임원선거총회에서는 교단 발전에 공이 있거나 덕망이 있는 사람을 뽑아 교장(敎長)·장의(掌議)·도유사·교감(敎監) 등에 임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입교하였는데, 그 이유는 유생·양반의 지위를 획득하여 상층계급이 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성진지부의 경우 1908년 4월 성진읍에 사무소를 개설한 지 얼마 안 되어 2,000여 명이 입교하였으며, 길주지부에서도 1910년 4월 길성면 지부설립과 동시에 1,800여 명이 입교하였다. 당시 입교자가 임원이 되려면 2원에서 5원의 의연금을 납부하고 피로연 음식비도 많이 내야 하였으나, 서로 경쟁하며 다액의 기부금을 납부하였다.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폐해가 나타나게 되자 일제 당국이 조정에 나서게 됨으로써 교세가 침체되었다. 1934년 당시 포교소 두 곳과 2,275명의 신도가 있었는데 신도는 전부 남자였다.¹⁵⁶⁾

태극중앙명류도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930년 4월: 천지개벽 때 함경도는 삼재팔난(三災八難)이 닥친다고 하여 교도를 이끌고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금강산 기슭으로 이거
- 1930년 9월: 같은 이유로 다시 삼척군 상장면 태백산 기슭으로 이주
- 1939년 3월: 이 즈음까지 함경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포교에 종사하여 수백 명의 교도 확보
- 이 후: 독립기원제 거행하는 외에 함부로 국유림 개간, 교도에게 유골 개장

156) 村山智順, 『朝鮮의類似宗教』, 조선총독부, 1935.

을 명하는가 하면 의료 유사행위를 하다가 검거됨

그러므로 한말~일제강점기에 태백산 자락에서 천신을 모신 제의는 태백산 정상에서 천제를 지내는 전통으로 확립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천신을 모시는 전통은 각종 산당이나 신종교에서 천신을 모신 제단을 설치하여 천신을 모시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이전부터 큰 마을 단위로 천신을 모셔 천제를 지낸 전통 또한 한말~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까지 전승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1937년에는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이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고 1938년 6월 15일(음력 5월 7일) 이튿날에 독립기원제를 지냈다고 한다. 1938년 기록에 따르면 제단을 설치한 후 28수기[宿旗]를 비롯한 각종 깃발과 제수를 준비하여 천제를 지냈다.

1949년에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시멘트 단과 한배검의 비석은 없었다. 그리고 제단은 구단탑(九段塔)이라 하여 아홉 단(段)으로 쌓아 올렸다. 그 주위에는 33천기(天旗)와 28수기를 꽂고, 단의 중앙에는 태극기와 구성기(九星旗) 또는 칠성기(七星旗)를 세웠다. 제물도 아홉 종류였다.

1949년에 작성된 최익한(崔翼漢)의 수기(手記)에 따르면 당시 태백산제는 10월 3일 자시(子時)를 기해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왕당에서 거행하였다. 이 때 중앙에는 태극기, 중간에는 칠성기(七星旗)와 현무기(玄武旗)를 각각 꽂고 주변에 33천기와 28수기를 배치하였다.

1987년 태백산천제위원회가 결성되어 천제를 주관하면서 천제단 내부에 해·달·북두칠성을 그린 기를 세워 놓았다. 동쪽에 세운 해 깃발 안에는 삼족오(三足鳥), 서쪽에 세운 달 깃발 안에는 토끼 그림을 각각 그렸다. 이와 같이 해와 달을 그린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도상(圖像)이다. 이와 함



계 대중교에서 만든 천제단 위에는 돌로 만든 위패에 한배검이라 음각하여 모시고 있다. 제단 외곽에는 28수기와 각종 염원을 쓴 깃발을 세웠다.

태극중앙명류도에 의해 설행된 태백산천제를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28수기·팔만기·오행기·일월성신기·구령기 등을 세웠음.¹⁵⁷⁾
-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국내에서 독립의 의지를 표방한 것인데 결국은 모두 재판장을 받게 되었음.
- 일제는 무력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1932년부터 제창하기 시작한 ‘민심작흥(民心作興)운동’과 1935년에 제창하기 시작한 ‘심전개발(心田開發)운동’이었음.¹⁵⁸⁾
- 심전개발운동은 이른바 근대성을 표방한 일제 지배 장치의 하나였음.
-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이 1937년 구령탑을 세우고 1938년 독립 기원 천제를 지낸 것은 일제의 심전개발운동에 대한 반기를 들은 것으로 일본의 ‘천조대신’(天照大神)에 대한 강압적인 숭배에 대항하여 민족정신을 표방하며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낸 것임.¹⁵⁹⁾
- 1949년에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시멘트 단과 한배검의 비석은 없었다. 그리고 제단은 구단탑(九段塔)이라 하여 아홉 단(段)으로 쌓아올렸다. 그 주위에는 33천기(天旗)와 28수기[宿旗]를 꽂고, 단의 중앙에는 태극기와 구성기

157) 昭和 16년 刑 告 제 310호/ 사건번호 昭和 16년 刑 告 제936호 재판 기록.

158) 최석영, 「한말 일제 강점기 국가제례 공간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연구회, 2002. 심전개발운동은 이른바 근대성을 표방한 일제 지배 장치의 하나였다고 함(서영대, 「전통시대의 태백산 제의(祭儀)」, 『제2차태백산 천제 학술 대회 발표자료집』, 2019.)

159)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이 1937년 구령탑을 세우고 1938년 독립 기원 천제를 지낸 것은 일제의 심전개발운동에 대한 반기를 들은 것으로 일본의 ‘천조대신(天照大神)’에 대한 강압적인 숭배에 대항하여 민족정신을 표방하며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낸 것임.(서영대, 「전통시대의 태백산 제의(祭儀)」, 『제2차태백산 천제 학술 대회 발표자료집』, 2019.)

(九星旗) 또는 칠성기(七星旗)를 세웠고, 제물도 아홉 종류였음

- 최익한(崔翼漢)의 수기(手記)(1949년)에 의하면 당시 태백산제는 10월 3일 자시(子時)를 기해서 태백산 정상에 있는 천왕당에서 거행하였는데, 중앙에는 태극기를, 중간에는 칠성기(七星旗)와 현무기(玄武旗)를 꽂고 주변에는 33천기(天旗)와 28수기[宿旗]를 배치하였다. 제기(祭器)는 봉화군 춘양의 유기점(鑪器店)에서 81개를 맞추어 1회만 사용했다. 모든 참제자는 저녁에 등정(登頂)하여 천제를 모시고 아침에야 하산
- 제관은 모두 백의(白衣) 도포를 입었다. 참제(參祭)할 사람은 1년 전부터 일체의 부정을 가리고 심신(心身)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함
- 제물은 모두 날것으로 했는데, 아홉 종류의 제물을 아홉 벌 장만했다. 곧 81개의 제물을 올린 셈이다. 청옥(靑玉), 청송엽(靑松葉), 금(金), 은(銀), 진주(珍珠), 백미(白米) 외에도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2종류가 더 있었음¹⁶⁰⁾

소화 11년(1936) 6월 하순 윤상명(尹尙明)¹⁶¹⁾ 지휘 하에 교도등은 이튿분의 식량 및 호미와 낫 등을 가지고 태백산에 올라 그 부근에 암석을 쌓아올려 높이 24척, 아래쪽 정면 13척, 깊이 23척의 피라미드형의 돌탑을 설치하고 그것을 조선 독립기원 구령탑(九靈塔)이라 명명하고 장래 이곳에 모든 교도를 모아 독립기원제를 거행하기로 하는 한편 독립기원제에 사용할 제구(祭具), 구한국기(舊韓國旗) 및 천자의 옥체(玉體)에 비기기 위해 함경남도 신흥군(新興郡)에서 산출되는 속칭 옥석(玉石)이라 하는 반귀석(半貴石)을 주문하고 그 도착을 기다려 독립기원을 거행하는 것으로 했지만, 마침 그 겨울에 이르러 추위 때문에 구령탑(九靈塔)이 무너짐에 따라 소화 12년(1937) 5월 25일 교도의 손으로 다시 보수하였다.

160) 이러한 제사는 강화도 참성단에서도 베풀어졌는데, 참성단의 제사가 도교식 초제의 형식이었음을 고려할 때 위의 제사 형식도 초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33천기와 28수기의 존재나 9종 9벌의 81가지의 제물 등은 유교식 제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161) 강원도 삼척군 상장면 혈리 82, 29세(1936년)



소화 12년(1937) 6월 16일 오전 0시를 조선독립기원제의 일시로 결정하고 일반 교도에게 알리고 그간 윤상명(尹尙明)·류형호(柳亨浩)·최익한(崔翼漢)이 서로 협력해서 구한국기인 태극기 외에 71매의 기를 만들고, 또 소화 12년 6월 14일 저녁에 강원도 삼척군 상장면 혈리(上長面 穴里) 자택 온돌에서 조선독립기원문을 입안(立案)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문: 해동조선국태백산만경대례경발원축고(海東朝鮮國太白山萬景臺禮敬發願祝告)

② 제문: 고래(古來)로 조선은 동방예의의 나라입니다. 앞드려 바라오니 천지신령과 황천후토(黃天后土)의 여러 신위께서는 하찰감응(下察感應)하사 멀지않은 장래에 부국안민(復國安民)해주시기를 예경지성발원고축(禮敬至誠發願告祝)합니다.

③ 기원송축(祈願頌祝):

기도문을 만들고 류형호(柳亨浩)에 명하여 조선 백지에 청서(淸書)하게 했는데 그중 영축문(靈祝文)은 천지중앙명류도(天地中央明流道)에 의한 조선독립기원문으로 작성한 것이다.

소화 12년 6월 15일 저녁까지 몰래 당시 삼척군 상장면 혈리 거주 중의 교도 등과 함께 태백산에 올라가 각기 멜빵[褌]과 관을 착용한 후 구령탑에 옥석, 회중전지, 향리(香梨), 백미, 판초자(板硝子) 50전, 은화, 청수(淸水)를 각각 그릇에 담아 바치고, 태극기를 탑의 꼭대기에 세우고 다른 71장의 기는 탑의 둘레에 돌려세우고 그날 오전 0시를 기해 일동 탑을 통해 천지신을 예배하고 전기(前記)한 기원문을 최익한으로 하여금 낭독하도록 함으로서 조선독립기원제를 거행했다.

즉 태극중앙명류도 교도들은 교도가 희구하는 조선독립운동의 구체적 수단의 하나로서 태백산 정상에 조선독립기원 제장을 축조하였다. 신도들은 이후 일제

에 의해 투옥되어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이들에게 적용된 법령은 보안법, 삼림령, 묘지규칙 위반, 침술영업 위반이다. 이들에 대한 심문조서를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유형남

주 활동지	삼척	운동계열	국내항일
출생일/사망일	1894/1957	포상 훈격	대통령표창
주요활동	천지중앙명류도(天地中央明流道)에 가입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종교행사를 거행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음.		

□ 주요 활동

천지중앙명류도(天地中央明流道)에 가입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종교행사를 거행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유형남은 1930년 천지중앙명류도 [태극교(太極敎) 혹은 북두교(北斗敎)라고도 함]에 가입하였다. 천지중앙명류도는 종교적 색채를 띠었지만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한국 독립을 주창하였다. 이들은 “조선은 예로부터 동양의 독립국으로 현재는 일본의 영토에 속해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독립을 예견하며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九靈塔)을 쌓고 기도제를 올렸다. 이 때 구한국기인 태극기·28수기[宿旗]·팔만기(八萬旗)·오행기(五行旗)·일월성진기(日月星辰旗)·구령기(九靈旗) 등을 나무에 걸고 ‘복국안민’(復國安民)을 빌며 태극기도(太極祈禱)를 행하였다. 이후 유형남은 태백산·금강산 등지를 이동하며 한국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제(祈禱祭)를 거행하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를 비판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게 붙잡혀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윤상명

주 활동지	삼척	운동계열	국내항일
출생일/사망일	1912/1976	포상 훈격	대통령표창
주요활동	최익한(崔翼漢) 등의 교도들에게 조선이 독립할 것이며 자신이 태극교의 교주가 될 것이라며 선언하고 다님. 1930년 4월경 함경·평안 양도는 삼재팔난(三災八難)에 빠질 것이라 하여 태백산록의 삼척 일대로 이거한 뒤에도 교도를 포섭하는 한편 민족의식을 고취함.		

□ 주요 활동

1929년 봄 외백부인 이낙림(李洛林)이 “조선은 장차 천지개벽하여 반드시 독립국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듣고 정식으로 태극교(太極敎)에 가입하였다.

윤상명은 최익한(崔翼漢) 등의 교도들에게 조선이 독립할 것이며 자신이 태극교의 교주가 될 것이라며 선언하고 다녔다. 1930년 4월경 함경·평안 양도는 삼재팔난(三災八難)에 빠질 것이라 하여 태백산록의 삼척 일대로 이거한 뒤에도 교도를 포섭하는 한편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는 이러한 일로 1939년 2월 체포되어 1941년 7월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최기한

주 활동지	삼척	운동계열	국내항일
출생일/사망일	1906/1940	포상 훈격	건국포장
주요활동	천지중앙명류도(天地中央明流道)에 가입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종교행사를 거행하다 체포되어 옥중에서 희생됨.		

□ 주요 활동

천지중앙명류도(天地中央明流道)에 가입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종교행사를 거행하다 체포되어 옥중에서 희생되었다. 최기한은 1930년 천지중앙명류도[태극교(太極敎) 혹은 북두교(北斗敎) 라고도 함]에 가입하였다. 천지중앙명류도는 종교적 색채를 띠었지만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한국 독립을 주창하였다. 이들은 “조선은 예로부터 동양의 독립국으로 현재는 일본의 영토에 속해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독립을 예견하며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九靈塔)을 쌓고 기도제를 올렸다. 이때 구한국기인 태극기·28수기[宿旗]·팔만기(八萬旗)·오행기(五行旗)·일월성진기(日月星辰旗)·구령기(九靈旗) 등을 나무에 걸고 ‘복국안민’(復國安民)을 빌며 태극기도(太極祈禱)를 행하였다. 이후 최기한은 태백산·금강산 등지를 이동하며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제(祈禱祭)를 거행하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일경에게 붙잡혀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다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고병률

성명	고병률	한자	高炳律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1887-07-23	사망년월일	1942-08-17
본적	경상북도 봉화 春陽 宜陽 27		
주소	慶北 奉化 春陽 宜陽 217		

□ 공적정보

천지중앙명류도(天地中央明流道)에 가입하여 한국 독립운동을 위한 기도제를



거행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천지중앙명류도[북학교(北學敎), 태극교(太極敎)라고도 함]는 종교적 색채를 띠었지만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한국 독립을 주창하였다. 이들은 “조선은 예로부터 동양의 독립국으로 현재는 일본의 영토에 속해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독립을 예견하며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九靈塔)을 쌓고 기도제를 올렸다. 이때 구한국기인 태극기 등을 나무에 걸고 복국안민(復國安民)을 빌며 태극기도(太極祈禱)를 행하였다. 1931년 금강산으로 이동한 고병률은 수년에 걸쳐 한국 독립을 위한 기도제(祈禱祭)를 거행하며 그 비용을 제공하였다. 교도들 간에 통신연락을 하다 체포되어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이창순

성명	이창순	한자	李昌淳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1898-03-20	사망년월일	1946-03-17
본적	慶北 奉化 春陽 宜陽		
주소	江原 三陟 上長 穴里		

□ 공적정보

천지중앙명류도(天地中央明流道)에 가입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종교행사를 거행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창순은 1930년 천지중앙명류도 [태극교(太極敎) 혹은 북두교(北斗敎)라고도 함]에 가입하였다. 천지중앙명류도는 종교적 색채를 띠었지만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한국 독립을 주창하였다. 이들은 “조선은 예로부터 동양의 독립국으로 현재는 일본의 영토에 속해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독립을 예견하며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九靈塔)을 쌓고 기도제를 올렸다. 이때 구한국기인 태극기·28수기[宿旗]·팔만기(八萬旗)·오행기(五行旗)·일월성진기(日月星辰旗)·구령기(九靈旗) 등을 나무에 걸고 ‘복국안민’(復國安民)을 빌며 태극기도(太極祈禱)를 행하였다. 이후 이창순은 태백산·금강산 등지를 이동하며 한국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제(祈禱祭)를 거행하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를 비판하였다. 이로 인해 이창순은 일경에게 붙잡혀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벌금 30원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이금손

성명	이금손	한자	李金孫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1911-03-21	사망년월일	1961-09-07
본적	慶北 奉化 春陽 川坪 148		
주소	慶北 奉化 春陽 川坪 148		

□ 공적정보

천지중앙명류도(天地中央明流道)에 가입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종교행사를 거행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금손은 1930년 천지중앙명류도 [태극교(太極教) 혹은 북두교(北斗教) 라고도 함]에 가입하였다. 천지중앙명류도는 종교적 색채를 띠었지만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한국 독립을 주창하였다. 이들은 “조선은 예로부터 동양의 독립국으로 현재는 일본의 영토에 속해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독립을 예견하며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九靈塔)을 쌓고 기도제를 올렸다. 이때 구한국기인 태극기·28수기[宿旗]·팔



만기(八萬旗)·오행기(五行旗)·일월성진기(日月星辰旗)·구령기(九靈旗) 등을 나무에 걸고 ‘복국안민’(復國安民)을 빌며 태극기도(太極祈禱)를 행하였다. 이후 이금손은 태백산·금강산 등지를 이동하며 한국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제(祈禱祭)를 거행하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를 비판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게 붙잡혀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유형호

성명	유형호	한자	柳亨浩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1901-01-25	사망년월일	1962-02-21
본적	경상북도 봉화 봉양 천평 47		
주소	江原 三陟 上長 穴 82		

□ 공적정보

천지중앙명류도(天地中央明流道)에 가입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종교행사를 거행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유형호는 1930년 천지중앙명류도 [태극교(太極敎) 혹은 북두교(北斗敎) 라고도 함]에 가입하였다. 천지중앙명류도는 종교적 색채를 띠었지만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한국 독립을 주창하였다. 이들은 “조선은 예로부터 동양의 독립국으로 현재는 일본의 영토에 속해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독립을 예견하며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九靈塔)을 쌓고 기도제를 올렸다. 이때 구한국기인 태극기·28수기[宿旗]·팔만기(八萬旗)·오행기(五行旗)·일월성진기(日月星辰旗)·구령기(九靈旗) 등을 나무에 걸고 ‘복국안민’(復國安民)을 빌며 태극기도(太極祈禱)를 행하였다. 이후 유형

호는 태백산·금강산 등지를 이동하며 한국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제(祈禱祭)를 거행하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를 비판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게 붙잡혀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4. 전승 양상과 의미

최제우가 1860년(철종 11) 창도한 동학은 경주를 비롯하여 영덕·고성·영일·단양 등 경상도와 충청도 산간지방에 널리 전파되다가 흑세무민한다고 하여 최제우는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이후 경상도를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동학은 이필제 등이 주도한 1871년 ‘신미교조신원운동’, 즉 영해민란과 문경작변이 실패한 후 최제우 재세시부터 동학과 연고가 있었던 정선·영월·단양 세 고을의 접경지역으로 최시형을 비롯하여 동학을 이끌던 지도자들과 신도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강원도 정선을 비롯한 태백산 권역을 중심으로 동학의 교세가 확장될 수 있었다.

이들이 당시 주로 활동하였던 태백산 권역은 역사·종교·지리적 전통이 서려 있는 태백산 권역이었기에 동학교도들도 매우 힘든 시기에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시형은 비록 주변 여건이 매우 어려웠지만 기존의 교도들과 정선·영월·단양지역에서 새롭게 입도한 동학교도들을 규합하여 흐트러진 교단 정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태백산 권역에 속하는 영월·정선·단양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진 동학교도들의 활동이 지닌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시형은 흐트러진 교단을 다시 조직하고 동학교도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49일 수련법과 ‘고천제례 → 설법제 → 구성제 → 인등제’로 이어지는 제례



를 확립해 가면서 다시 개접을 하는 등 조직의 재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수 준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고기를 올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인등제를 통해 제수를 음식 대신 생쌀과 천으로 하도록 구상하여 실천하였다. 또한 구성제를 한 번 올리면 49일 간의 기도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여 이를 실행하는 등 강원도 영월·정선을 비롯한 태백산 권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곳임을 감안하여 동학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제례를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바꿔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백산 권역이 지닌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잘 반영함으로써 백성들과 함께하는 동학을 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당시의 민중들에게 동학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였다.

둘째, 초기 동학의 역사서인 『최선생문집도원기서』를 정선 남면 방시학의 집에 수단소를 설치하여 정선을 비롯한 주변 지역 동학교도들의 후원에 힘입어 간행하여 동학 도(道)의 맥락을 정리하였으며, 최제우가 만든 경전인 『동경대전』을 단양·영월·정선지역 교도들의 후원으로 1880년 5월 9일 인제 김현수 집에 간행소를 마련하여 목판으로 100부를 간행하여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동학을 폭넓게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1881년 6월 단양 여규덕 집[泉洞 소재]에 간행소를 마련하여 『용담유사』를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들 서적의 편찬에 영월·정선을 비롯한 태백산 권역에서 활동한 동학교도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후 동학이 전국적으로 그 세를 확장하는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선지역 동학교도들은 최시형을 도와 최제우 일가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집을 마련해주고, 음식을 조달해주는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최제우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면서 대선사 가족을 잘 돌봐줌으로써 최시형이 동학교단에서 강력한 지도권을 행사하는 데 기여한 것이다. 왜냐하면 역대 정치사를 살펴보면 나름의 정통 의식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종교제례를 중시

하며, 이전의 선대 지도자를 잘 모심으로써 계승자로서의 권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학의 교세가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동학 교단에서 주도한 복합 상소 운동이 일어나고, 1890년대 전국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1870년대 정선을 비롯한 영월과 단양에서 본론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조직을 정비하고, 의례 확립과 경전 간행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860년대에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탄압으로 인해 궤멸 직전에 이른 동학 교단을 회생시켜 1880년대 동학 교세 확장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과 이 기간 동안 동학 교단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태극중앙명류도 교도들은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고, 1938년 6월 15일(음력 5월 7일) 윤상명·최익한·유형호·유형남·이창순·이금손·주인섭·고병월 외 18명의 교도들이 제수를 준비하여 6월 16일(음력 5월 8일) 오전 0~3시 사이에 독립 기원제를 지냈다. 이 때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28수기·팔만기·오행기·일월성신기·구령기 등을 세웠다.

이와 같은 형태로 행한 의례는 현재 태백산 천제의 모습을 갖추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Ⅶ. 맺음말 - 천신을 모신 전통이 지닌 구조와 의미를 중심으로

신령으로서의 천신(天神)은 하늘을 관장하는 신령, 하늘을 초인격화하여 모신 신령, 세상을 관장하는 최고의 신령 또는 기우·역질 구축 등 다양한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신령으로 모셔진다.

현재까지 알려진 천제(天祭) 또는 제천(祭天)이라 불리는 하늘[天]에 대한 제의 사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이나 특정 산의 권역을 중심으로 행해진 천제, 둘째, 강원도 삼척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간헐적으로 보이는 마을 단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이 함께 지낸 천제, 셋째, 개인이나 특정 종교집단 차원에서 행한 천제로 구분할 수 있다.

태백산에서 천제를 지내는 전통 또한 필자가 설정한 위의 3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유형과 관련하여, 태백산을 천제 지내는 성소로 여겨서 제단을 쌓아 천제를 지내거나, 천신이 강림하는 장소로 여기는 사례들을 소개하면, 태백산이 지닌 민족의 영산이라는 관념 속에서 구국의 성지로 인식된 것과 관련하여 1937년 태극교도[천지중앙 명류도]들의 활동이 주목된다.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을 쌓고, 1938년 6월 15일(음력 5월 7일) 윤상명·최익한·유형호·유형남·이창순·이금손·주인섭·고병월 외 18명의 교도들이 제수를 준비하여 6월 16일(음력 5월 8일) 오전 0~3시 사이에 독립기원제를 지냈다. 이 때 구령탑 주위에 태극기·28수기·팔만기·오행기·일월성신기·구령기 등을 세웠다. 이러한 의례는 현재 태백산 천제의 모습을 갖추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둘째 유형은 마을 단위로 하위 마을을 대표하는 곳에 천제단을 만들어 천제를 지내는 형태이다. 마을 단위로 하위 마을을 대표하는 곳에 천제단을 만들어 천제를 지내는 사례는 구한말 이전부터 행해진 전통으로 태백산을 중심으로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태백시 솔안마을과 백산마을에 각각 있는 천제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마을에서는 격년에 한 번씩 소를 제물로 준비하여 천제를 지낸다. 솔안마을에서 천제를 지내면 백산마을 대표와 하위 마을에서 동참하며, 백산마을에서 천제를 지내면 솔안마을 대표와 하위 마을 사람들이 동참하는 형태로 천제를 지낸다. 언제인지는 모르나 예전에는 솔안마을 또는 백산마을에 속한 하위 마을 단위로 마을 서낭당이 있어 백산 또는 솔안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천제와는 별개로 서낭제를 각 하위 마을별로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삼척시 도계읍 점리는 7개의 하위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마을에서는 매년 서낭제를 지냈으며, 3년에 한 번씩 마을 천제당에서 7개 마을 주민들 대표와 제관 등이 모여 점리마을 전체의 안녕과 소통·화합을 위해 돼지를 제물로 준비하여 천제를 지낸다.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에서는 매년 음력 4월 8일 대현리를 구성하는 하위 마을 대표들과 제관들이 대현리 천제당에서 대현리 전체 주민들의 안녕과 풍요·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천제를 지낸다. 물론 하위 마을 단위의 서낭당에서는 하위 마을 자체적으로 서낭제를 정초에 지낸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위 마을 단위로 매년 서낭제를 지내면서 하위 마을들을 아우르는 마을 천제당에서 매년 또는 수 년에 한 번씩 천제를 지내는 사례가 태백산 자락과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견된다. 이들 마을에서는 마을 단위에서 모시는 신령보다 상위 신령으로 여겨지는 천신을 모셔서 마

을 주민들의 종교적 염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전체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천제를 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실행되는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천제단은 여러 하위 마을을 관장하는 중심 제당으로 기능하여 매년 또는 수 년에 한 번씩 천제단에 모여 천제를 지낸다. 또한 천제단에서 모시는 신령은 일반적으로 천신과 다른 신령을 함께 모셔 천제를 지내는 예를 여러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이를 구분하여 천신만 모시는 예, 천신과 산신을 함께 모시는 예, 천신과 기타 여러 신을 함께 모시는 예, 비밀스럽게 기우를 위해 천제를 지내는 사례, 거리고사에서 상당신으로 모셔진 사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셋째는 태백산에 소재한 각종 산당이나 기도터에서 태백산신과 함께 천신을 모시거나, 신종교에서 천신을 모시는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태백산은 하늘을 중시하는 신종교인들이 모여드는 성지, 구국의 성지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동학을 만든 최제우 사후 동학교도들이 태백산 권역에 모여들었으며, 다양한 신종교의 신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태백산으로 모여들어 천신에게 제사지낸 사례들이 있다.

동학과 관련한 내용은 『최선생문집도원기서』를 비롯하여 동학 관련 자료집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자료들을 통해 동학은 하늘[天]을 중시하면서 발흥했기에 설단제천(設壇祭天)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동학을 이끌던 지도자인 이필제는 1871년에 영해신원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설단제천했다. 관에 쫓겨다니면서도 설단제천 후에 인근 관아를 습격했다. 이 외에 정선에 머물던 최시형이 갈래산 적조암에 들어가 49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 때 “태백산 중에 들어 49일 기도드리니, 한울님께서 여덟 마리 봉황을 주어, 각기 주인을 정해 주셨네.”라는 시를 썼다. 갈래산은 태백산 권역에 속하였기에 태백산으로 간주하며, 이곳에서 한울님을 만났다. 이처럼 태백산은 천신을 만나는 곳으로 강하게

인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태백산 자락에는 건물 형태의 산당인 윤씨산당·유복산당·팔보암·미륵암 등 개인 산당들이 많다. 이들 산당에서는 태백산신을 비롯하여 단군·천신·서낭·용신 등 다양한 신령을 모신 제의 공간을 각각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움막이나 기타 형태로 태백산에서 산기도나 산치성을 드릴 때 태백산신과 함께 천신을 모신 사례 관련 제보는 많다. 이와 같은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태백산 내 대부분의 산당에서 천신을 별도로 모시고 있다.

그러므로 태백산 자락에서 천신을 모신 제의는 태백산 정상에서 천제를 지내는 전통으로 확립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천신을 모시는 전통은 각종 산당이나 신종교에서 천신을 모신 제단을 설치하여 모시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이전부터 큰 마을 단위로 천신을 모셔 천제를 지낸 전통 또한 구한말~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까지 전승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高麗史』
- 『世宗實錄』
- 『世祖實錄』
- 『新增東國輿地勝覽』
- 『陟州誌』(許穆)
- 『虛白堂集』(成俔)
- 「遊黃池記」(李簞)
- 「遊太白山記」(凌壺 李麟祥)
- 「黃池記」(姜再恒)
- 姜時元, 『崔先生文集道源記書』, 1880.
- 『高宗實錄』
- 沈宜昇, 『三陟郡誌』, 1916.
- 李能和, 『朝鮮巫俗考』, 1927.
- 昭和 十六年 刑公 第 310號/事件番號 昭和16年刑第936號 재판 기록

-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조선총독부, 1935.
- 村山智順, 『部落祭』, 조선총독부, 1937.
- 관동대 박물관 외, 『太白市の 歴史와 文化遺蹟』, 관동대 박물관·태백시, 1997.
- 국립민속박물관(편), 『한국의 마을제당(강원도)』, 1999.
- 김도현, 『史料로 읽는 太白山과 天祭』, 강원도민일보사·강원도·태백시, 2009.
- 김도현·장동호, 『3대 강 발원과 태백』, 강원도민일보·태백시, 2010.
- 김도현 외 3인 공저, 『문헌으로 본 태백시의 지명』, 태백시강원대 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11.
- 김도현 외 3인 공저, 『우리가 알아야할 태백시의 문화유산』, 태백시·강원대 강원전통문화연구소, 2011.
- 김도현, 『태백의 3대 강 발원지와 옛길』, 태백시·강원도민일보, 2011.
- 예맥문화재연구원(편), 『태백시문화유적분포지도』, 태백시·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 이필영,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 문화 이야기』, 웅진닷컴, 2001.
- 임동권, 『한국민속학논고』, 집문당, 1971.
- 임동권 외 2人 共著, 『태백산 민속지』, 민속원, 1997,
- 강정식, 「신앙·전설 유적」,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Ⅱ) - 민속 - 』, 북제주군·



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9.
- 김도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신태음산 산메기」, 『박물관지』 15집,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9.
- 김도현, 「태백시 咸白山 절골 天祭堂 운영 양상과 그 성격」, 『강원문화연구』,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09.
- 김도현, 「〈東學亂中記〉(劉澤夏 著) 解題 및 내용」, 『정선문화』제 12호, 정선문화원, 2009.
- 김도현, 「울진 12령 셋재[鳥嶺] 城隍祠와 褙負商團」, 『실천민속학』16집, 실천민속학회, 2010.
- 김도현, 「태백지역 고갯마루 산령당 운영 양상과 그 성격」, 『박물관지』 제18호, 강원대 중앙박물관, 2012.
- 김도현, 「1870년대 태백산 권역에서의 동학교도 활동과 그 의미」, 『박물관지』제 19호,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 김도현, 「한계산성 천제단의 형태와 성격」, 『한국성곽학보』23집, 한국성곽학회, 2013.
- 김도현, 「삼척시 내미로리 天祭」, 『종교학연구』 제 32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14.
- 김도현, 「태백시 栢山洞 번지당골 天祭堂」, 『강원도 민간신앙 기초조사』, 국립무형유산원, 2016.

- 김도현, 「한말~일제강점기 태백산에서의 祭儀 전승과 변동」, 『역사민속학』 5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 김도현, 「환웅신화에 보이는 천왕의 성격」, 『삼국유사의 세계좌광식교수 정년기념 논총-』, 세창출판사, 2018.
- 김도현, 「역사·문화로 본 한강·낙동강·오십천 발원지 고찰」, 『강원사학』 31집, 강원사학회, 2018.
- 김도현, 「신앙과 산림문화 -산에서 모시는 신령과 의례-」, 『세시풍속과 산림문화』, (사)숲과 문화연구회·산림청, 2018.
- 김도현, 「강원도 삼척·동해·태백지역 독립유공자와 이의 교육적 활용」, 『강원지역독립운동사』, 강원도교육청, 2018.
- 김도현, 「김병연 집안이 영월로 온 배경과 의미」, 『제21회 김삿갓문화제 학술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영월문화원, 2018.
- 김도현, 「마을 천제의 구조와 성격」, 『한국민속학』 69, 한국민속학회, 2019.
- 김도현, 「太白山에서의 天祭, 그리고 산신·천왕·용왕 모신 전통에 대한 歷史民俗的 고찰」, 『2019년 태백제, 태백산 천제 학술 대회 발표자료집』, 태백시, 2019.
- 김효경, 「단종 제사와 신앙의 전개 과정」, 『역사민속학』 제22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6.
- 김효경, 「端宗의 신격화 과정과 그 의미」, 『민속학연구』 5, 국립민속박물관, 1998.
- 나경수, 「지남리 지북마을의 민속」, 『전남민속연구(신안군 도초면지역 민속

종합조사 보고)』 창간호, 전남민속학연구회, 1991.

- 서영대, 「갈반지소고—소도의 불교적 수용」, 『종교학연구』2,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79.
- 서영대, 「전통시대의 태백산 제의(祭儀)」, 『제2차태백산 천제 학술 대회 발표자료집』, 2019.
- 신종원·노남호, 「태백산 사길영 산령각제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3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8.
- 윤순석, 「遊黃池記」·「遊太白山記」·「黃池記」, 『태백문화』 21집, 2008.
- 이태호, 「고구려벽화고분23 : 인물풍속, 사신도 - 천왕지신충」, 『북한』 112권, 북한연구소, 1981.
- 최석영, 「한말 일제 강점기 국가제례 공간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연구회, 2002.
- 최종성, 「태백이 품은 성지와 성자」, 『2018년 태백산 천제 학술 대회 자료집』, 태백문화원, 2018.
- 나경수, 「개도리 화산 천제」, 『디지털여수문화대전』(<http://yeosu.grandculture.net/GC01302265>)
- 김도현, 「쌍전리 동제」,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GC01801358>)
- 서울대 규장각에서 홈페이지(<http://e-kyujanggak.snu.ac.kr>)
- 현지 조사: 2008년~2019년 9월

□ 저자 약력

김도현(金道賢)

문학 박사(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

太東문화재연구원 원장

강원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주요 논저 : 『史料로 읽는 太白山과 天祭』, 『삼척 공양왕릉』, 「신앙과 산림문화 -산에서 모시는 신령과 의례」, 「한말~일제강점기 태백산에서의 祭儀 전승과 변동」 外 다수

□ 감수자 약력

신근영(辛權始)

문학 박사(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 글로벌 일본연구원 연구교수

고려대·강원대 외래교수 역임

주요 논저: 『한국전통연희사전』(공저), 「조선물산공진회 여흥장 고찰」 外 다수



2019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태백산에서 천신(天神)을 모신 전통과 의의

발행일 2019년 12월 20일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발행인 김태웅

기 획 태백문화원

주 소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136

전 화 033-553-3160/1

저 자 김도현

[비 매 품]

※ 이 책은 「한국문화원연합회 “2019년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태백문화원